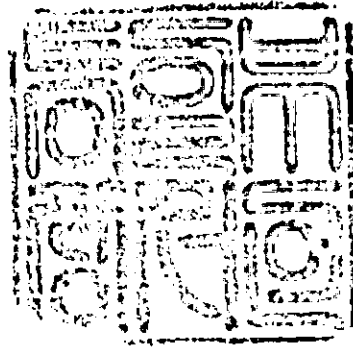


초등학교 5~6학년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교사용 지도서



통일교육원

1000

차 례

총 론

제 1 장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 21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 30
3.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 34
4.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와 협력 / 38
5. 다른 나라의 만남과 협력 / 43

제 II 장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1. 북한의 경제와 산업 / 51
2.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생활 / 63
3. 북한 사람들의 직장생활 / 73
4. 북한 사람들의 가정생활 / 98
5. 북한 사람들의 여가생활 / 104
6.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 / 111
7. 북한의 명절 / 118
8. 북한의 교통수단 / 126
9.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 132
10.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생활 / 142
11.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생활 / 150

제 III 장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1. 학습안내 / 161
2. 학습목표 / 161
3. 교수·학습 지도안 / 161
4. 학습자료 / 163
5. 참고자료 / 166

제 IV 장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1. 학습안내 / 173
2. 학습목표 / 173
3. 교수·학습 지도안 / 173
4. 학습자료 / 175
5. 참고자료 / 177

부 록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 181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 186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 188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 192

총론

1. 통일의 필요성(당위성)과 통일교육의 정의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다. 그러나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뉘어 5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민족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이산가족의 고통을 비롯하여, 민족이질화의 심화, 민족역량의 낭비, 전쟁의 공포, 동북아지역의 긴장 심화 등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미래 발전적 측면 등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남한은 꾸준한 발전을 해 온 반면에 북한은 80년대 말 이후 심한 경제적 불황과 사회의 불안에 휩싸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통일의 논의는 경제적 격차만큼이나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제 와서 통일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한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분단 현실은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민족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북아지역 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은 물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 태도, 적극적 의지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2. 통일교육의 목표

우리 나라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통일교육은 이러한 법체계의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원리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질서의 하나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토록 하는 이념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기본으로 삼아야 할 가치이다.

민족공동체는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추가되어 공고하게 결합된 인간공동체를 말한다.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왔으며, 현재의 분단은 이러한 민족의 삶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선호하는 통일방식

을 합의에 의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민족공동체의 식은 통일 이후에 민족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우리 민족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식에 바탕을 두고 통일을 지향하는 가치관 및 태도의 형성, 즉 바람직한 통일관의 정립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사회주의권 몰락 이후 국제사회의 탈냉전 추세와 남북간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통일환경에 맞추어 현재의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한 화해협력의 추진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남북한 화해협력의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안보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해서는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보 요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정치적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제고를 통해, 경제적 안보는 국민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재정·시장의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안보는 국민 갈등 해소와 화합 증진을 통해 이루어가야 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남북한 통일은 현재와 같은 이질적 체제에서 하루아침에 이룩될 수 없다. 남북한 사이에는 아직 정치·군사적 신뢰가 쌓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의 기회가 갑자기 다가왔을 때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쌓아 왔던 동서독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경험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도 무엇보다 먼저 화해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평화공존의 단계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존의 경험이 없는 평화적 통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에게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의 지출과 필요 이상의 국력을 낭비하게 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한반도의 위상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우리는 민족 역량의 선양과 세계 평화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적극적 기여를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은 헌법 질서와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그리고 통일환경을 고려하여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나아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 복지를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다.

3. 통일교육의 과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은 물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학교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안점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 통일 실현 의지의 확립

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의식을 함양케하고 통일 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상호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다면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객관적 북한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바탕에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대북정책의 안보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인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하고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대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한다.

4. 학교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기법

현실적으로 토의수업은 통일교육에서 가장 많이 제안되고 있는 수업 모형으로, 어떤 정해진 한 가지 절차만으로 한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토의 수업은 대화식 수업, 토론식 수업, 논의식 수업 등으로 불리는 일단의 모든 수업 과정 곧, 교사와 학생간의 일문일답식 수업, 집단 토의 수업, 문제에 대한 판단과 대안 찾기 수업, 찬반이 있는 문제에 대한 찬반 토론 수업 등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의미이다.

토의 수업의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비 토의, 직소우, 구조화된 논쟁, 집단 탐구, 디스크그래피, PMR,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등이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학교현장에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가능해진 현시점에서는 인터넷의 정보 검색 이용법, 전자 우편 이용법, 전자 게시판 이용법, 정보 사냥 대회 등의 사이버통일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각 수업기법들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각 기법들이 실제 수업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간략히 기술하기로 한다.

1)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적용해볼 수 있다.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이질화가 심해졌다고 한다. 이런 이질화의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 ‘분단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고 있을까?’, ‘우리는 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

브레인스토밍 방법은 학생들에게 통일 문제에 대한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 아주 유용하다. 브레인스토밍 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모든 아이디어가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는 또 다른 토의의 대상이 된다. 브레인스토밍 토의가 끝나면 교사는

우선 모든 아이디어들을 평가해야 하며, 가능하면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유비 토의(Analogy discussion)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비를 만들어 보라고 요구할 수 있다: '북한 정권과 선인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민족과 발전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통일과 마라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통일을 식물에 비유한다면?', '북한의 대남 정책을 붉은 장미에 비유한다면?', '북한의 핵 개발을 두더지에 비유한다면?' 등이 있다.

유비 토의의 장점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촉구할 수 있으며, 복잡한 통일 문제의 성격을 다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3) 직소우(Jigsaw)

직소우 수업기법은 협력적 과제 해결의 능력을 신장시켜 줌과 동시에 긍정적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구체적으로 이 기법의 활용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습한다고 가정해 보자. 교육자는 학습 과제를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5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5명씩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한다. 원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부른다. 교사는 이러한 모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학습 과제를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각 팀의 구성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운데 하나의 학습 과제를 부여받아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하게 된다.

개별적인 탐구 활동이 끝난 후에, 교육자는 북한의 정치를 탐구한 학습자들만이 모이는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준다. 학습 주제가 다섯 가지이므로 모두 다섯 개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문가 집단에서 자신들이 탐구한 내용들을 토의하여 보다 완벽하게 학습 과제를 해결하게 된다. 어느 정도 토의가 이루어진 후에 교육자는 학습자들이 다시 원래의 소속 집단(모집단)으로 돌아가게 한다.

모집단에 돌아온 학습자들은 전문가 팀에서 심층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다른 구성원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모든 학습자들이 교육자이면서 동시에 피교육자가 되며, 학습자들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4) 구조화된 논쟁(Structured controversy)

이 방법은 토의 절차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서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을 지닌 2~3명으로 구성된 논쟁 참가자 팀이 주제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것이다. 한 팀이 주장을 내세우면 다른 팀이 계속해서 논박하는 것이다. 형식에 따른 논쟁 토의가 끝난 후 청중과의 일반적인 토의도 가능할 수 있다.

‘북한이 서해 5도에서 산발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계속해 주어야 하는가?’ 라는 논쟁거리를 이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는데 효과적이다.

5) 집단 탐구(Group investigation)

통일교육에서 이러한 집단 탐구를 활용하는 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황의 제시와 탐구 문제 설정 : 교사는 집단 탐구를 실행하기 1~2주전에 학생들에게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곧 학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북한의

실상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학습에 비치하여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북한의 실상에 관해 다루는 첫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이 북한에 관하여 탐구하기를 원하는 학습 주제들을 선정하게 한다.

- 탐구 계획 수립 : 교사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몇 개의 탐구 주제를 선정하여 비슷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편성하여 탐구 집단을 구성하게 한다. 각 집단은 자기 집단에서 구체적으로 탐구할 주제를 세분화하고, 각 탐구 질문에 필요한 자료의 출처를 논의하고, 탐구 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각자가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할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집단이 북한의 경제에 대하여 탐구할 것을 결정하였을 경우, 그 집단은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탐구 과제, 즉 북한의 식량생산 실태, 북한의 천연재해 실태, 북한의 농업기계화 실태, 계획경제의 문제점, 북한의 군사비지출 현황 등을 설정하게 된다.
- 탐구 활동의 전개
- 탐구 결과의 정리 및 발표
- 탐구 활동에 대한 평가

집단 탐구는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 넓고 다양한 정보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 탐구의 내용과 과정을 함께 계획할 수 있는 기회,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관점에서 해답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정보와 아이디어의 수시 교환에 있어서 동료와 상호 작용하는 기회를 극대화시켜 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6) 디스코그래피(Discography)

디스코그래피는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테이프, 레코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기법으로 주로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중 1·4후퇴 당시의 상황을 공부할 때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

을 묘사한 '굳세어라 금순아' 노래 테이프를 학습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와 단원의 주제를 연결시켜 토의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녹음 테이프 자료만이 아니라 TV,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작품으로도 얼마든지 응용하여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식량난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방송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편집하여 보여줄 수 있다.

디스코그래피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나 핵심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녹음 테이프 자료나 비디오 테이프 및 영화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PMR은 특정한 문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각각 기록하고 이들 각각을 비교 분석한 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 둘을 결합하여 더욱 이익이 되는 점을 찾는 기법이다.

한 예로, 대북 쌀 지원의 장단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하고 대북 식량 지원의 효과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보도록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기 위해 인터넷과 현장 방문을 통해 통일부나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수집·정리한 자료(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준비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대북 쌀 지원의 효과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극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이며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8) 만화나 광고 활용하기

이것은 신문이나 잡지, 팸플렛, 다양한 책자 등에 나오는 광고나 만화 중 도덕과 수업과 관련이 깊은 것을 오리거나 복사해 영상 매체로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그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자유롭게 말해보게 하는 기법이다. 그리고 왜 그렇게 보았는지 그 이유도 말해 보게 한다. 도입부 등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여 수업의 동기 부여 및 토론의 단서를 제공해 수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기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광고나 만화의 한 컷을 보고 융통성 있게 자신의 상상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그리고 글을 통해서 전할 수 없는 감동과 총체적 느낌을 전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9) 마인드 맵(Mind-map)

이것은 어떤 중요한 낱말이나 개념 혹은 이미지를 연상 작용에 의해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북한 어린이’라는 중심 단어는 ‘탁아소’, ‘붉은 머플러’, ‘꽃제비’, ‘과장된 미소’, ‘특이한 손짓과 말투’,... 등을 연상시키고, 또 ‘탁아소’, ‘붉은 머플러’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방사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아이디어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줌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간의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통일교육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심리 상태와 생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0) 확인하기(Affirming)

이것은 학생 자신이 선택한 가치에 대하여 여러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확신 내지는

존중감을 표시하게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북한 어린이의 일상 생활'을 공부했다면 수업의 끝날 무렵에 자신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천 계획을 선생님과 여러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다짐해 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수업시간에 다시 자신이 다짐한(확인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또한 실천이 미비했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보게 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더욱 내면화할 뿐만 아니라, 익명성(匿名性)을 제거하여 행동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정리단계 등에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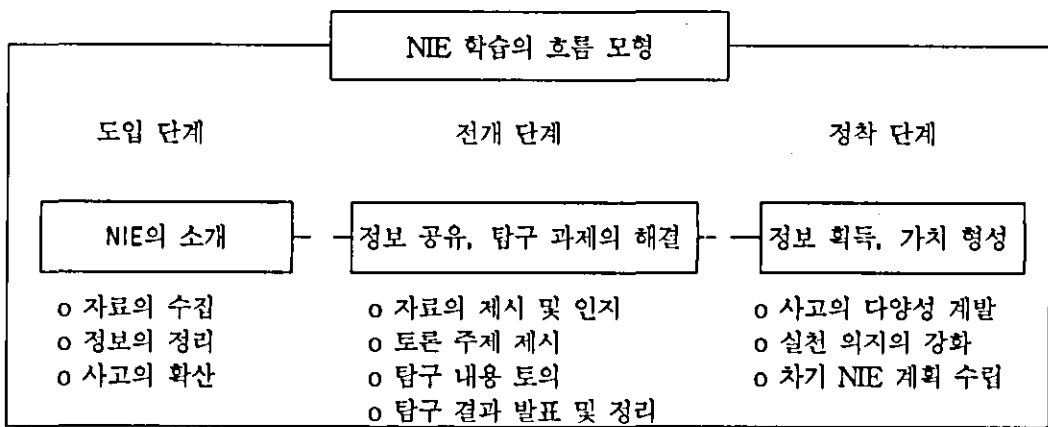
11) 판놀이(Board Games)

이것은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게임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기법이다. 학습해야 할 지식과 정보는 판 위에 그려진 각 정방형 위에 기록하거나 종이로 만든 카드에 기록하여 게임에 의해 정해진 학생이 해당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 기법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남북한 주민간에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의 다양한 학습 과제를 판의 특정한 위치에 붙여 놓고 게임에서 이 위치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한 예로, 우리 나라 민속놀이 중 윷놀이에서 윷판을 활용하여 이 게임을 하면 매우 흥미롭게 다양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2) 신문 활용하기(NIE : Newspaper In Education)

급변하고 있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남북 관계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과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사자료 활용 수업은 매우 적절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자료를 활용한 수업모형의 전개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3) 역할놀이

역할 놀이는 '다른 사람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해 보는 투사적 방법이며, 행동을 통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어떤 문제 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법이다.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가상적으로 체험하거나, 통일 후 예상되는 문제를 생각해보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4)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 논의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통일 관련 자료 공급에 있어서 일방 통행이 아닌 수요자의 선택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사이버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이버 통일교육 방법으로는 인터넷의 정보 검색 이용법, 전자 우편 이용법, 전자 게시판 이용법, 정보 사냥 대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지도서에서는 학교수업의 부분, 또는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되도록 해당제재별로 관련자료들의 인터넷주소를 밝혀 두었으며, 아울러 권말부록으로 관련사이트의 주소를 묶어 소개해두었다.

15)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 학습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참여 및 현장 견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즉, 학습자가 견학할 수 있는 활동거리를 개발하고, 답사할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예컨대, 오두산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임진각, 땅굴, 철의삼각진적지, 금강산, 군부대 등에 대한 현장 견학을 확대함으로써 분단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아가 통일 의지를 함양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단체나 민간 사회 단체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관광 코스의 하나로 개발하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있다.

현장 견학하기를 위해서는 사전에 견학할 장소와 시간, 견학 내용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하여 알아두어야 하며, 견학 후에는 반드시 소감이나 반성을 해분 수 있도록 한다.

(*보다 자세한 통일교육의 수업기법에 대해서는 통일부 발간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참고하시오. 책자는 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

5. 학교 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통일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의 유의미성 중시, 학생의 일상적 질문과 호기심의 존중, 여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환경 조성, 과제 해결시 협동의 기회 부여,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활발하고 적절한 실천기회 부여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1) 교사의 역할 제고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the quality of empowered teachers)에 달려 있다. 통일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에는 언제나 통일교육에 대하여 역량 있는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을 담당하게 될 모든 교사는 무엇보다도 통일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열의가 있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남북한 동포들 사이에 실질적인 마음의 통일 그리고 정신의 통일을 일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경제적인 '교육투자(教育投資)'라는 생각을 지닌 교사가 되어야 한다.

2) 학생의 유의미성(meaningfulness)과 호기심 존중

교사는 학생들이 통일교육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게 해 주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통일교육의 학습내용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학습 주제를 더욱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한다.

3)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 유도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친근한 소재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즘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관련 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즉, 같은 또래의 북한인민학생의 학교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의 관심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을 통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여 실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되,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대한 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통일교육에서 열린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열린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한이나 통일문제에 관련된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한다. 대신에 교사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그 과정 속에서의 다양한 대안이나 관점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심사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와 활동을 중시한다.

5)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일반적으로 학습 보조수단이란 학습을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고안된 장치나 기법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에 유용한 학습 보조수단은 무

수히 많다. 따라서 교사는 신문 기사, 사진, 그림, 서적, 도표, 삽화, 영상 자료 등과 같은 다양한 학습 보조수단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의 구성 취지를 아예 벗어나거나,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임의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의 영상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 북한의 TV 영상 자료들은 주민에 대한 계도와 선전성이 강하므로 자료의 의미를 잘못 해석할 경우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학생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영상 자료들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지도를 해야 한다.

6) 적절한 실천기회 부여

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와 통일의지의 함양과 같은 인지적·정의적 학습경험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그러한 이해와 의지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파지(把持)와 전이(轉移)를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 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실천기회(북한 동포 돕기 운동 등)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6. 지도상의 유의 사항

통일교육을 하는데 요구되는 유의점은 많이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사들 중에는 통일문제는 정치인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통일 분야가 나오면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문제는 교사들의 중요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둘째,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의 결론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성을 유지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사의 지도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특히 통일문제는 타 교과에 비해 전체국민의 의사와 정책당국자의 전문적 의견이 중요한 만큼, 교사는 자기 개인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교육과정에 의해서 가르쳐야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은 다른 기회에 의견을 제시하여 통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의 지적발달 수준에 따라 조정하여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교육과정에 있어서 통일교육은 학생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전수를 통해 이해력과 사고력, 판단력을 길러주는 인지적 목표와 함께 통일 후세대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의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는 정의적 목표가 균형있게 추구되어야 한다.

넷째, 오늘날과 같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남북한 관계의 전개 상황하에서 공식적 교육과정의 적시 개편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즉각적인 지도지침서의 제시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항상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보다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 장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3.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4.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와 협력

5. 다른 나라의 만남과 협력

1.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가. 단원의 개관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온 우리 민족의 분단 상황은 커다란 민족 역량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 분단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해야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민족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단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우리 민족 분단의 과정은 어떠했으며, 이러한 분단의 현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족 분단의 원인을 민족 내부 세력의 분열과 당시 국제적 상황 속에서 찾아보고, 민족 분단과 남북한의 갈등을 살펴보고, 민족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역사적 교훈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둘째, 민족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다루고 있다. 1972년에 이루어진 「7·4 남북 공동성명」, 19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지원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발효, 그리고 최근 2~3년 사이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남북한 교류협력 등 민족 분단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점은 학생들이 분단의 현실과 아픔을 깨닫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가지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나. 학습 목표

- (1) 남북 분단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
- (2) 이산가족의 고통을 느끼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 (3) 남북 분단의 현실 극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지도 방법 및 자료 활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 남북 분단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들을 말하도록 한다.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쉬리'와 'JSA'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학생들이 찾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리' 수족관 장면에서 어항들이 부쉬질 때 땅바닥에 나뭇구는 물고기들 - '쉬리' 두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 - 'JSA' 공동경비구역은 분단의 상징 - 'JSA' 돌아오지 않는 다리 ○ 비무장지대(DMZ)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 민족의 교류 협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신문 자료를 수집하여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교류일지 - 남북 경제교류의 현황 ○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의의를 조사하여 발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서로의 정치적 실체 인정 - 남북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 분단의 현실을 나타내는 글을 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부전에 관한 내용을 민족 분단과 그 극복 자세와 연관시켜서 독창적으로 재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활용 • 학습지① • 인터넷 활용 • 학습지② • NIE, 인터넷 활용 • 학습지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영화 속의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서 민족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http://www.korealink.co.kr/event/dmz/body4.htm • http://nk.chosun.com • http://www.tongil.orgil.net • http://nk.join.com •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단의 과정과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연대별로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워포인트 활용 	

라. 학습지

학습지①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민족 분단을 소재로 한 한국 영화 '쉬리'와 'JSA'를 보고,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표현한 장면을 찾고, 그 이유를 밝히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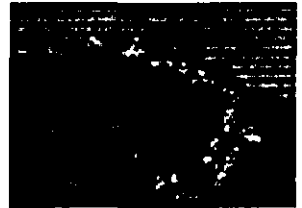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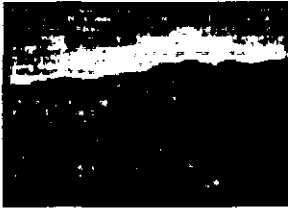
	분단을 표현한 장면	분단의 현실이라고 느끼는 이유
쉬리	예) 남북의 요원들이 총격전을 벌이는 수족관 장면	남북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쏘며 싸우는 것은 직접적인 남북 분단의 현실이다. 이와 함께, 총에 맞은 수족관이 깨어지고 그 속에 평화롭게 살던 물고기들이 바닥에 필떡이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헤메이던 우리 민족을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JSA		

학습지 ②

___학년 ___반 ___번 이름 : _____

우리 민족 분단의 현실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비무장지대이다.

<http://www.korealink.co.kr/event/dmz/body4.htm>의 사이트에 나타난 비무장지대의 사진들을 자세히 본 후 다음의 질문들에 답하시오.



1. 민족의 갈라진 허리인 철책을 본 느낌은 어떤가?

2. 내가 만약 아래의 병사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





마. 참고자료

참고자료 ① 이산가족 교류 일지

1953. 12. 11~1954. 3. 1

휴전협정 제3조 제59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실향민간귀향협조위원회'가 남북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키로 한 이후 첫 접촉

1955. 11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안위와 행방의 조사 ▲생존자에 관한 소식통보, 생존자와 가족 간의 통신 ▲원거주지로의 귀환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북측은 57년 1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 방문을 거부하고 남북적십자 회담, 편지 교환 등을 역제외.

1957. 11

북한적십자회는 대한적십자사가 문의한 7천34명중 337명의 생존자 명단을, 대한적십자회는 북측이 문의한 1만4천32명중 1만4천12명의 명단을 각각 통보.

1971. 8. 12

이산가족찾기 판문점 첫 회담

1972. 8 ~ 73. 7

1차 평양회담 시작으로 7차례 본회담 (남북적십자 회담)

1973. 8. 28

김대중 납치사건 등 이유로 북, 일방적 대화 중단

1982. 8. 12

이북5도민 중앙연합회 '이산가족의 날' 제정

1983. 2. 9

500만 이산가족 대표 4,500여명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결성·발족

1985. 5

제8차 적십자 본회담 및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예술공연단 교환합의

1985. 9. 20 ~ 23

고향방문단 등 151명 교환방문

1989. 5. 31

북, 제2차 고향방문단 등 교환제의

1990. 11

북의 혁명가극 공연 주장으로 교환 무산

1992. 5

제7차 고위급 본회담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에 합의

1993. 3. 19

미전향 장기수 이인모씨 방북 허용 및 입북

1998. 2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촉구

1998. 4. 11 ~ 17

베이징 남북당국 대표회담.

南,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및 비료지원 병행 요구

北, 비료 선지원 요구로 무산

1998. 12. 14

국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촉구 결의문' 북측에 전달

2000. 3. 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2000. 4. 8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2000. 6. 13 ~ 15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상봉문제 포함된 남북공동선언 채택

2000. 6. 30

금강산 남북적십자회담서 이산가족 방문단 동시 교환키로 합의.

2000. 8. 15 ~ 18

제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2000. 11. 30 ~ 12. 2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2001. 1. 29 ~ 31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여관)

제3차 이산가족방문 명단 교환(판문점)

2001. 2. 26 ~ 28

제3차 이산가족 교환방문

조선일보 2001. 1. 27

참고자료 ② 이산가족 문제

이산가족은 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일컫는다. 이산 1세대는 이산가족 중 1953년 7월 27일(휴전) 이전에 북한 지역에서 월남한 자와 남한 지역에서 남(월)북된 자의 당시 가족을 말하고 실향민은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출생한 남한 주민을 말한다.

통일부가 추정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수는 약 767만명 정도이다. 이 가운데 분단을 직접 경험한 이산 1세대는 123만여명이며, 60대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69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이 6만3,717명이며, 70~79세의 고령자는 20만1,131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1970년까지 가호적 신고자 5백46만3,000명을 기준으로 인구증가율을 감안한 추정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이산가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다.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의 역사는 1971년 8월 12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1천만 이산가족 찾기' 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적십자사 손성필 위원장은 이를 후 이같은 제의를 수락, 72년 8월 29일 서울에서 1차 회담이 열렸다. 거듭된 회담 끝에 85년 5월 열린 제8차 본회담에서 같은 해 8월 15일 이산가족 상호 방문에 합의, 9월 20일 각각 1백51명으로 구성된 남북한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했다.

남한의 고향방문단 31명은 북한에 있는 가족 41명과, 북한대표단 30명은 남한 가족 51명과 분단 후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지학순 카톨릭주교와 누이동생의 상봉 장면은 전국을 눈물 바다로 만들었다. 난항을 거듭하던 남북 적십자회담은 결국 85년 12월 10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중단된다.

1988년 출범한 노태우 정부는 두번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성사 막판에 번번이 북측의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무산됐다. 89년 11월 제6차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에선 양측이 각각 571명 규모의 제2차 고향방문단을 교환기로 합의했으나 90년 북한이 돌연 '혁명가극' 공연을 들고 나오면서 무산됐다.

또 92년 5월 7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교환에 합의했으나 실무접촉 과정에서 북측이 이인모씨 송환, 핵사찰 문제 거론 중지 등을 들고 나오면서 물거품이 됐다. 이후 문민정부는 이인모씨를 1993년 3월 조건없이 송환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98년 취임사에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과 공식적인 이산가족 상봉 창구가 열릴 것에 대비,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14만 5,000여명의 인적 사항과 재북가족 사항, 헤어진 사연 등을 수록해두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또 실향민이 북쪽 가족을 찾아 나설 경우 생사확인작업에 대해서는 80만원, 상봉 때는 180만원의 교류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 경제력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자, 국군포로 가족에 대해서는 교류경비의 2배를 지원한다. 최근에는 이산가족의 북한주민 접촉승인 기간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신고만하면 방북이 가능토록 했다.

조선일보 2001. 1. 27.

참고자료 ③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장 체제(제도) 인정·존중 (1조 - 4조)
- 제2장 내부분쟁 불간섭 (5조 - 7조)
- 제3장 비방·중상 중지 (8조 - 14조)
- 제4장 파괴·전복 행위 금지 (15조 - 17조)
- 제5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18조 - 20조)
- 제6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21조 - 24조)
- 제7장 이행기구 (25조 - 26조)
- 제8장 수정 및 발효 (27조 - 28조)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장 무력불사용 (1조 - 3조)
-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4조 - 8조)
-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9조 - 11조)
-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12조 - 15조)
- 제5장 협의·이행기구 (16조 - 17조)
- 제6장 수정 및 발효 (18조 - 19조)

‘제3장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제1장 경제교류·협력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1조 13개항, 2조 2개항, 3조 8개항, 4조 5개항, 5조 2개항, 6조, 7조, 8조)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

(9조 4개항, 10조 8개항, 11조 2개항, 12조, 13조, 14조)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15조 5개항, 16조, 17조, 18조)

제4장 수정·발효 (19조, 20조)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인식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정무원 총리 연형묵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아래의 부분 참조>

<http://www.unikorea.go.kr/kor/data/agree/agreement.php>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가. 단원의 개관

우리 정부는 분단 이후 북한당국을 상대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대화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남북대화는 1970년대 초의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체육·국회·고위급 회담 등 비정치 회담에서 정치 회담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축적 위에 실현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민족사의 새로운 흐름을 잡아가고 있다. 2000년 6월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은 대결관계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의 관계로 진입하게 만든 계기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제재의 목표는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의를 알게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통일의 염원을 갖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첫째, 적대와 갈등 구도 속에서도 협상의 노력이 이어져 온 남북관계사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루하지 않게 간략하게 정리해주며, 둘째,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를 평화공존으로 이

행사키는 전환기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이해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도록 한다.

단, 이러한 제재는 정치적 해석에 중립성을 유지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만큼, 교사는 학교통일교육의 중요한 지도원칙의 하나가 바로 ‘협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이라는 점을 염두하고, 학생들에게 논의의 결론이나 해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시도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

나. 학습목표

- 분단 후 지금까지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알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있다.

다. 교수-학습지도안(*수업모형: 집단탐구모형)

- *학습자료 - 교사: 관련비디오 또는 사진 자료, 토의 학습지, 프로젝션TV, 인터넷.
학생: 모둠별 주제와 관련된 시사자료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동기 유발 탐구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유발: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진 자료를 보고 내용과 느낌 이야기하기. * 관련동영상은 방송매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예: www.news.kbs.co.kr⇒VOD 자료실⇒남북정상회담을 클릭하면 다양한 장면을 활용할 수 있음) ◎ 관련자료를 보고 통일의 당위성 이야기하기 *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흥미있는 자료는 통일교육원의 통일꿈나무 사이트(www.uniodu.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음. ◎ 학습문제 확인하기 :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의 해당페이지를 읽고 학습문제를 확인 하기. · 남북정상회담까지의 통일을 위한 노력 알기 ·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디오 자료 또는 사진 자료는 간략하고 감동적이면서도, 특정한품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한다. * 관련동영상 및 사진 자료는 동아일보 통일네트(www.tongilnet.net) 등의 사이트에서 구할 있으니 참고 바람. 해당 사이트 주소는 권말 부록 참조
전개	탐구주제 설정 탐구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6모둠 정도)로 통일을 위한 노력과 남북 정상회담이 주는 의미와 관련된 주제 선정하기 ·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통일을 위한 노력 · 남북정상회담의 전개 과정 ·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의미 · 남북정상회담 후 달라진 점-이산가족 문제 등. ◎ 문제를 탐구할 계획 세우기 · 분야별로 각자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 ·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함 · 의논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 전체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함 ◎ 탐구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탐구주제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한다. * 관련된 학습자료는 미리 차시예고를 통해 해오도록 한다. * 학습자료의 학습지 활용가능.
정리	발표 및 논의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기. ◎ 발표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토의하기. ·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통일을 위해 남한과 북한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가. · 남북정상회담이 전개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가로막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보자. · 남북정상회담이 지금까지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단란 단점은 무엇인가 · 남북정상회담 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발표내용 평가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화상기, 프로젝션TV * 학습지

<학습지 2>

토의 학습지

학년 반 이름 ()

토의주제:					
사회자		발표자		기록자	
토의 및 발표 내용					
토의결과					
우리가 해야 할 일					

3.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가.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결과 불신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킬 토대를 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고, 세계평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잘못된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통일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또한 북한이 화해와 개방을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가시화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나. 남북공동선언의 내용과 특징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공동선언('6·15 공동선언')은 남북 최고지도자들이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합의하고 서명한 최초의 문서로서, 남북관계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공동선언 제1, 2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명기하고 있다. 제1항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제2항은 통일의 초기 경로에 대한 인식의 공통성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 제3, 4항은 이산가족 재회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등 제반 교류협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 제5항에서는 이상의 합의내용들을 이행하기 위한 당국간 대화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선언의 실천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명기하고 있다. 그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15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이러한 남북공동선언의 내용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남북 정상의 공통인식 아래 새로운 합의의 양산보다는 실천가능한 내용들을 명기하였다.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였다.
- 남북 정상은 사상 처음으로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였다.
- 대북포용정책의 당면과제들이 대부분 실천사항으로 명기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역대 합의서와 비교함으로써 더욱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아래에 비교표를 제시한다.

<역대합의서와 6·15 남북공동선언의 비교>

구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기본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자주통일원칙, 통일방안의 공통성인정, 인도주의적 문제해결, 교류·협력 활성화
특징	통일 원칙천명	이행조치 내용 명문화	합의내용 실천
실천방안	남북조절위 설치	분과위, 공동위 설치	당국간 대화
서명주체	이후락 특사 김영주 특사	정원식 총리 연형묵 총리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국방위원장

<쉬어가는 코너>

북의 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로써 통일로 나아갑시다.
남의 시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일로써 새로운 시를 씁시다.

고은·오영재의 남북 합작시 「만나고 싶습니다」중에서
(*출처: 통일교육원, 「새 천년, 통일문제 새로 보기」, 2000에서 재인용)

다. 학습자료

<학습지 1>

남북 정상 회담 이색 제안 '만발'

학년 반 이름()

중앙일보 2000/5/21

'휴전선 칠조망을 전세계에 예약 판매하자', '정상 회담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 '남북한 정상이 서로 백두산과 제주도에서 휴가를 갖게 하자', '남북한 학생들이 모여 도미노를 쌓자.....'

내달 12일 평양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국민들이 내놓은 아이디어 중의 일부다.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홈페이지(www.cwd.go.kr)에 <정상 회담에 바란다>는 코너를 개설하고 게시판과 E-메일을 통해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한 국민 제안을 수렴한 결과, 모두 1백70여 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고교생 김주선(19)군은 지난 89년 동-서독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 개방 당시 전세계 인들 사이에 베를린장벽 조각이 인기를 끌었던 데서 착안한 듯, 휴전선 칠조망을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예약 판매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세계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통일 비용도 조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김군의 주장이다.

주부 강미순(33)씨는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정상 회담 경비에 사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또 정상 회담 좌석을 마주보지 않고 기자로 비스듬히 놓아 기(氣)를 서로 분산시켜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없게 하자는 풍수학적 주장(김미숙, 33. 주부)도 나왔다.

회사원 이기종(35)씨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수행원이 모두 한복 차림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에게도 한복을 선물함으로써 남북한이 '한뿌리'임을 상기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밖에 북한주민을 상대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민족 통일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강 하구를 남북 공용 수역으로 지정, 남북 민간인 선박의 항해를 허용하는 등 정책적 제안도 상당수 나왔다.

1. 남북 정상 회담이란?
2. 언제 열렸나요?
3. 남북 정상 회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4. 여러분이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다면 어떤 의견을 북한에 제시했겠습니까?

4.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변화와 협력

가. 학습개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과거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성사되고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이 활성화되는 한편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첫 실천 조치는 이산가족 상봉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언론사 사장단의 북한방문, 남북한 교향악단 합동연주회, 시드니 올림픽 공동입장 등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회담 후 변화를 실감케 하는 상징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로는 남북이 경의선 복원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은 곧 남북의 공멸을 의미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고, 경의선 복원은 그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전쟁의 무모함과 평화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표상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제재는 남북 교류·협력이 남북한의 상호의존을 증가시키고 이질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경제·사회문화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데 그 목표가 있다.

나. 학습목표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교류에 대해 알 수 있다.
-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남북교류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 개별학습+인터넷활용수업)

- 학습 자료 - 교사 : 실물화상과, 인터넷 활용 가능한 교실, 프린터기, 학습지
아동 : 풀, 가위, 싸인펜 등.

1.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p>동기 유발</p> <p>학습 문제 확인</p>	<p>◎동기유발: 경의선 철도(서울-신의주간 철도)의 기차 그림을 보고 내용과 느낌을 이야기 해봅시다.</p> <p>◎학습문제 확인: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10-15쪽을 읽고 학습문제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교류 현황. ·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통한 남북교류의 중요성 알기. 	<p>*경의선 기차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sri.re.kr에서 구할 수 있음.</p>
전개	<p>탐구 주제 제시</p> <p>학습 방법 안내</p> <p>탐구 활동하기</p>	<p>◎탐구주제 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당국자 회담의 현황 · 이산가족 상봉의 현황 ·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현황 · 기타 남북한 교류 현황 · 다른 나라의 사례와 남북교류의 중요성 등. <p>◎학습방법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또는 2인 1조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자리를 배치한다. -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되,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유도한다. -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조사한 자료는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하되, 사진자료 등은 출력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p>◎탐구의 실행</p>	<p>*개별적인 인터넷 활용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미리 과제를 부여하여 자료탐색을 조사해 오도록 한다.</p> <p>*학습자료의 <학습지> 활용가능.</p> <p>*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도서의 뒷부분에 제시되어 있음</p> <p>*아동들의 학습정리는 인터넷에서 탐색한 자료의 어려운 용어를 무조건 배끼거나 그대로 출력하여 이용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한 용어로 재구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p>
정리	<p>탐구 결과 발표하기</p> <p>학습 결과 평가하기</p>	<p>◎학습결과 발표 및 부족한 내용 보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과에 대해 발표하기: 신문화상기 등을 이용하여 주제별로 1-2명 정도씩 결과를 발표한다. - 발표내용 토의하기 <p>◎ 학습결과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과를 간단히 정리해 주거나, 학습과정에 대해 진반적 평가로 마무리한다. · 학습목표를 만족시켰는가. 부족한 내용은 없는가 · 과정상 문제는 없는가. 선택한 과제를 충실히 학습했는가. 남의 발표를 잘 듣고 이해했는가 등을 점검 	<p>*교사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발문 등을 통하여 정리해 주도록 한다.</p> <p>*아동들의 개별학습지를 전시하면 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p>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통일 시조 짓기

학년 반 이름 ()

*아래의시조를감상하고,통일을위한시조를지어봅시다.

<p style="text-align: center;">시조 감상</p>	<p>☆ 경의선 코스모스 형제의 아우성을 가득히 꿰어지고 아득히 먼 옛날 코스모스 피던 길을 칠마는 달리고 싶다 철의 장벽 뚫고서.</p> <p>☆ 급식 시간 흰쌀밥에 소고기무국 튀튀김에 나물반찬 먹기 싫은 나물반찬 눈치보며 버렸는데 북한엔 식량이 없어 친구들이 굶는대요.</p> <p>내 밥을 반만 덜어 북으로 보내는 일 통일이 되고 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나 혼자 끄꽁 속을 앓고 있구나.</p>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통일 시조</p>	

<학습지 2>

남북교류와 그 의의

학년 반 이름 ()

*자신이 선택한 학습주제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학습주제	
조사내용	
느낀 점	

* 친구들의 발표를 듣고 다음 질문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 남북이 교류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어떤 교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남북교류는 꼭 해야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습지 3>

한마음으로 달려요

학년 반 이름 ()

◎ 경의선 복원은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남북 24km의 끊어진 철도를 다시 잇는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습니다.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을 육로로 직접 밟아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의의를 갖는 것입니다. 경의선 지도를 만들어 봅시다. 경의선의 시작과 끝을 찾아 연결해 봅시다. '철의 실크로드'라고도 불리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Trans-Siberian Railway : TSR)를 경의선과 연결하여 봅시다. 그리고 다른 색을 사용하여 여러분들이 가고싶은 곳까지 경의선을 확장시켜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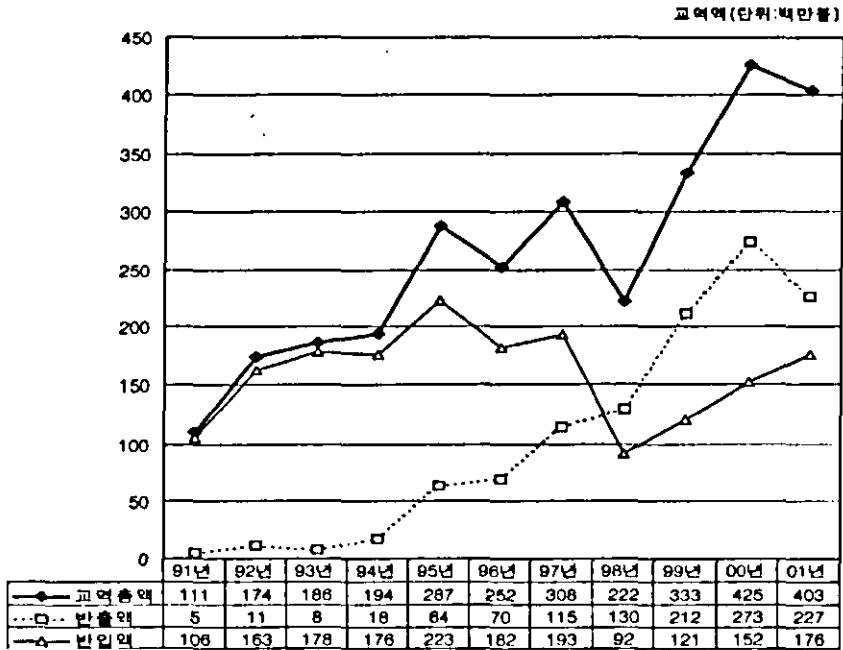
5. 다른 나라의 만남과 협력

가. 남북 교류·협력의 의의

우리가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각각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서로에게 이익을 보장하면서 실질적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남과 북은 점차 교류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상대방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체를 복원하고 상호 공존을 거쳐 통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제도화를 통하여 분단이후 심화된 적대의식과 이질성을 해소하며 동질성을 강화하는 과정을 연습함으로써 남북간 사회통합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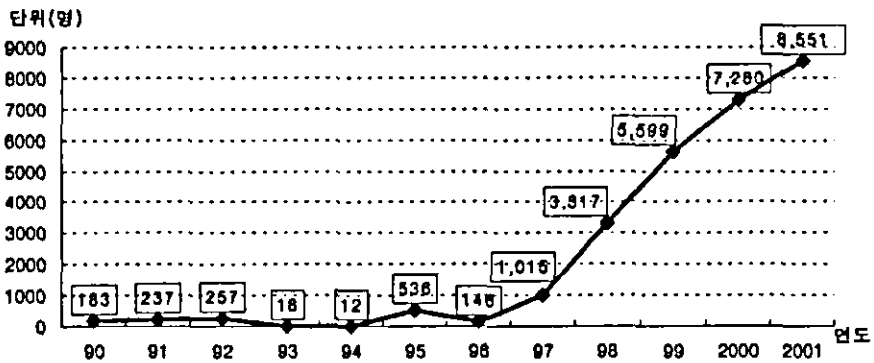
남북한의 경제구조는 상호보완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며, 북한은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회생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한은 육로를 통해 대륙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로써 남북한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나. 연도별 남북 교역현황



※ 출처 :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동향」 통일부

다.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추이



※ 출처 : 앞의 자료

라. 분단국의 사례와 교훈

(1) 독일의 경우

<독일과 우리>

1989년, 40여년 독일분단을 상징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독일의 통일은 우리의 분단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은 2차 대전 패전 후 미국, 소련(러시아) 등 전승국에 의해 분할되었다. 때문에 독일인들은 민족갈등 보다는 같은 아픔을 가졌다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치룬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분단은 단순한 정치적, 영토적 분단뿐 아니라 민족적 분단이라는 의미가 크다. 우리의 상황은 독일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독일과 우리의 통일국가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분단이전의 근대적 민족국가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 통일은 새로운 민족국가를 창조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경험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통일의 교훈>

우선 통일문제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기적같이 다가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십년 간의 일관된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통일 당시 이미 '사실상의 통일'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서독은 평화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며 동서독간의 교류 및 방문을 추진하는 등 차근차근 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왔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독일 통일은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 당시 서독은 주변국들에게 독일 통일이 유럽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꾸준히 설득하였다. 이러한 서독 통일외교의 밑바탕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주변국의 이해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 그리고 주변국에 한국 통일의 당위성과 유용성을 설득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은 그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을 이룬지 10년여가 흐른 지금 독일은 아직도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우리가 통일에 앞서 화해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런 통일 후의 몸살을 줄여보자는 것이다.

● 중국의 통일문제

<중국과 대만의 관계 변천>

중국은 1949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 후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이 대만으로 옮겨 가면서 분단국가가 되었다. 1971년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대만)을 대신하여 유엔에 대표권을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절대적인 외교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971년 이후 중국의 통일정책은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통한 흡수통일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말하는 일국양제는 홍콩·대만·마카오가 중국의 일부인 특별행정구로서 장기간 자본주의 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국제적으로 중국만이 전 중국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제 건설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일국양제를 통한 대만과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3통(통신·통항·통상)정책을 통하여 대만의 중국투자와 교역에 특혜를 부여하는 등 교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불사용의 천명을 유보하면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추구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를 요구하는 한편, 1991년 중국과의 교류를 증대하고 이를 통해 민주·자유·균부의 통일중국을 건설한다는 국가 통일강령을 확정된 바

있다. 대만의 입장은 중국의 흡수통일 전략이 대만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의 민간교류를 간접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중국과 대만간 정치적 갈등의 쟁점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이 요구하고 있는 대만의 실체 및 국제적 활동 인정이라는 입장의 상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간 교류·협력과 의의>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및 사회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양안간의 경제·사회적 교류의 증가는 ① 상호 적대감의 약화, ② 체제간 갈등의 순화, ③ 경제적 보완성과 상호의존의 확대, ④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논리의 희석 등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간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상존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양측이 통일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북한의 철도노선

북한의 주요 철도노선망은 서해안지대를 잇는 경의선(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 동해안을 따라 부설된 원라선(원산-홍남-청진-나진), 동서를 횡단하는 평원선(평양-원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북부내륙을 순환하는 북부순환선계와 황해남북도를 순환하는 서부순환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철도노선은 5개의 대(對)중국 노선과 1개의 대 러시아 노선 등 6개 노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현재는 신의주-단동(중국), 남양-도문(중국), 두만강역-햇산(러시아) 등 3개 연결노선만 운행하고 있다.

대 중국철도 노선은 평양-신의주-단동-북경 구간(연장 1347km)의 여객노선을 주 4회 운행하고 있다. 한편, 청진-남양-도문-연길로 연결되는 노선은 주로 청진항을 이용하는 중국의 중계화물을 수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대 러시아 철도노선은 1963년 이후 두만강역-햇산구간을 부설하여 시베리아철도(Trans-Siberian Railway : TSR)

와 연결하고 있으나, 북한과 러시아의 철도궤폭의 차이로 두만강역과 핫산역에 환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974년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의 증계화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두만강역-나진 사이의 50km구간에 혼합선이 건설되었으며, 1989년에는 혼합선 구간이 청진까지 연장되어 운행되고 있다. 북한·러시아 간 여객노선은 신의주역을 거쳐 중국 단둥, 바이칼-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연장 8666km)까지 주1회 운행되고 있으며, 평양-두만강역-핫산-하바로프스크-시베리아 횡단철도-바이칼-모스크바 노선(연장 1만214km)은 주2회 운행되고 있다.

해방 이후 신설된 주요 철도노선으로는 북부내륙동서횡단철도(강계-운봉-혜산-무산)로, 이 노선은 북부내륙지방의 지원수송과 군사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의 평원선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2차 7개년계획기간중(1978~1984년)평산-세포간 163km를 잇는 제2의 동서횡단철도로를 신설하였다. 한편 6·25전쟁 이후 환용도가 낮아진 동해북부선과 금강산선은 철거되어 지금은 철도연결이 없는 상태이다.

(*출처: 중앙일보 2001. 01. 03)

제 Ⅲ 장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1. 북한의 경제와 산업
2.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생활
3. 북한 사람들의 직장생활
4. 북한 사람들의 가정생활
5. 북한 사람들의 여가생활
6. 북한 사람들의 언어생활
7. 북한의 명절
8. 북한의 교통수단
9.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10.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활동
11.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생활

II. 북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1. 북한의 경제와 산업

가. 학습개요

남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 북한에 비해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해오면서, 한편으로는 물질적 안정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의 격차와 같은 문제가 심화되어 온 반면,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내부경제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이 경제난은 사실상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마비시켰으며,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좌절시켰다. 현재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세계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점차 개방쪽으로 정책전환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국가 공급 체계의 공급부족이 심화되면서 주민생활도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북한의 식량사정은 좀처럼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급사정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수혜까지 겹쳐서 배급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태이다.

이 제재는 북한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가 지닌 본질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특히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실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하며, 북한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과 그 한계를 아는 데 중점이 있다.

그러나 지도상 주의할 점은 과거와 같은 적대감 고취도 문제였지만, 북한 어린이들을 불쌍한 동정의 대상에 국한되게 바라보는 것도 통일 후 민족 재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의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다.

나. 학습목표

- 북한의 경제와 산업의 어려운 상황과 그 원인을 안다.
- 어려운 북한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수업모형: 직소우 학습)

• 학습자료

교사: 북한의 경제상황에 대한 간단한 비디오 또는 사진자료, 학습지, 인터넷

학생: 학습주제별 조사자료, 가위, 풀, 색연필 등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학습 단계	지도 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북한의 경제 상황 알기	◎학습동기유발: 북한의 경제와 관련된 비디오 자료나 사진 자료를 보고 느낌 이야기하기 ◎학습문제 확인: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 쪽을 보고 학습문제 파악하기 · 북한경제의 특징과 현 상황 · 북한경제난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북한의 경제에 대해 즐거움과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전개	탐구 주제 정하기 각 주제별 조사 활동하기 전문가 학습 활동하기	◎ 탐구주제 정하기 -북한경제체제의 특징 -북한경제의 어려움 -북한의 에너지 공급과 그 문제 -북한의 식량생산과 식량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남한이 도울 수 있는 방법 ◎학습방법안내 -6명 정도를 한 모둠으로 하여 6개 모둠으로 나눈다. -모집단 내에서 각 주제별로 전문가 정하기. -전문가 모둠으로 이동하여 주제 탐구하기.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가르쳐주고 배우기 ◎ 탐구의 유의점 안내 -목소리 조절하기 -자기가 맡은 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 -정리 정돈 잘하기 ◎ 모둠별 학습하기(전문가 학습) ◎모집단으로 돌아가 학습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기	*사전에 학습안내를 통해 자료를 조사해오도록 한다.
정리	학습 내용 정리 학습 결과 평가	◎학습결과 발표, 부족한 학습내용 보충하기 -학습결과에 대해 발표하기 : 6개 모둠의 학습을 정리하여 마인드 맵,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게 한다. -정리학습지 해결하기 ◎학습결과 평가하기 및 차시예고	(*학습지는 학습자료 참고)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학습 활동 정리

학년 반 이름 ()

학습 주제		
전문가 활동	주제	
	학습내용	
조별활동	학습 내용 정리	
새로 알게 된 점		

<학습지 2>

학년 반 이름 ()

◎ 아래 글을 읽고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꽃제비 철이의 이야기 -

무산이 고향인 철이는, 식량난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95년 돌 사태로 집이 무너져 꽃제비 생활을 시작했다. 집이 무너지자 철이네 가족은 모두 뿔뿔히 흩어졌다. 어머니가 여기저기 홀로 떠돌아다니다가 지난 97년 세상을 뜨자, 철이는 고향을 떠나 전국 각지를 떠돌다가, 중국으로 넘어왔다. 북한 전역을 떠돌아다녀도,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마침내 두만강을 건너온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대가로 겨우 허기를 면할 수 있게 되자(하루 한두 끼를 해결하는 정도였지만) 배고픔보다 더한 고통이 닥쳐왔다. 중국 공안의 감시를 24시간 피해 다녀야 하는 피말리는 긴장과 공포가 눈앞에 닥쳐온 것이다. 처음 보았을 때, 어디 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사방을 견지하던 그 불안한 눈빛의 정체를 그쳐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 장마당은 어디 어디 가 보았니?”라는 물음에 철이는 그의 영웅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14살 아이의 행적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철이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꽃제비 생활을 하였다. 철이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채한 듯 갑갑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철이는 단 한 순간도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보통의 아이들이 간직하고 살아가는 가족과의 포근한 여행의 추억을 이 아이는 평생토록 간직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미치자,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난 마지막으로 “소원이 뭐야?”라고 물었다. 꽃제비 생활을 얘기하면서도 어머니의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철이는 길게 한숨을 몰아 쉰 후, 울먹이며 말했다. “내 소원은 소주 한 병, 흰 쌀밥 한 공기, 반찬 세 가지 가지고 올 오마니 제삿날에 산소에 가는 거라요”

8월 11일이 어머니 제삿날이라 했다. 그날은 그 동안 흩어져있던 동생도 누나도 볼 수 있는 날이라 했다. 꽃제비가 되어 온 친지를 헤매며 다니다가도, 어머니 제삿날에는 어김없이 고향인 무산을 찾았는데, 올해는 갈 수 없을 것만 같다고 했다. 며칠 전 앵벌이로 번 100원을 중국 아이에게 빼앗겼기 때문이라 한다. 그 돈을 얻었을 때만해도, 동생과 누나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동생에게는 형이 돈 벌어서 8월 9일에 간다고 약속했는데... 장마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소주 한 병 흰쌀밥, 반찬 세 가지... 그리고 동생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14살 꽃제비 아이에게 주체넘은 욕심일까?...

(*꽃제비: 소련사람들이 유랑자, 혹은 유랑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켜 말하는 ‘꼬체브니크’, ‘꼬제보이’, ‘꼬제비에’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느낀 점

(*이야기출처: 최혜경(남북어린이어깨동무 간사/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에서 재인용 요약)

마. 참고자료

①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인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기초 생필품 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기초 생필품의 무상 및 엮가 배급은 북한 당국에서 볼 때 주민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절대적 수단이었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기초 생필품을 무상 또는 엮가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어서 공적인 영역에서 일단 자율적으로 국가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주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차별적인 계층별 물자의 배급체계는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었던 ‘노멘클라투라’라고 불리는 특권층의 전횡을 가져오고 일반주민들과 사회적 갈등요소를 발생시켰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와 가중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은 위로부터 주민통제와 아래로부터 순응의 주요 기제였던 배급체계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일부 마비시키기까지 함으로써 일반주민들의 사회주의적 경제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져왔다. 집단주의적 소유원칙과 집단주의적 생산·소비원칙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적 경제행위가 증가하고 비공식적인 사적 경제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서도 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2차 경제’ (the second economy)가 부차적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텃밭·부업 밭의 경작이나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끼리 소규모 서비스 및 수리행위를 하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서로 물물교환 형태로 바꿔 쓰는 것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실제로 북한은 공식적으로 1개 군 및 대도시마다 10일에 한 번씩 ‘농민시장’이라 하여 협동농장에서 생산한 잉여생산물의 거래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민장이 상설화되어 매일 열리며 평양과 같은 대도시나 나진·선봉 경제특구에서는 78%의 수수료를 내면 ‘가내방’ (가내작업반 가판대)이라고 하는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고 개인이 소토지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협동농장 분조농산물의 자유판매도 묵인한다는 것이다.

본래 장마당에서는 채소나 가내수공업품으로 만든 생필품만이 거래되도록 하고 쌀

이나 곡물거래를 불법으로 하였던 것을 1993년부터 공식적으로 허용하다가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1999년에 다시 통제했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한다. 또 중국과 교역은 국가기관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하면서도 접경지역 농민들이 물물교환 형태로 중국인과 거래하는 것을 묵인하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배급체계의 마비로 인해 북한 당국도 개인거래 및 2차 경제영역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현재 북한은 그야말로 ‘전 주민의 상인화’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민들이 생존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배급의 마비로 기초 생필품들을 물물교환이나 개별 거래를 통해 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장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따리장사를 나서는 사람들 이외에 직장 다니는 틈틈이 장사를 나서는 사람이 태반인데,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당간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주민들의 이러한 경제생활행태 변화는 결국 암시장의 규모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전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은 80%가, 옥수수·쌀 등 식량은 60%가 이 곳에서 거래될 정도라 한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물자들의 가격은 대부분 국정가격의 몇 십배에 이르고 있는데, 1997년도까지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 현상을 보여오다가 최근에서는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비교된 주요 물품의 농민시장 가격 비교표는 다음과 같다.

<최근 농민시장에서의 주요 품목 가격>

분류	품목	단위	1998가격	1999가격	2000가격
곡물류	쌀	kg	77	64	47
	장냉이알	kg	40	33	27
	밀가루	kg	61	45	43
육어류	돼지고기	kg	181	160	130
	계란	개	16	13	12
	말린 명태	마리	27	34	39
채소 및 과일류	배추	포기	9	20	8
	미역	kg	31	31	67
	사과	개	23	33	23
조미료	소금	kg	36	32	19
	된장	kg	38	31	50
	고추가루	kg	199	290	274
간식 및 기호품	빵	개	19	15	12
	꿀	500g	198	288	279
	맥주	병	78	68	53
기타 생필품	페니실린	병	21	47	25
	세수비누	개	92	66	64
	서츠	벌	400	472	614

쌀의 국정가격이 8전이고 달걀은 17전, 세숫비누는 17전이지만, 위의 표를 보면 시장가격은 그 몇 십 배이며 평균 80~100원 내외인 일반 노동자의 한달 임금으로 장마당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임금만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통일부는 1998년 결과를 토대로 조사 북한의 4인 가족이 필요한 한달 최저생계비는 2,0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주민들이 공식부문의 경제생활보다 비공식부문의 경제생활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북한주민들 사이에 '장사 바람' 이 불어 외화벌이 장사꾼, 밀무역 장사꾼, 되거래 장사꾼 등과 같은 본

격적인 장사꾼 이외에 각 지역이나 공장에서 남는 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8·3장사꾼이나 집안의 소소한 물건을 내다 팔면서 하루하루 생계를 꾸리는 장사꾼 등이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북한과 같이 물자가 부족한 사회에서는 비화폐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화폐는 교환가치가 없고 재화가 화폐 역할을 하게 된다. 한동안 북한에서는 ‘강냉이는 국제 화폐’ 라고 할 정도로 강냉이가 물품화폐의 역할을 했다. 암시장규모의 이와 같은 확장은 결국 주민들의 경제행위가 집단주의보다 사적 동기에 의해 영위되도록 하고 경제주체로서 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은 계획경제를 대체하기 보다 배급기구의 마비에 따른 주민들의 자구책 수준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시장경제의 등장으로 보기는 이른 것 같다. 물론 배급체계를 위협하는 암시장의 성장은 북한당국에 대해 경제체제의 변화를 촉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북한당국은 선진 매체물을 통하여 ‘자본주의사상 침투반대투쟁’ 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식적이며 규범적인 구호와는 달리 주민들의 경제행위와 경제의식 변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사상교육으로 어느 정도 규제할 것인가 하는 점이 북한당국의 고민이라 하겠다.

(*출처: 통일교육원, 『2001 북한이해』)

② 북한의 경제관련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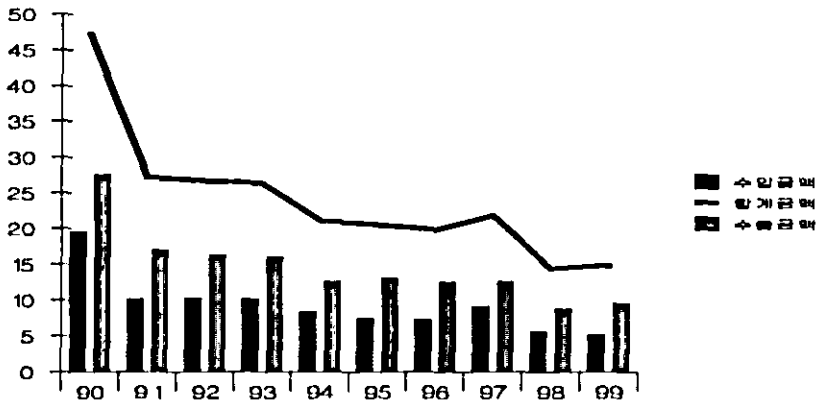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남북한의 국민총소득(GNI) 추이>

(단위: 억 달러, 달러, %)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명목 GNI										
북한(A)	229	211	205	212	223	214	177	126	158	168
남한(B)	2,949	3,143	3,452	4,017	4,881	5,183	4,740	3,168	4,021	4,552
(B)/(A)	12.9	14.9	16.8	18.9	21.9	24.2	26.8	25.1	25.5	27.1
1인당 GNI										
북한(A)	1,115	1,013	969	992	1,034	989	811	573	714	757
남한(B)	6,810	7,183	7,811	8,998	10,823	11,380	10,307	6,742	8,581	9,628
(B)/(A)	6.1	7.1	8.1	9.1	10.5	11.5	12.7	11.9	12.0	12.7
경제성장률										
북한	-3.5	-6.0	-4.2	-2.1	-4.1	-3.6	-6.3	-1.1	6.2	8.8
남한	9.2	5.4	5.5	8.3	8.9	6.8	5.0	-6.7	10.7	1.3

※ 출처: 한국은행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무역규모>



※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0.

<연도별 북한식량 부족량 및 외부도입량>

(단위 : 만톤)

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수요량	576	569	576	580	578	583	541	551	518
생산량	443	427	388	413	345	369	349	389	422
부족량	133	142	188	167	233	214	192	162	96
도입량	83	109	49	96	105	163	104	107	
절대부 족량	50	33	139	71	128	51	88	55	-

※ 주 : 1) 생산량은 전년도 수치, 2) 도입량은 자체 수입량 및 외부지원량

<북한의 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만톤, %)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석탄	3,508 6.3	3,315 -23.4	3,100 -6.4	2,920 -5.8	2,710 -7.2	2,540 -6.3	2,370 -6.7	2,100 -11.4	2,060 -1.9	1,860 -9.7	2,100 12.9
원유도입	-	252 -	189 -25.0	152 -19.5	136 -10.5	91 -33.0	110 20.8	94 -14.6	50.6 -46.2	50 -1.2	31.7 -36.6
발전량	294 4.2	277 4.2	263 -5.0	247 -6.1	221 -10.5	231 4.5	230 -0.4	213 -7.4	193 -9.4	170 -11.9	185.7 9.2

※ 자료: 통일부, 한국은행.

③ '꽃제비'의 의미

북한에는 지난 몇 년간 심각한 식량난의 여파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배회하는 이른바 '꽃제비'라는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각지에는 가출하여 장마당과 역전, 다리밑 등에서 기거하며 먹을 것을 찾는 꽃제비들이 무려 20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꽃제비들이 처음 등장한 것은 식량난이 심화되었던 지난 90년대 중반

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오래전인 1945년 광복 직후부터 생겨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북한에서 '꽃제비'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전후사정을 밝힌 장편 소설이 출간됨으로써 뒷받침되고 있다. 장편소설 '열병광장'이 바로 그 작품인데 이 소설은 지난 70년대초부터 발표된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를 다룬 총서 「불멸의 력사」 시리즈의 하나로 지난 3월 중순 나왔다.

「415문학창작단」 소속의 작가 정기종이 쓴 이 소설은 광복 직후 김 주석이 최현, 김책, 김일, 안길, 강건, 오진우 등 그의 측근인물들과 함께 '정규 혁명무력'의 결성과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을 기둥 줄거리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주인공 한종삼이 광복 직후 그의 약혼녀를 잡아간 서울에서 파견된 첩자 암파라는 곡마단(서커스단) 단원을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꽃제비라는 말을 여러차례 등장시키고 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 '한종삼은 벌써 해주바닷을 사흘째 헤매고 있었다. 녀마같은 옷차림에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던 헐어 빠진 맥고모를 얻어 쓰고창이 떨어져 너덜거리는 지하족을 발에 꿰고 있는 그를 보고 조무래기들이 쫓아 다니면서 '야, 꽃제비대!'하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꽃제비를 못 봤수?' '곡마단 꽃제비가 오지 않았수?... ' 등의 대목에서 보듯이 광복 직후 꽃제비의 행색을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작가는 이 소설에서 꽃제비의 어원이 소련 말에서 변형된 것임을 소개하기도 했다. 작가는 꽃제비라는 말의 뉘앙스에 대해 '꽃제비라는 전혀 가당치 않은 서정적이고 앙증스러운 이름으로 소리쳐 부르는 것이야 말로 얼마나 천진한 야유했으랴'라고 소설속에서 묘사했다. 또한 꽃제비의 어원과 관련한 대목에서는 '사실 그 애녀석들은 소련사람들이 유랑자, 혹은 유랑자들이 거처하는 곳을 가리켜 말하는 '꼬체브니크', '꼬체보이', '꼬체비에'라는 말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옮긴 것인데 한종삼은 그러건 말건 종일 정치없이'라며 줄거리를 이어갔다. 작가는 북한에서 꽃제비라는 말이 가난과 굶주림의 세월이 지속되었던 광복을 전후한 어려운 시기에 소련말을 빌려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출처: '북한소설에 등장한 꽃제비', 중앙일보, 2001. 09. 27)

2.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생활

가. 학습개요

남한의 경우 의식주는 전반적으로 서구화 되었으며, 특히 의복의 경우는 유행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의식주 생활은 앞서 북한의 경제와 관련해서 알아봤듯이 철저한 계획경제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성이 결여되었으며, 공급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제제는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삶을 사실 그대로 이해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 즉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봄으로써 장단점, 같음과 다름을 이해하여 화해·공존 태도를 함양케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이 모두 즐겨먹는 음식, 예를 들면 냉면 같은 것을 소재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남북의 민족적 동일성을 인식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학습목표

- 북한의 의식주 생활을 안다.
- 남한과 북한의 의식주 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집단탐구모형)

· 학습자료

교사: 학습지, 관련사진자료(참고자료 참고), 인터넷.

학생: 주제별 조사자료.

학습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남북한 의식주에 관한 탐구 문제	◎동기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즘 우리 나라에서 유행하는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 하기. · 북한의 의복에 대한 영상자료 관람하기 · 남한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하기. ◎학습문제 확인: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쪽을 읽고 학습문제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의식주의 차이점 · 남북한 의식주 비교 	*관련자료는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센터(www.unicedu.go.kr)에서 '자료실⇒동영상자료⇒북한의 패션'을 클릭하면 4분 분량의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음. 기타 언론사나 방송사의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임.
전개	탐구 계획 세우기 역할 분담	◎ 모둠별로 남북한의 의식주 중에서 영역 선택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차림, 음식, 집 ◎ 문제를 탐구할 계획 세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로 각자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한 ·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함 · 의논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 전체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함 ◎모듬별로 모듬원의 역할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별로 사회, 기록·정리, 발표 등의 역할을 분담 하기 · 탐구문제, 탐구방법, 역할분담이 정해진 모듬에서는 탐구 시작하기. 	*남북한 의식주 대해 1-2주전 미리 자료 수집 과제를 제시하도록 한다. *모듬별로 탐구 문제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한다.
정리	발표 및 논의 탐구 내용 논의 하기 정리 및 적용	◎모듬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하고 토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의 의복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의하기 · 남북한의 음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의하기 · 남북한의 주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토의하기 ◎모듬별로 발표한 내용을 평가하기. ◎조사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동질성이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 발표하기.	*북한의 의식주와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 *학습지 활용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이렇게 달라요

학년 반 이름 ()

◎ 우리 모둠에서 탐구한 남북한의 의식주 중 한 분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하여 적어봅시다

우리 모둠이 선택한 분야	의 식 주	
	북한의 생활 모습	남한의 생활 모습
◆ 새로 알게 된 점		

<학습지 2>

이렇게 바뀌어요

학년 반 이름 ()

◎ 남북한의 의식주와 관련하여 고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고쳐봅시다.

내가 선택한 분야		의·식·주	
	고치고 싶은 모습	이렇게 바뀌어요	
남한			
북한			
◎ 통일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예) 남한: 지나치게 유행을 쫓는 것 ⇒ 자기만의 진정한 개성을 추구.
또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함 등.

마. 참고자료

① 의생활

북한주민들의 기본 일상복의 조달은 1990년대 초까지는 배급제도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나 1995년 이후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의복을 스스로 만들어 입거나 장마당 등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지방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는 의류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민복 및 노동복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시장에서 중국산 의류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당·정 간부 및 북송교포 등 일부 부유층은 의화상점 등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교복도 2년에 한 번 정도 김일성·김정일 생일날 선물로 공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유상으로 공급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들의 복장을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부합되도록 주체성있게 한다는 명분하에 의복을 공급해왔다. 즉 경공업성 피복공업총국산하 피복연구소에서 직업·체격·연령 등에 맞는 옷의 형태와 규격을 제정하여 각 지역 피복공장에서 일괄 생산해왔다.

1960년대의 주민복장은 ‘천리마시대의 생활양식 준수’를 표방함에 따라 남자는 인민복(레닌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인 것이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는 북송교포를 통해 의복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 들어서는 남북적십자 회담 등의 남북교류 영향을 받아 형태와 색상 등 패션이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복의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먼저 나타났는데, 이는 북한주민의 기호변화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한 사회정책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70년대 후반이후 각종 옷전시회, 옷품평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기호와 신체조건 등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남성복에 있어서는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를 전후하여 넥타이 양복차림에 이어 간편복 차림까지 등장, 서구적인 세련미를 가미하였으며 김일성 자신도 1984년 5월 소련 및 동구권 순방이후 인민복 대신에 넥타이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세계 각국 청년학생들의 다양하고 패션화된 옷차림을 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계기가 되어 의복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반이후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서구유행이 일부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나, '자본주의 사조 침습'을 통한 사상적 해이를 우려한 당국에 의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② 식생활

냉면: 냉면은 더위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름음식으로 안성맞춤이다. 남한 도처에 냉면집이 즐비하며, 그 가운데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집이 제일 많다.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은 지역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으며 나름의 맛과 멋이 배어 있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메밀과 감자가루를 섞어 국수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시원한 물냉면이 '주력상품'이다. 평양냉면은 오리가 질기고 국물이 시원하며 달고 약간 새콤한 배맛이 어울려 뒷맛을 감치게 하는 특징이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찬물에 넣고 삶아 내는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버들잎 모양으로 얇게 편을 내고 닭고기는 찢어놓는다. 함흥냉면은 핥육수를 내서 물냉면으로 먹는다.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올린다.

냉면은 쌀이 부족한 지역에서 생성된 잡곡문화의 소산이다. 다른 나라 음식과 비교할 때 메밀가루로 만드는 음식 중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국수가 냉면이 아닐까.

(*출처: 주장현, 중앙일보, 2001. 06. 04일자 기사에서 재인용)

●감자 음식: 북한은 식량난 해결을 위해 1998년 10월부터 감자재배에 주력하는 한편 감자음식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1999년 10월에는 평양에서 200여가지의 감자음식이 출품된 '감자음식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감자음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감자밥, 감자떡, 감자찰떡, 언 감자떡, 감자'농마'(녹말)국수, 감자장, 감자채, 감자엿 등이 꼽힌다.

③ 주생활

북한은 민법 제50조에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농민, 사무원에 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주택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주민에게는 소유권이 아닌 이용권만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형태 및 구조를 각각 달리하고 있다.

주택형은 대체로 당·정 부부장급 이상 고급간부 등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일반 근로자와 집단농장원에게 배정되는 1호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 배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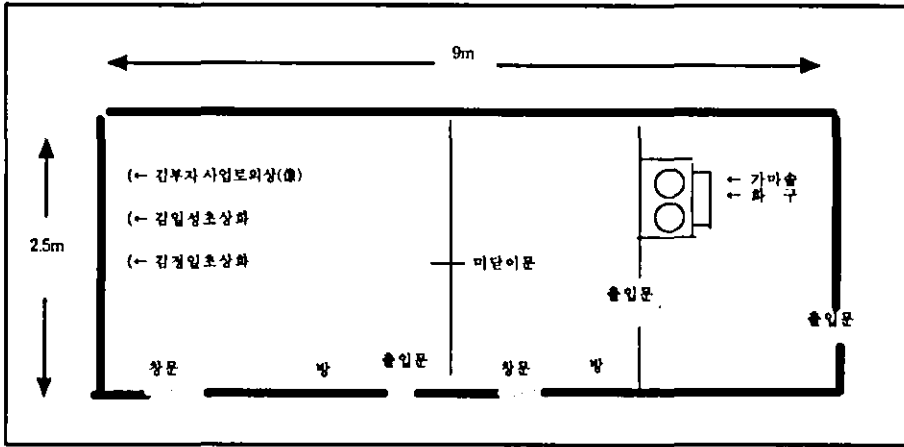
계층별 주택구조

구 분	주 택 형	가 옥 구 조	입 주 대 상 자
특 호	독립고급주택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 주택 · 정원 · 수세식변소 · 냉난방장치	·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 내각 부상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고층 아파트	· 방 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 소 · 베란다, 냉온수시설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내각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단체 간부 ·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 방 2 · 부엌 · 창고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 방 1~2 · 마루방 1, 부엌 1	· 인민학교·고등중학교장 · 일반노동자 · 사무원
1호	집단공영주택	· 방 1~2, 부엌 1	· 말단근로자 및 사무원
	농촌문화주택	· 단층 연립주택 · 방 2, 부엌 1, 창고 1	· 협동농장원
	구 욕	· 방 2~3개의 농촌 기존 구옥	· 변두리 농민

다른 기본생활 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부족 사정도 상당히 심각한 편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방 1개, 부엌 1개의 2칸 주택이 보통이고, 방 2개, 부엌 1개의 3칸 주택에 2가구가 동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노동자주택의 내부구조>



- ※ 주 : 1) 화장실은 25세대당 재래식 변소 1개소씩 설치.
 - 2) 거주 공간은 약 7평 정도됨($9 \times 2.5 \div 3.3 = 6.8$ 평).
 - 3) 이 그림은 김만철씨가 진술했던 방 2칸, 부엌 1칸짜리 일반노동자 주택의 내부 구조이다.
- (※ 그림출처: 서동의 『인민이 사는 모습』, 자료원, 제2권, 1995년, p.260. 통일교육원, 『2001북한이해』에서 재인용)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 일반주민들의 경우 국가에서 배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등록 후 세대주를 변경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돈을 주고 집을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매매는 주택에 대한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사회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동안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편법매매가 최근에 들어 공공연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자 당국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평양에 1981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10만여 세대의 주택을 문수·창광·광복·통일·안상택 거리 등에 건설하였으나,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편 원산·함흥·청진 등 지방도시에도 평양과 같은 시기에 3,000여 세대의 아파트·공동주택이 건설되었으나, 공급부족 현상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택은 당·기관·기업소 등의 간부들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어 일반주민들의 주택사정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아직도 주택사정이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크게 개선되지 않고 주택건설계획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현재 주택 문제 보다는 먹는 문제, 입는 문제의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3. 북한 사람들의 직장생활

가. 학습개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의 선택은 무엇보다도 소득의 극대화와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하면서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일반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적 계획에 의한 사회부문별 노동력배치에 의해 규정된다.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기준이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기준이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으로서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학력은 사회적 신분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신규채용 등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중앙의 수급계획에 의해 직장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본 제제는 북한에서의 이러한 직업선택이 남한의 직업선택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북한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나. 학습목표

- 북한 직업선택과 직장생활 모습을 안다.
- 북한의 직업선택과 남한의 직업선택의 차이점과 그 이유를 안다.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 집단탐구학습)

· 학습자료

교사: 실물화상기, 프로젝션TV, 인터넷.

학생: 주제별 자료조사.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학습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남북한 의식주에 관한 탐구문제	<p>◎동기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기. :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여 남한의 직업선택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떤 점이 고쳐졌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해보자. : 경쟁, 실업, 남녀차별, 학력중심 등 <p>◎학습문제 확인: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쪽을 읽고 학습문제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 주민의 직업선택과 직장생활 모습 북한의 직업선택과 남한의 직업선택의 공통점과 차이점 	*남북한 직업선택에 대해 자료수집 과제를 1-2주전 미리 제시하도록 한다.
전개	탐구계획 세우기 역할분담 및 탐구 실행	<p>◎모둠별로 탐구 영역 선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직업선택 과정과 남한의 직업선택 과정 북한 직장의 하루일과와 남한직장에서의 하루일과 (공통직업을 하나 정하여 조사) 북한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과 남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그리고 그 이유 <p>◎문제를 탐구할 계획 세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 반을 6개 모둠 정도로 조직한다. 탐구문제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한다. 분야별로 각자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함 의논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전체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함 <p>◎역할설정 및 탐구 실행</p>	*모둠별로 탐구문제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한다.
정리	발표 및 논의 탐구내용 정리	<p>◎모둠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p> <p>◎조사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토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직업선택과정과 남한의 직업선택과정의 차이점 이야기하기. 북한직장의 하루일과와 남한직장에서의 하루일과 비교하기.(공통직업을 하나 정하여 조사) 북한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과 남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 그리고 그 이유: 선호직업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p>◎탐구내용 정리 및 차시예고</p>	*남북한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 학습자료 난의<학습지> 활용.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이렇게 달라요

학년 반 이름 ()

◎ 우리 모둠에서 탐구한 주제에 대하여 알게 된 내용을 비교하여 적어봅시다

우리 모둠이 선택한 주제		
남한	북한	
◆ 알게 된 점(느낀 점)		

<학습지 2>

이런 일을 하고싶어요

학년 반 이름 ()

◎ 통일이 되면 어떤 직업들을 선호하게 될까요 또 어떤 직업들이 새로 생기게 될까요

	직업	이유
나의 현재 희망		
통일이 되면 선호될 직업		
통일이 되면 바뀌거나 새로 생길 직업		
나의 미래 모습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직업선택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당과 행정기관의 조정·통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각 부문별 수요에 따라 중앙의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장배치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은 성분과 당성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기준이다. 직장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기준이다. 이는 직무수행능력으로서 학력, 자격,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점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 학력은 사회적 신분상승의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 동요계층과 적대계층의 진학 등은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를 갖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신규채용 등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이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중앙의 수급계획에 의해 직장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인 것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직장배치는 일반적으로 간부와 노동자로 구분된다. 간부는 도·시·군 당(리당 포함) 간부부에서 하며, 대상은 대학졸업자, 국가사무원, 노동현장에서 충실성과 당성이 높은 노동자 등이다. 노동자의 경우는 각 도·시·군(리 포함) 인민위원회 노동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한다.

위의 두 경우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며, 국가에서 배치한 생산현장으로부터 다른 직장으로의 이동은 사실상 힘들게 되어 있어 처음 배치된 직장이 평생직장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특권계층들의 자녀나 친인척 등 성분이 좋거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좋은 기관과 직장으로 마음대로 옮겨갈 수 있다. 또 사회통제가 낮은 틈을 타 뇌물을 주고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회통제가 이완된 틈을 이용하여 뇌물로 편안한 기관과 직장으로 옮겨 다니는 노동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② 임금·분배

북한은 1949년 내각결정 제196호에 의해 임금기준을 결정한 이래 지금도 대체로 이를 따르고 있다. 이 기준은 경노동보다 중노동이, 중노동 가운데서도 유해노동 종사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되어 있고, 동일직종에서도 숙련도나 생산성 등 노동의 질에 따라 급수가 결정되어 임금수준이 변화한다. 또 일반 사무원보다는 당·정기관종사자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북한이 1992년 12월 13일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통해 발표한 당·정기관, 공장·기업소, 노동자, 사무원, 편의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은 당·내각의 상급 370~350원, 특급 기업소 지배인 250~300원, 광부·제련공 90~100원 및 서비스업 50~80원 등이다.

이후에는 임금관련 발표가 없었으나 대부분 노동자, 사무원들은 100원 전후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난 이후 실질임금은 상당금액이 삭감된 실정이다.

이렇듯 북한의 보수체계는 직책에 따라 국가가 획일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성과·노력에 따라 결정되는 자유주의국가에 비해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노동생산성의 저하와 생산목표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물가는 1995년 경제난 이후 급상승하여 사무원·노동자 임금(100~150원 수준)으로는 식생활(쌀 1kg : 농민시장에서 60~70원 정도)조차 해결하기 어려우며 임금 또한 대부분 2~3개월씩 체불한 후에야 겨우 1개월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노동의욕을 상실한 상태이다.

한편 국영 농·목장과 협동농장원은 도시의 노동자·사무원과는 달리 연간 생산

및 재정활동을 총화하고 수입을 확정하는 결산분배총회에 의해 현물과 현금을 분배 받는다.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③ 휴일·휴가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식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무로도 휴가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연간 300일 출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료부족, 어족 자원 고갈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휴가는 사회주의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장·기업소가 가동되지 못하는데 따른 결근과 배급중단으로 인한 식량구입 목적의 무단 결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직장상사에게 뇌물을 주고 장사 등 개인사업을 하는 사례도 있다.

여성의 경우는 산전·산후 150일간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휴가 이외에도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는데, 이는 각 직장마다 생산경쟁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휴가제도>

종 류	대 상	기 간	비 고
정기 휴가	일반노동자, 사무원	연간 14일	유급휴가
보충적 휴가	지하 및 유해직 근로자	정기휴가 14일의 7~12일	"
산전산후 휴가	임산부	150일	"
임시 휴가	부득이한 특수사정이 있는 자	단기간	무급휴가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④ 남북한의 선호직업

· 남한의 선호직업

[○○일보 여론조사] 자영업, 원하는 직업 '1위'

학생과 무직자를 제외한 전체 직업인(가정주부 포함)을 대상으로 한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한다' 고 답한 사람이 40.3%였으며, 보통이라는 답변은 41.7%를 차지했다.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은 자영업이 15.8%로 가장 비중이 컸다. 2위는 교사·교수(13.8%), 3위는 사업가(9.6%)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무원 5.7%, 의사 3.6%, 사회복지사 3.2%, 회사원 3.1%의 순이었다.

1년 전 조사에서 교사·교수(13.0%)를 희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던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지난해 직업선호도는 1위를 차지한 교사·교수에 이어 자영업 12.4%, 사업가 11.9%, 공무원 6.6%, 디자이너 3.1%, 법조인 2.9%, 사회복지사 2.7%, 의사 2.6%의 순이었다.

'좋은 직업'의 조건으로는 '적성' (46.5%)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안정성' (21.3%), '수입' (14.0%), '장래성' (11.7%), '사회로부터 인정' (6.2%)등의 순이었다.

(*출처: 중앙일보, 2001년 09월 21일)

· 북한의 선호직업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당·정 요원이고, 그 다음이 예술인, 기술자, 교육자, 군인, 체육인, 상업일꾼, 농수산업 종사자 등이었다. 노동계급을 영도적인 계급으로 찬양하는 사회기조와 달리, 육체노동을 경멸하고 정신노동에 대한 선호가 우선적이었으며 그것도 권력조직과 관련된 직종이 최고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에는 재화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직업선호의 기준이 된다고 한다. 예컨대 엘리트 계층의 경우 당·정업무 직종보다 외교관 및 대외사업요원을, 일반주민의 경우 식량자급이 용이한 농업, 개인수입이 높은 상업일꾼, 부수입이 좋은 상점점원, 운전기사, 사진기사, 군대후방일꾼, 식량배급소 기표원 등 서비스직과 어로공(어부)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인기가 떨어진 직업으로 대학교수와 학교의 교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예전에 국영상점에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을 때에는 다른 직장인보다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최근에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부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출처: 통일교육원, 「2001 북한이해」)

⑤ 북한 직업의 분야별 특징

1) 정권분야

가) 당

북한은 정당의 개념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로 보고 있어 우리와는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북한에서 실제적인 조직과 기구·기능을 가진 정당은 조선노동당 하나로서 각급 단위에 조직된 당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당방침의 전파는 물론이고 인사 등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관적 지도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각급 당조직은 지역 또는 생산단위별로 조직되어 있다. 중앙당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을 중심으로 산하 조직지도부 등 30여개의 전문부서로 조직되어 있고 지방은 도 및 직할시 당위원회, 시·군당(구역당 포함)위원회, 리당위원회로, 각 생산단위는 연합기업소 및 공장 당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중앙위 직속으로 인민군당위원회를 두어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당위원회는 기관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초급당위원회, 부문당위원회, 당세포 등으로 세부조직화되어 있는 바 당세포는 최말단 당조직으로서 당원의 수가 3~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당원은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유급, 반유급, 무급으로 분류된다. 유급 당일꾼은 당 사업에 전념하는 직업적인 당간부로서 대체로 당중앙위, 도·시·군(구역)당위원회, 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원급 이상과 하급 당조직인 리당위원회, 공장당위원회의 최고책임자급인 비서들이 속한다.

반유급 당일꾼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1일 노동시간의 절반 정도를 당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주로 50명 미만의 초급당위원회나 부문당위원회의 비서들이 속한다. 무급 당일꾼은 직업이 있으면서 별도시간에만 당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노동당의 말단조직인 당세포의 비서 등이 해당된다.

나) 내각

북한에서는 공무원을 내각원 또는 행정일꾼으로 부르고 있다. 행정기관은 우리의 정부 부처에 해당하는 중앙의 내각, 위원회를 비롯하여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 시, 군(구역·구), 리(읍, 동) 인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98.9.5 헌법개정으로 기존 지방의 행정 및 경제지도 위원회는 각 인민위원회로 편입되었다.

내각은 최고의 행정집행기관으로서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일종의 국무회의)를 통해 당의 방침을 지침으로 각 분야의 세부정책 수립과 그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기관이다.

중앙 행정일꾼 직급체계는 최고지위인 상(장관급)·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상, 국장, 부국장, 처장, 과장, 책임지도원, 지도원, 보조지도원 순이며 지방 행정일꾼의 경우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위원장, 국장, 부국장, 처장, 과장, 지도원 순으로 되어 있다.

다) 최고인민회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 우리의 국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중앙정책과 관련된 입법과 집행에 대한 통제권은 노동당이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는 이를 단지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예산, 법제 등 부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도·시(구역)·군 지방인민회의가 있다. 최고인민회의가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역할과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

라) 최고재판소

북한에서 사법이란 다른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권력작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 등의 지도하에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재판기관과 검찰기관 등의 권력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따라서 재판소뿐만 아니라 검찰소, 변호사위원회, 공증인 등 북한에서 사법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으로 지칭되는 기관이 당 등의 지도를 받아 법을 해석·적용하고 집행하는 권력적 활동은 모두 광의의 사법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 군

북한의 군 계급 체계는 직업군인인 군관 및 초기복무 하사관 15종과 일반병인 하전사 8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업군인 15종은 대원수, 원수, 차수를 비롯하여 우리의 장군에 해당하는 장령급으로 대장·상장·중장·소장, 영관급으로 대좌·상좌·중좌·소좌, 위관급으로 대위·상위·중위·소위 등으로 구분된다.

대원수로는 김일성이 유일하며 원수는 김정일과 호위사령관인 이을설 등 2명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이을설은 조선인민군 원수로 차별화되어 있다. 차수는 지난해 김정일의 특사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바 있는 인민군 총정치국장 조명록, 인민무력부장 김일철, 총참모장 김영춘 등 13명이다. 특히 총정치국장의 지위는 군에 대한 사상통제와 작전, 인사 등 인민무력부 내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98년 이후 군대식 사고와 기풍을 경제 및 사회개발 전면에 내세워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선군영도와 강력한 군으로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총대중시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의 생산 및 건설현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바) 보안기관

북한의 보안기관으로는 우리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구 사회안전성)이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평양에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구역 포함)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공장 및 기업소, 농장 등을 관할하는 동·리 단위 행정기관에도 담당 보위지도원이 파견·배치되어 있다.

보위부원들은 반드시 보위대학 출신이어야 한다. 또 모두 군사계급이 부여되며 해외활동을 제외하고는 군복차림으로 근무하는 등 군인에 준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평양의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 보안서 및 말단 조직인 분주소(파출소)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은 치안 및 전서유지 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만17

세 이상의 주민에 대한 공민증(주민등록증) 발급, 17세 이하에 대한 출생증 발급, 일반주민에 대한 여행증 발급 등의 대민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인민보안원 역시 군 계급이 부여되고 있다.

특히 '98.2 인민보안성에 주소안내소가 설치되어 '98.3.1부터 신청자의 청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내 이산가족 생사확인파 상봉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사회단체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북한의 '각 사회단체는 대중의 사상교양 조직이며, 당과 대중의 인전대(引傳帶)이며,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전국단위로 조직된 사회단체로서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조선직업총동맹(직총),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등이며 다른 하나는 본업에 종사하면서 활동하는 조선기자동맹, 조선작가동맹 등의 여타 사회단체들을 의미한다.

전국단위로 조직된 사회단체들은 단체별로 당이 제시한 과업에 대한 총화, 사업대책 토의 등을 위해 매년 2~3회 이른바 '전원회의'를 개최하며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등 정기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2) 상업·농업·어업 분야

가) 무역 부문

북한의 무역구조는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중앙집권적 통제형태이면서도 하부구조로서 무역성을 비롯한 각 기관별로 독자적인 무역회사들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당·군·내각의 각 기관은 기관의

규모 및 무역 성격에 따라 무역상사, 무역총회사, 무역회사 등을 조직·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식 무역기관은 아니지만 무역회사내에는 '외화벌이 사업' 만 하는 전문 외화벌이 사업소도 조직되어 있다.

나) 금융 부문

북한은 금융제도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이 대출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을 자본주의적 착취로 보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출은 무담보 원칙하에 주로 일부 기관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출 자금도 현금 대신 무현금행표(무현금결제방식) 발행형식을 취하고 있다.

은행별 업무영역도 대내 및 대외부문으로 이원화하여 대내금융 부문은 북한유일의 발권은행인 조선중앙은행이 전담하고 외국환 업무 등 대외부문은 조선무역은행 등이 취급하고 있다.

대내부문 금융업무의 대부분은 기관 및 기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금융거래는 극히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증권시장, 시중은행 등 여타 금융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봉사 부문

우리의 서비스부문과 같은 개념이나 북한의 상업봉사부문의 특징은 국가가 공급자, 봉사자, 판매자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사회에서 상업봉사부문 근로자들의 사회적 지위는 낮으나 경제난에 따른 생필품 부족 등으로 지금은 가장 인기있는 직종의 하나이다. 그중에서도 상점, 공급소, 식당, 여행업 분야 종사자는 주로 간부자녀나 그 친척,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받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히 높다.

봉사일꾼으로 통칭되는 이 분야의 근로자들은 크게 상업봉사, 급양봉사, 편의봉사, 관광봉사, 안내봉사, 자재봉사, 일반봉사일꾼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상업봉사일꾼은 상점, 백화점, 공급소의 판매원, 공급원들이며 급양봉사일꾼은 요리사, 주방보조원, 접대원들을 의미한다. 편의봉사일꾼은 이·미용사, 목욕탕 관리원, 사진사, 재봉사, 구두수리공들을 의미하며 관광봉사일꾼은 관광총국 소속으로 외국인과 간부들에 한정되어 있는 국내외 관광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다. 안내봉사일꾼은 사적지나 관광지 해설원, 열차안내원, 버스 및 전차 차장, 비행기 안내원 등을 의미한다. 자재공급일꾼은 봉사부문에 필요한 자재 및 설비들을 공급하여 주는 자재공급원, 자재인수원, 창고원 등을 의미한다.

라) 농어업 부문

북한의 농촌경영 형태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국영농장과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협동농장 형태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농촌주민들은 리단위로 조직·운영되는 협동농장의 하부조직인 작업반과 분조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의 수산업은 크게 어로업, 양식업, 수산물가공업으로 구분하여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기본 생산단위로 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어족자원의 감소, 조선 실적의 부진, 어로장비 및 기술의 낙후 등으로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열대메기 등의 양어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보건·의료 분야

북한의 보건의료정책은 예방의학,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을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예방의학의 기본은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위생개조사업 그리고 모든 주민들이 자각적으로 위생문화 사업에 동원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무상치료제는 '60.2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전지역에서 실시한다고 함으로써 일반화되었으나, 실제로는 의약품 부족·의료시설의 낙후

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전 주민이 담당구역 의사들로부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60년부터 모든 시·군·구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의사 1명이 5~8개 인민반(인민반은 20~40가구로 구성된 최말단 단위)을 담당함으로써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가 도시의 경우 1,200여명, 농촌의 경우에는 1,500여명에 달하여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진료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의료체계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병원을 이용할 일반주민은 1차 진료기관인 리·동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2차 진료기관인 시·군급 인민병원은 1차 진료소에서 '치료후송증'을 발급 받은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으며 3차 진료기관인 도 인민병원 및 대학병원은 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이용한다. 하지만 중앙당 과장급 이상 간부, 내각 과장급 이상 간부, 1급기업소 당비서·지배인들은 간부진료과 대상으로 직접 도 인민병원이나 중앙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직할시와 도에는 대학병원과 중앙병원 각각 1개, 시·군·구역에는 인민병원 1~2개, 리·노동자구에는 인민병원 또는 진료소 1개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각 도·시·군 인민병원에는 구급과가 있어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시 가까운 병원에서 구급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일반병원 이외에 평양에는 김정일 가족과 당의 최고위급 간부들이 다니는 봉화진료소를 비롯해 내각과 당 고위급이 이용하는 남산병원 등 특수병원이 있으며 회귀 질병을 주로 취급하는 적십자 병원과 여성전용인 평양산원 등이 있다.

이밖에 11호병원(인민무력부 병원), 인민보안성 병원, 국가보위부 병원, 호위사령부 병원, 철도성병원이 있어 소속 일꾼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과 각 도(직할시)에 간염요양소, 길핵요양소, 49호병원(정신병원)이 각각 1개씩 있다.

4) 교육·과학기술 분야

가) 교육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43조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걸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교육목표를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의 육성에 두고 있다. 여기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이란 공산주의 사회에 적합하며 김부자에 절대 충성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생산기술 기능을 소유한 인간을 의미한다.

한편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활동에 관한 내용 등 혁명전통교양을 중심으로 철저한 사상교양을 실시하며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사상교육과 기술교육의 양대 과목을 위주로 편성된다.

북한의 교육기관은 유치원,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대학이 있으며 북한이 선진하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은 유치원 높은반 1년,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한다.

대학은 2년제 및 4~7년제 대학과 이른바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 북한의 각대학들에는 통신 및 야간반이 있다.

또 연합기업소와 1급 기업소에는 공장대학이 있어 공장운영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어장·농장대학 등이 있다.

나) 과학기술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김정일의 '과학중시사상'을 내세우면서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여 왔다.

기술혁명은 사상·문화혁명과 함께 북한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3대혁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7조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다. 국가는 언제나 기술발전문제를 첫 자리에 놓고 모든 경제활동을 진행하며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고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노동에서 해방하며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차이를 줄여나간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99.3 전국 규모의 과학기술부문 선동집회인 '전국 과학자·기술자대회'를 '91년 대회 이후 8년만에 개최하여 '99년을 '과학의 해'로 설정하고 '과학자·기술자발전 5개년계획' 및 '첨단 과학자·기술자 중심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은 사회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다) 컴퓨터산업

북한은 현재 하드웨어부문에 있어서는 32비트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속품의 조달 사정 악화로 인해 생산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이다. 또 메모리칩 분야에서도 유일한 시설인 평양집적회로공장이 조총련의 기술자들과 유엔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시험적으로 8메가, 16메가 메모리 생산에 성공하였지만 반도체 생산설비의 미흡과 원자재 부족으로 계열생산에는 실패하여 현재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80년대부터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로 전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이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력양성 면에서는 '83년부터 각 대학의 전자공학부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고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85년) 등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평양·함흥전자계산기단과대학을 평양·함흥컴퓨터기술대학(2000년)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는 컴퓨터과학대학('99년)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컴퓨터공학부를 정보과학기술대학(2001)으로 개편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주요기관으로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컴퓨터센터(KCC), 평양프로그램센터(PIC), 과학원(Academy of Sciences) 등이 있다.

'98.2 김정일은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참관하는 등 컴퓨터 부문에 관심을 높이면서 컴퓨터 부문의 산업화를 위해 인재 양성을 통한 기술인력 확대, 프로그램의 통일적 심의·보관·보급체계 확립, 프로그램 개발기관에 대한 지도와 관리 강화, 컴퓨터 기술장비 쇄신을 위한 국가투자 확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노동당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의 컴퓨터 산업 육성 지침을 밝힌 바 있다.

5) 예술·체육 분야

가) 문학

북한의 문학은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67년 김정일 주도로 창설된 백두산창작단에서 시작된 수령형상문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수령형상문학이란 수령의 위대성 등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으로 작품 속에 수령을 절대적인 존재로 우상화할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최근의 북한 문학계는 수령형상문학과 더불어 태양민족문학을 강조하고 있다. 태양민족문학이란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서 김정일을 형상화하면서 문학의 성격을 위대한 영도자의 문학, 강성대국의 문학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들은 태양의 위성작가, 태양민족문학의 창조자라는 자세로 현재의 생활을 옹호하고 긍정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작품을 그려낼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문학은 여러 장르중에서 시문학과 가사문학을 가장 중시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대중성과 선동효과가 큰 노래가사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이는 노래를 좋아하는 김정일의 취향과도 연관되고 있다. 따라서 시와 가사문학에 비해 소설, 희곡 등 타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

나) 영화

북한은 영화를 직관예술이라 하여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보고 어느 예술 장르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은 개인 영화문헌고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영화애호가이며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주체적 문예이론을 영화분야에 적용시킨 '영화예술론'을 '73년에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영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90년대 들어서는 이른바 수령형상창조라는 명분하에 '민족과 운명', '조선의 별' 등 다부작예술영화가 많이 제작되고 있다.

다) 연극

북한의 연극은 사회주의 계급혁명 의식을 주입하는 도구로서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으나 영화가 선전선동의 수단으로 중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소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북한 연극은 이른바 항일혁명시기의 고전적 성격의 연극을 '70년대 초 새롭게 혁명가극으로 각색하여 공연함으로써 사상 교양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연극에 음악과 무용을 가미하여 나타난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주제와 사상을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심화·발전시킴에 따라 연극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라) 희극

북한에서는 코미디를 희극으로 부르며 코미디언을 희극배우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코미디는 과거 '60년대까지만 해도 큰 인기를 누렸으나 현재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고 있는 분야로 타 예술분야에 비해서 인기가 없다.

따라서 희극배우들의 숫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며 현재 대부분의 희극배우들은 예술단에 소속되어 당 정책 홍보 등 주로 선동 목적의 재담, 만담을 사이극 형태의 막간공연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이다.

마) 음악

북한은 음악을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일의 통치방식을 ‘음악정치’, ‘노래정치’라 부르며 강조해 오고 있다. 이는 주민 정서에 쉽게 파고들 수 있는 노래를 통해 주민들의 사상교양과 근로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기악곡보다 가사를 통해 사상전달이 가능한 성악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음악에 사상적 내용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혁명가극에 비중을 두고 '71년 '피바다' 발표이후 새로운 음악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기악분야에서도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한 '배합관현악' 이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민요에 대해서는 과거의 양반사회 등 낡은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풍한 느낌, 슬픈 곡조 등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민요를 흥이 나는 빠른 박자로 새롭게 정리하여 보급하고 있다.

바) 미술

북한의 미술은 다른 예술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기법에 기초하여 체제선전 및 주민사상교양, 김부자 우상화를 창작활동의 핵심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미술에서는 당 정책 선전 및 주민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선전화나 김부자 초상화 제작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다.

이처럼 작품의 소재나 주제는 당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창작활동의 원초적 한계로 인해 미술가는 기법의 문제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침에 따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이른바 '집체창작' 이라는 독특한 방식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현재 북한 미술분야의 대표적인 집체창작 기관으로는 '만수대창작사'가 널리 알려져 있다.

사) 무용

북한의 무용 역시 민족주의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민속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에 따라 민족적 정서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창작되어 왔다.

북한은 무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누구나 쉽게 따라 추고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춤가락과 의상, 소품을 중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을 표현한 무용작품 창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어디까지나 사상교양의 수단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이 창작한 대표적인 무용 형태로는 '계절의 노래', '평양성사람들'로 대표되는 민속무용조곡, '5대 혁명가극'으로 대표되는 피바다식 혁명가극 무용, '낙원의 노래'로 대표되는 음악무용이야기 등이 있다.

한편 북한은 발레에 대해 '발레가 지닌 기교체계와 특성을 살리면서도 내용과 형상 창조에 있어서는 인민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하여 인민을 위한 무용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고 함으로써 사실상 순수한 형태의 현대무용은 제외시키고 있다.

아) 체육

북한에서는 체육을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이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즉 체육을 신체 단련, 여가 선용이나 생활 체육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단주의 정신 함양과 체력 향상을 통한 노동력과 국방력 증대의 수단적 가치로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헌법」 제55조의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 나라 실정과 현대체육기술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 라는 규정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육정책은 전 인민을 혁명과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육체적, 사상적으로 강인한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방체육의 강화, 체육교육의 강화, 군중체육의 강화, 집단체육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자) 교예

북한에서는 우리의 서커스에 해당하는 교예를 ‘육체의 기교동작을 기본적인 형상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활과 사상 감정을 반영하는 예술’로 규정하여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즉 교예를 단순한 오락의 한 형태로 보지 않고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과 풍부한 문화정서, 튼튼한 체력을 소유한 건전한 인간으로 만드는 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북한은 이러한 교예가 체육적 성격, 예술적 성격, 자연과학적 성격 등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즉 교예의 기본형상수단인 기교동작이 체육운동을 하여 체력을 발달시키고 운동숙련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음악, 무용, 미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예술형태들과 결합되어 있고 역학, 물리학, 광학, 생물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여러 부분들의 원리에 기초하여 창조되는 예술로 인식하고 있다.

6) 종교·언론 분야

가) 종교

북한은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 유일사상체제를 유지하는데 종교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내면적으로는 반종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른 종교탄압으로 '56년에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종교 자체가 모습을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내외 정세변화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대외적 선전과 통일전선 형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필요성에 따라 순화된 종교단체들을 재등장시키게 되었으며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른 종교정책의 변화를 보여왔다.

'70년대 초에는 남북대화와 서울-평양 왕래,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등을 계기로 '조선기독교도연맹(현 조선그리스도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등이 재등장하였으며 '80년대에는 통일전선전략에 이용하기 위하여 '조선천주교인협회(현 조선카톨릭교회)',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신설되었고 종교의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 사찰복원, 교회·성당 건립, 각종 종교행사 개최 등이 있었으며 '90년

대부터는 식량난에 따른 구호물자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 남북한간 종교인 접촉 및 초청이 증가하고 있다.

나) 언론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67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당의 영도와 국가의 통제하에서만 보장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당의 통제를 벗어난 언론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출판사 등의 언론기관을 통제하는 핵심기능은 당 선전선동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문의 경우 편집국장·책임주필 등의 내부 검열을 거친 후에는 내각 직속의 출판지도총국의 검열, 당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검열을 받게 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에서는 일반 가정집의 TV, 라디오의 주파수 고정상태와 무선통신장비들에 대한 감청, 국내외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열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크게 TV 방송, 라디오 방송, 신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TV 방송의 경우 조선중앙TV, 만수대TV, 조선교육문화TV가 있으며 이들 방송은 남한의 NTSC 방식과는 다른 PAL 방식을 사용한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 FM방송 등 중앙방송과 개성방송, 평성방송 등 10개의 지방 방송이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북한의 가장 대표적인 라디오 방송으로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방송이며 평양방송은 대남용 라디오 방송이다.

신문의 경우 노동당·내각·사회 단체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만이 있다. 대표적인 신문으로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있으며, 그밖에 각 도 일보, 각급 사회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다.

(* 출처: 통일부, 「북한 주민의 직업세계」)

4. 북한 사람들의 가정생활

가. 학습개요

북한은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현을 추구하여 왔다. 여성해방의 실질적 내용은 여성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집단주의체제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은 배제되고, 그 대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켰다. 따라서 북한은 가정이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기애 앞서 당의 통제단위로서 당적 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가정을 '온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의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제는 북한의 이러한 가정제도 아래에서 일반 주민의 가정생활이 남한의 가정생활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나. 학습목표

- 북한의 가정생활의 모습과 성격을 알 수 있다.
- 북한의 가정생활과 남한의 가정생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직소우 학습)

· 학습자료

교사: 북한의 가정생활에 대한 간단한 사진 자료, 학습지, 실물화상기, 프로젝트선TV

학생: 학습주제별 조사자료, 가위, 풀, 색연필 등

학습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학습문제 이해하기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7쪽의 사진을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 학습문제 확인: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7쪽 을 읽고 학습문제 파악하기. · 북한가정의 생활모습과 성격 · 북한가정과 남한 가정과의 공통점과 차이	*북한의 가정생활이 단지 사회주의혁명의 도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성원간의 애정이 강한 연결고리임을 주지시킨다.
전개	탐구주제 정하기 각 주제별 조사활동하기 전문가 학습활동하기	◎ 탐구주제 정하기 -북한 가족제도의 특징 -북한가족의 하루 생활과 남한가족의 하루 생활비교 -북한가정생활의 필수품과 남한가정생활의 필수품 ◎ 학습방법안내 -6명을 한 모둠으로 하여 6개 모둠으로 나눈다. -모집단 내에서 각 주제별로 전문가 정하기. -전문가 모둠으로 이동하여 주제 탐구하기. -모집단으로 돌아와서 가르쳐주고 배우기 ◎ 모둠별 학습하기(전문가 학습) ◎모집단으로 돌아가 학습내용을 전달하고 토의하기	*사전에 학습안내를 통해 자료를 조사해오도록 한다.
정리	학습내용 정리 학습결과 평가	◎ 학습결과 발표, 부족한 학습내용 보충하기 -학습결과에 대해 발표하기 : 6개 모둠의 학습을 정리하여 마인드 맵,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게 한다. -정리학습지 해결하기 ◎ 학습결과 평가 및 차시예고	(*학습지는 학습자료 참고)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남북한의 가정생활 필수품

학년 반 이름 ()

◎ 우리들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용도에 따라 마인드 맵으로 그려 보세요

--

◎ '북한의 5장 6기'를 읽고 5장과 6기를 써넣으세요

5장	
6기	

◎ 남북한의 생활용품 사용 실태를 알고 난 나의 느낌은?

--

<학습지 2>

학습 활동 정리

학년 반 이름 ()

학습 주제		
전문가 활동	주제	
	학습내용	
조별활동	학습 내용 정리	
새로 알게 된 점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가족제도변화

북한은 혁명이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족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종래의 전통적 대가족제도를 해체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평등권의 실현을 추구하여 왔다.

여성해방의 실질적 내용은 여성전체가 사회적 노동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집단주의체제에 알맞은 형태로 변형시키려 한 것이다.

가족제도의 변화과정

시 기	변 화 내 용
1945~19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중심의 경제활동 유지 ·봉건적 유습 청산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1954~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
1961~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활동 강화 ·사회주의적 인간 구조 ·가정의 혁명화 → 가족법 제정(1960.10.24)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동족집단의 조상숭배 관념은 배제되고, 그 대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켰다.

또한 가족제도의 변형은 호적제도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되었는데,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사회의 잔재라고 이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1946년 9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한편 친족범위를 6촌까지로 제한함과 동시에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40~1950년대의 사회주의적 개혁정책(토지사유제 폐지, 재산상속제 소멸 등)과 1960년대의 사회주의 공업화정책의 시행으로 가족중심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

지고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파괴와 함께 대가족제의 붕괴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가정이 인간적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당의 통제단위로써 당적 과업을 촉진하는 매개집단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생활방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북한은 가정을 ‘은 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기층생활단위’, ‘최저생산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② 북한주민들의 가전제품 구입방법

북한주민들은 대략 다음의 네 가지 방법에 의해 가전제품을 장만하고 있다.

첫째, 김정일 생일(2. 16)·김일성 생일(4. 15)과 당 창건일 (10. 10) 등 주요 기념일에 ‘선물 상품’으로 배정해 주는 가전제품을 국가에서 정한 가격(국정 가격)으로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

둘째, 직장 단위로 할당된 ‘구매 카드’ 로 백화점과 국영 매점에서 살 수 있고, 외화 상점에서는 외화로 구입하는 경우.

셋째, 해외에 파견된 상사원·근로자·유학생들이 돌아올 때 외국에서 구입하여 세금을 몰고 오는 경우.

넷째, 주민들이 장마당 등에서 몰래 불법적으로 사고 파는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북한은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거주지 인민반의 ‘가전제품 등록부’에 반드시 기록한 후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전제품이 압수되고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등 가전제품의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출처: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 『통일교육 수업의 실제』)

5. 북한사람들의 여가생활

가. 학습개요

남한의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여가시간의 정도에 차이가 나는데, 대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자아발전을 추구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나친 쾌락에 빠져 자신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북한은 후자의 경우를 강조하여,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게을러지고 개인주의화되며 의식이 자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이상의 여가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집단규율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 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며, 설령 여가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본 제재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여가시간의 실상을 알고 이를 남한의 여가 시간과 비교함으로써 그 특징을 알게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나. 학습목표

- 북한의 여가생활을 안다.
- 남한과 북한의 여가생활의 차이점을 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비교분석학습모형)

· 학습자료

교사: 학습지, 비디오 또는 사진 자료, 프로젝션TV, 인터넷.

학생: 주제별 조사자료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학습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p>동기유발</p> <p>학습문제 확인</p>	<p>◎동기유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부르는 노래 중 하나를 정해 불러보기. · 북한의 노래에 대해 아는 것을 발표하기. · 북한가요 불러보기 <p>(*북한가요는 동아일보 통일네트(www.tongilnet.net) ⇒ '북한노래 듣기'에서 다운받아 감상 및 지도에 활용할 수 있음).</p> <p>◎학습문제 확인</p> <p>: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8-29쪽을 읽고 학습 문제 파악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 알기 · 남북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 비교 	<p>*북한의 가요의 가사는 참고자료에 실려 있음.</p>
전개	<p>남한의 여가생활</p> <p>북한의 여가생활</p>	<p>◎여가 활동의 필요성 발표하기</p> <p>◎남한 사람들의 여가시간에 대해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의 정도는 어떠한가? · 여가시간에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남한 사람들의 여가를 잘 활용하는 경우와 잘못 활용하는 경우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p>◎ 북한 주민들의 여가생활에 대해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사람들의 여가시간의 정도는 어떠한가? · *지도서 뒤쪽 참고자료의 북한주민들의 하루일과를 참고자료로 제시 · 북한 사람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북한사람들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자기의사대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p>*뒤쪽의 참고 자료 활용</p>
정리	<p>남북한 여가생활의 차이점 알기</p>	<p>◎남북한 여가생활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비교하여 발표하기</p> <p>◎나의 여가생활은 어떤지 반성하기</p> <p>◎통일이 되면 북한 어린이들과 여가시간에 함께 하고 싶은 일 발표하기(*뒤쪽의 학습지 활용)</p> <p>◎차시에고</p>	<p>*남한사람들의 여가생활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하여 학생들 스스로의 여가생활을 반성해보는 기회를 갖는다.</p>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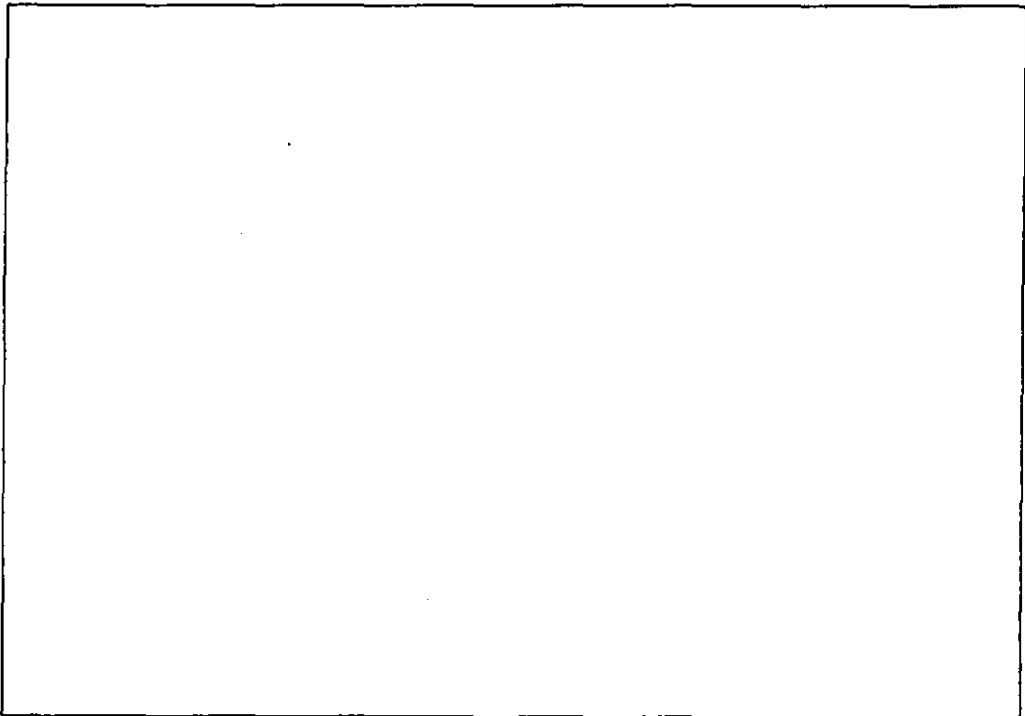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우리 함께 놀아요

학년 반 이름 ()

◎ 통일이 되어 북한의 친구들과 여가 시간에 같이 하고 싶은 일을 여러 가지 그림을 활용 재미있게 나타내어 보세요



(그림 설명)

<학습지 2>

남북한의 여가 생활

학년 반 이름 ()

◎ 남북한의 여가생활 모습을 적어보고 비교하여 보세요.

자료 조사 방법		
	북한의 여가 생활 모습	남한의 여가 생활 모습
느낀 점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여가생활

북한의 모든 일터와 직장은 일원적으로 국가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기계적으로 생활하게 된다.

하루의 일과는 직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전작업 전 30분간의 독보회(주로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음)를 갖고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며, 오후 6시경 하루일과가 끝난다. 일과 후에는 '작업총화'라 하여 지배인 및 당 비서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작업총화가 끝나면 직장별로 정치학습이 있기 때문에 퇴근은 통상 오후 7~8시경에 하게 된다.

<북한주민의 기본 일과표>

구 분	노 동 자 사 무 원	학 생	비 고
출근(등교)완료 독보회	06:50-07:00 07:00-07:30	08:00- 08:00-12:00	주부 출근시 유아를 타아소에 맡김 정기 강연회(07:00-09:00) 있는 날(수·목) 생략
작업준비	07:30-08:00		
오전작업(수업)	08:00-12:00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점 심	12:00-13: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오 칩	13:00-14:00	14:00-16:00	
오후작업(수업)	14:00-18:00		
작업총화	18:00-19:00	16:00-18:00	주부 유아 수유 30분, 인민학교 학생 오후 수업 1시간
학습회 및 강령	19:00-20:00		인민학교 학생 14:00-16:00

또한 휴일에도 각종 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정치활동 등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으며, 설령 여가시간이 주어진다

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취향대로 활용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북한은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게을러지고 개인주의화되며 의식이 자유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이상의 여가시간을 허용하지 않고 집단규율생활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무용·연극 등 개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과 인민반을 통한 집단관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보게 된다.

스포츠 역시 “체육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는 주장과 같이 체육이 여가선용이나 개인의 취미활동 보다는 정치적 혁명성과 결부시켜 국가목표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 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며, 모든 스포츠 활동이 국방력과 노동력의 강화 수단으로, 그리고 김정일의 카리스마를 강화하는 통치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취미나 오락시설도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가끔 공휴일 같은 날 공원이나 유원지를 찾는 것이 유일한 휴식이며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평양주민들은 휴일에 만경대유회장, 문수유회장 등 오락시설을 이용하거나 온수목욕이 가능한 창광원에 가기도 하지만, 수요가 많은 관계로 이용이 쉽지 않다. 또한 신세대들은 디스코, 포커 등 자본주의 놀이문화로 여가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방에서는 직장이나 지역단위의 문화회관에 간단한 체육 및 오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이 여가활동에 이용하기도 한다.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용어 설명	독보 : 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교양 자료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리내어 읽는 것, 또는 그런 선전활동.
-----------	--

② 북한 유행가

<반갑습니다>

1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얼싸안고 좋아 웃음이요
 절싸안고 좋아 눈물일세
 어허어허허어허 놀리리야
 (후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정다운 그 손목 잡아봅시다
 조국 위한 마음 뜨거우니
 통일잔칫날도 멀지 않네
 어허어허허어허 놀리리야
 (후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휘파람>

1

어제 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네 집앞을 지날 땐 이 가슴 설레어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2

한번 보면은 어쩐지 다시못 볼 듯
 보고 또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네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생긱이 웃을때
 이 가슴에 불이 인다오 이일을 어찌하랴

(후렴)

휘휘휘호호호 휘휘호호호 휘휘휘호호호
 휘휘호호호

(* 이 노래를 비롯한 기타 북한의 노래들은 NK 조선일보(nk.chosun.com)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6. 북한사람들의 언어생활

가. 학습개요

북한은 언어를 사상교환의 수단, 혁명·건설의 중요한 무기로 보는 유물론적 언어관을 바탕으로, 1966년부터 비혁명적·비문화적 요소를 정리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어'라 부르는 표준어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되었기에 문화어는 다소 공격적이고, 피아를 명확히 구분 짓는 적대적 용어와 어법으로서 혁명성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오랜 기간을 갈라져 살아온 남과 북의 언어에는 상이한 점이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이 현실이다.

나. 학습목표

-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남북한 언어사용의 차이를 알고 말할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집단탐구모형)

· 학습자료

교사: 학습지, 프로젝션TV, 인터넷.

학생: 주제별 조사내용

학습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남북한 언어에 관한 탐구문제	◎평소에 실생활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북한주민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경험에 대해 발표해보기 ·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알아듣지 못한 단어는 없었는가? (*관련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사이트의 한 예로 '동아일보 통일네트 www.donga.com/tongilnet'의 영상뉴스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음) ◎학습문제 확인: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 쪽을 보고 학습문제 파악하기. · 표준어와 문화어의 뜻 ·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 · 남북한 언어사용 비교	*남북한 언어에 대해 자료 수집 과제를 미리 제시하도록 한다. *참고자료'이용
전개	탐구계획 세우기 역할분담	◎ 모둠별로 남북한의 달라진 언어 중에서 영역 선택하기 · 생활용어, 외래어, 한자어, 체육용어, 문장부호, 적개심 고취용어 등. ◎ 문제를 탐구할 계획 세우기 · 분야별로 각자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함 · 조사한 내용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함 · 의논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 전체 앞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함 ◎모듬별로 모듬원의 역할 정하기 · 모듬별로 사회, 기록·정리, 발표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 · 탐구문제, 탐구방법, 역할분담이 정해진 모듬에서는 탐구 시작하기.	*모듬별로 탐구 문제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한다.
정리	발표 및 논의 탐구내용 논의하기 정리	◎표준어와 문화어의 의미 알기 ◎모듬별로 조사한 내용 발표하기 ◎모듬별로 발표한 내용을 평가해봅시다. ·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 한자어나 외래어들을 고유어로 대체해 온 것은 북한말에서 본받을 점이다. · 반면에 고유어 중에는 좋은 말도 있지만 오히려 뜻이 이상해진 것도 있다 등. ◎남북한말 고르기: 학습자료의 학습지 이용	*북한말의 좋은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남한말, 북한말 고르기

학년 반 이름()

◎ 다음 단어 중에서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에 ○를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에 □표를 해보세요(교과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투수	괘법	
해방처녀	치약	미혼모	납작뭇
	넘는사람	만균	납총각
	동강옷	건달	나리뭇
도시락		이뒹기약	드레스
두벌자식	균깡그리죽이기		
암계장	중앙으로뛰어차기	늦기음	
	마가음	센터링	아간경기
손자		등불경기	닭공장
건달			
느낀 점			

<학습지 2>

남북한의 방송에 나타난 남북한간의 공통적인 말과 차이나는 말 찾기

학년 반 이름 ()

* 남한과 북한의 방송을 보고, 남한과 북한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과 차이나는 말을 찾아봅시다.

남한 방송의 내용	북한 방송의 내용
같은 말과 그 성지	다른 말과 그 성지

(*남한의 보도자료는 주요언론기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으며, 북한의 보도자료는 '한국방송공사 뉴스 홈페이지 www.news.kbs.co.kr'이나 '중앙일보통일네트 www.nkjoins.com⇒사진/동영상⇒조선중앙TV방송'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마. 참고자료

① 표준어와 문화어

- 표준어 :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 문화어 : 평양말을 중심으로 하여 평안도, 함경도의 방언을 고려하여 만든 말.
- 문화어 제정의 배경 : 북한이 문화어를 새로 규정한 데는 그들의 언어관이 전제되어있다. 북한은 언어를 사상교환의 수단, 혁명·건설의 중요한 무기로 보는 유물론적 언어관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은 1966년부터 비혁명적·비문화적 요소를 정리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화어’라 부르는 표준어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되었기에 문화어는 다소 공격적이고, 피아를 명확히 구분 짓는 적대적 용어와 어법으로서 혁명성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내포되어있다.

②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한자어를 고친 낱말

표준어	문화어	표준어	문화어
해조류	바다나물	멸균	균깡그리죽이기
양계장	닭공장	치약	이닦기약
탑의실	옷벗는 칸	건반악기	누르개악기
압정	남작못	각선미	다리매
육교	어김다리	한지	조선종이
미혼모	해방처녀	계모	후어머니
외출복	갈음복	냉수욕	찬물미역
건인선	끓배	미숙아	달못찬아이
손자	두벌자식		

엮리는 통입 신나는 미래

㉞ 외래어를 고친 낱말

표준어	문화어	표준어	문화어
헬리콥터	직송비행기	샤워실	물맞이칸
주스	과일단물	로터리	도는네거리
노크	손기척	키튼	창문주름막
코너킥	구석차기	원피스	달린옷
도너츠	가라지빵	레코드	소리판
분필	원주필	파스텔	그립분필
알루미늄납비	납쟁개비	모자이크	쪽무늬그림
드레스	나리옷	투피스	동강옷

㉟ 생활용어

표준어	문화어	표준어	문화어
화장실	위생실	살립	집안거두매
도시락	과밥	팬찮다	일없다
농담	진말질	허풍	핑풍
어립집작	어방치기	건달	날총각
가끔	가담가담	늦가을	마가을
뜰창코	반딱코	그늘	늘쪽
쟁기	가대기	반찬	식찬
매운바람	칼바람	이해	료해

㊱ 체육용어

표준어	문화어	표준어	문화어
코치	지도원	마스게임	집단체조
골키퍼	문지기	코너킥	모서리볼
야간경기	등불경기	서브	던지기볼
프리킥	발차기	센터링	중앙으로찍어차기
투수	넣는사람	스파이크	순간타격

③ 그 밖의 언어 차이의 사례들

- 사회주의 신조어:
 밥공장 ⇒ 밥을 사가는 곳, 149호 대상 ⇒ 불순분자
- 적개심 고취 용어 : 승냥이, 주구, 원수
- 노력착취 용어: 평양속도, 천리마운동, 충성이 사회주의 경쟁운동

④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의 비교

맞춤법(남)		규범집(북)		맞춤법(남)		규범집(북)	
은 점	.	점	.	소 관 호	()	쌍 관 호	()
물 음 표	?	물 음 표	.	중 관 호	{ }	대 관 호	{ }
느 낱 표	!	느 낱 표	?	대 관 호	[]	격 외 관 호	[]
반 점	,	반	!	줄	—	끝 이 표	—
가운데 점	.	×	,	붙	-	이 음 표	-
쌍 점	:	두	점	물	~	물	결 표
빗금	/	빗	:	드	° , ·	밀	점
큰 따옴표	“ ”	선	/	러	넵 표	숨	김 표
(깃낫표)	『 』	인	◇	숨	김 표	숨	김 표
작은 따옴표	‘ ’	용	◇	빠	김 표	×	김 표
(낫 표)	『 』	×	◇	줄	김 표	줄	입 표
		거듭인용표	◇	×	반	두 점
		×		×		갈	음 표

* ×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7. 북한의 명절

가. 학습개요

남한에서의 명절은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 온 축일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 명절은 국경일·기념일·전통민족명절 등을 총칭하고 있는데, 이 중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적 명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전통 민족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추석 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에 성묘를 허용하였고, 1988년 이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 노력 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선진적 조치로 보인다.

본 재제는 남한과 북한에서의 명절의 이러한 개념 차이를 아동들이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

나. 학습목표

- 북한의 명절과 남한의 명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안다.
- 북한의 명절의 특성을 통하여 북한사회의 성격을 이해한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역할놀이 수업모형)

· 학습자료

교사: 학습지, 비디오자료, 인터넷, 프로젝션TV.

학생: 역할놀이 도구

학습 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목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추석에 관한 비디오 감상하고 느낌이야기하기. (* 관련비디오자료는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cdugo.kr ⇒ 동영상자료'에서 3분분량의 자료를 구할 수 있음) ◎학습문제 파악하기: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30-31쪽을 보고 학습문제 파악하기. · 북한의 명절에 대해 알기. · 역할놀이를 통해 남한의 명절과의 차이점을 알기. 	*비디오 자료
진개	역할놀이 상 황 의 설정 역할놀이 참 가 자 선정 역할놀이 의 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서 30-31쪽을 보면서 북한의 명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 북한의 명절에는 국가경축일, 국제기념일, 민속명절이 있고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날이다. ◎북한의 명절과 관련하여 역할놀이를 하여 봅시다. 어떤 상황을 역할놀이로 할 수 있을지 생각하여 봅시다 · 통일전 남한의 어린이가 북한의 명절날에 여행을 가게 되어 일어난 일 · 통일전 북한의 어린이가 남한의 명절날에 여행을 가게 되어 일어난 일 · 통일이 된 후 남북한 이웃사촌의 명절을 보내는 모습 등 ◎각 조별로 남북한의 명절과 관련하여 역할놀이 참가자 정하기 ◎역할놀이의 자세: 역할놀이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관람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학습지 '나도 연극평론가' 활용) ◎각 조별로 선택한 주제로 남북한의 명절과 관련한 역할놀이 연습하기 ◎조별 역할놀이를 발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자료 확인 (북한의 명절) *역할놀이 상황은 아동들이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한의 명절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다양한 내용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한 조가 끝나면 시간 안배를 해서 다른 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리	역할놀이 의 토론 과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연된 역할놀이 참가자들의 소감을 듣기. · 각 조별 주제로 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소감을 들어 본다 ◎역할놀이를 참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북한의 명절에 대해 알고 우리의 명절과 비교하여 봅시다 · 북한의 명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기념일·전통민족명절 등이 있다 · 북한의 명절은 우리와 어떤 것이 다른가? · 북한의 명절 중에 김일성·김정일 생일날이 최대의 명절이다 ·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남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 남북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서로 다르게 지내는 명절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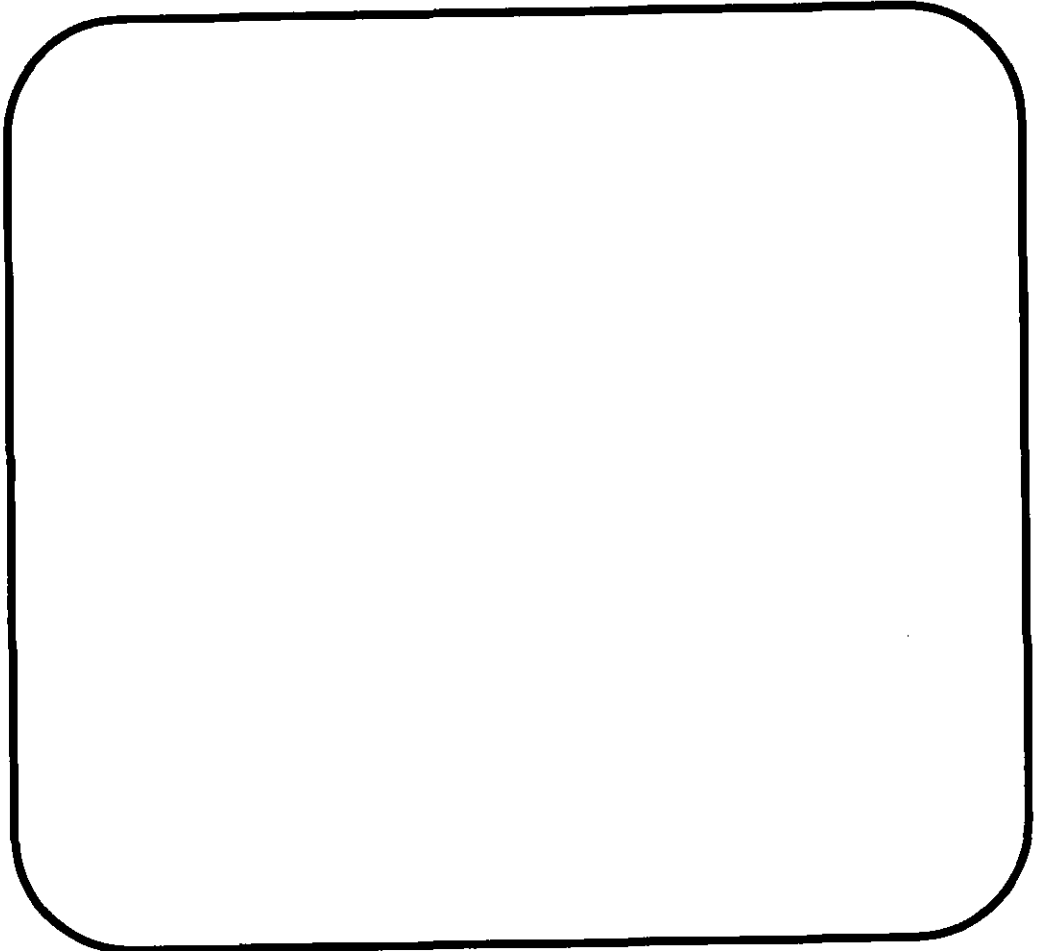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편지를 써요

학년 반 이름 ()

*북한에 친척이 있는 이산가족이라고 가상하고 명절날에 하고 싶은 말을 편지글로 써 봅시다.



<학습지 2>

나도 연극평론가

학년 반 이름 ()

*친구들이 보여준 역할극을 보고 난 후 적어 봅시다.

인상에 남는 역할극조의 이름과 맡은 역할	
잘된 점/잘못된 점	
내가 만약 역할극에 참여한다면	
역할극을 보고 느낀 점	

*남한과 북한의 명절에 대해 알아보고 적어 봅시다

	북한 명절	남한 명절
특징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명절

북한에서의 명절은 국경일·기념일·전통민족명절 등을 총칭하고 있는데, 이 중 김일성·김정일 생일 등 국가적 명절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왔으며 전통 민족명절은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되어 왔다.

그러나 1972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추석 때 인근에 조상묘소가 있는 경우에 성묘를 허용하였고, 1988년 이후부터는 추석을 휴식일로 정한데 이어, 1989년부터는 음력설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인정, 민족 고유명절을 부활시켰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전래명절의 부활이라는 측면보다는 과도한 주민 노력동원 등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해외교포들의 북한방문이 집중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취한 일련의 선전적 조치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명절은 소위 9대 국가 명절과 4대 민족 명절로 나누어 볼 수 있다. 9대 국가명절은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창건일, 노동당창건일 등 김부자 우상화 및 체제선전에 맞추어 지정하고 있고, 4대 민족명절은 음력설을 비롯하여 한식, 단오, 추석 등 우리 전래의 민속절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명절의 경우는 휴무일로 지정하고는 있으나 휴무일을 전후한 일요일을 대신 선정하여 보충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대휴'라고 일컫고 있다.

북한의 명절은 전래명절 부활추세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부자 우상화를 위해 새로 설정한 소위 '사회주의 명절'에 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김일성부자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예술공연,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김일성 사망 후에도 생존시와 같이 김일성 생일기념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명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국가 명절 및 민족명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족명절	
설 날		1.1	2일 연휴(1.2은 휴무일)
음력설날		1.1(음)	휴무일
김정일생일	2. 16		2일 연휴(2.17일은 휴무일)
국제부녀절	3. 8		
한식		4. 6	휴무일
김일성생일	4. 15		2일 연휴(4.16일은 휴무일)
국제노동자절	5. 1		
단오		5. 5(음)	휴무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 27		
해방기념일	8. 15		
추석		8.15(음)	2일 연휴(8.16은 휴무일)
정권창건일	9. 9		
노동당창건일	10. 10		
헌법절	12. 27		
계	9회	5회	총 14회, 18일

한편 북한은 30여 개에 달하는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들 기념일은 해 당부문 종사자들끼리 모여 생산을 독려하거나 노력동원의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참고로, 북한 기념일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기념일>

행 사 명	일 자	구 분
기 계 절	2.20	공 휴 일
농업근로자절	2.5	
어 부 절	3.22	
보 건 절	4.5	
식 수 절	4.6	
체 신 절	4.8	
조선인민군창건일	4.25	
철 도 절	5.11	
지 질 탐 사 절	5.15	
건 설 자 절	5.21	
국 제 아 동 절	6.1	
조선소년단창단일	6.6	
지 방 공 업 절	6.7	
광 부 절	7.1	
탄 부 절	7.7	
임 업 근 로 자 절	8.10	
공 군 절	8.20	
청 년 절	8.28	
도 시 경 영 절	9.5	
교 육 절	9.5	
상 업 절	9.15	
금 속 노 동 자 절	10.9	
방 송 절	10.14	
체 육 절	10월 둘째일요일	
방 직 공 업 절	10.15	
출 판 절	11.1	
육 해 운 절	11.16	
화 학 공 업 절	12.6	
군 수 공 업 절	12.12	
총 기 념 일 수	29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② 북한의 민속놀이

남한의 경우 각각의 민속명절마다 다양한 민속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우는 전래의 민속놀이는 거의 소멸되었으나, 민속명절의 부활과 함께 1990년부터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각종 정치학습과 생활총화에 쫓기는 관계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TV방송, 라디오 등 보도매체를 통해 선진차원에서 민속놀이를 소개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농악은 노동절이나 정권창건일 등 특별한 기념행사 때 극장 또는 야외에서 공연되며, 널뛰기는 곡예의 한 종목으로, 그네뛰기와 환쏘기는 민속체육의 경기종목으로 전환되는 등 형식화되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각종 명절에 그저 형식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통해 조상의 숨결을 느끼면서 흥겹게 즐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의 민속놀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의 민속놀이의 변형>

시 기	내 용
6·25전쟁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민속놀이 존속 - 그네, 씨름(단오) - 널뛰기, 윷놀이, 연날리기(음력설) - 농악무, 북청사자놀이, 봉산탈춤 등
195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놀이 일부가 생산성 제고 수단으로 활용 - 농악을 행사에 이용(5·1절, 8·15 등) - 노동자의 놀이로서 씨름, 그네, 줄다리기 장려
196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형태로 변형 - 군중적 집단놀이로 변형 - 환쏘기 등을 계급교양과 결부(표적은 미군) - 씨름, 그네를 '민족경기'로 채택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8. 북한의 교통수단

가. 학습개요

남한의 교통수단은 그 수용능력에 있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자동차를 예로 들더라도 1965년에 남북한 모두 4500-5000대 정도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던 것이 2000년에는 남한이 약 1,206만대, 북한이 26만대로서 약 4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제한받는 사회 제도와 경제적인 어려움,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해 교통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반면, 남한에서는 오래전 사라진 교통수단도 있다.

본 제재는 어린이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교통수단의 비교를 통해 북한의 생활모습의 일부를 이해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나. 학습목표

- 북한의 대중교통 수단을 안다.
- 북한과 남한의 교통수단의 차이점을 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수업모형: 개별학습+인터넷활용수업)

· 학습자료

교사: 실물화상기, 인터넷 활용 가능한 교실, 프린터기.

아동: 풀, 가위, 싸인펜 등.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학습단계	지도내용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및 참고자료
도입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p>◎동기유발: 평양시내의 전기버스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그림인지, 어느 나라의 교통수단일지 이야기해 본다.</p> <p>◎학습문제 확인: 『얼리는 뚝인 신나는 미래』 해당쪽을 읽고 학습문제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사회의 교통수단 알기. · 남한의 교통수단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p>*북한교통수단 그림은 인터넷 사이트 http://www.sesri.re.kr에서 구할 수 있음.</p>
진개	탐구주제 제시 학습방법 안내 탐구활동 하기	<p>◎탐구주제 정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시내버스의 모습과 이용 현황 · 북한의 궤도전차의 모습과 이용 현황 · 북한의 지하철 모습과 이용 현황 · 북한의 택시의 모습과 이용현황. · 기타 여객선, 유람선, 목탄차 등. <p>◎학습방법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적 또는 2인 1조 등 학교 상황에 맞게 자리를 배치한다. -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되,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게 유도한다. - 관련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조사한 자료는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하되, 사진 자료 등은 출력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p>◎탐구의 실행</p>	<p>*개별적인 인터넷 활용수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리 과제를 부여하여 자료를 조사해 오도록 한다.</p> <p>*학습자료의 <학습지> 활용가능.</p> <p>*아동들의 학습정리는 어려운 용어를 무조건 베끼거나 그대로 출력하여 이용하지 말고, 자신이 이해한 용어로 재구성하도록 주의시킨다.</p> <p>*관련 인터넷사이트는 www.nk.joins.com 등, 신문사 홈페이지참고. 사진과 설명이 제시되어 있음.</p>
정리	탐구결과 발표하기 학습결과 정리하기	<p>◎학습결과 발표 및 부족한 내용 보충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결과에 대해 발표하기: 실물화상기 등을 이용하여, 주제별로 1-2명 정도씩 결과를 발표한다. - 발표내용 토의하기 <p>◎ 학습결과 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교통수단과 남한의 교통수단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차이점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본다. - 남북한 교통수단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p>*교사는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발문 등을 통하여 정리해 주도록 한다.</p> <p>*아동들의 개별학습지를 진시하면 학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임.</p>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남북한의 교통수단

학년 반 이름 ()

◎ 자신이 선택한 학습주제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학습주제	
검색어	
사이트	
조사내용 (모양,특징, 이용상황)	
느낀 점 (좋은점이나 문제점)	

◎ 북한의 교통수단과 남한의 교통수단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 남북한 교통수단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남한 교통수단의 문제점	북한교통수단의 문제점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여러 가지 교통수단

- 시내 버스
 - 평양 시내에 40여 개의 노선이 있으나, 기름 절약을 위해 많이 다니지 않는다.
 - 무궤도전차의 보조 교통 수단으로, 평양에서 인접군을 갈 때에 주로 이용한다.
- 무궤도전차
 - 전기(600~650V)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버스로 소음이 적고 배기 가스가 없다.
 - 지하철이나 궤도전차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든다.
 - 대형은 100명, 소형은 50명 정도 수송하며, 평양, 함흥, 강계, 평성 등 주요 도시 지역에서 대중 교통의 주역할을 담당한다.
 - 궤도전차는 기차처럼 레일 위를 달리는 것으로, 1990년대에 평양에 건설하여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 지하철
 - 지하 100~150m에 건설하여, 북한주민들이 흔히 '지하 궁전'이라고 부름
 - 북한에서는 평양에만 있는 지하철은 총 34km로, 남북 노선과 동서 노선에 모두 17개의 역이 있다. 모든 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 택시
 - 1987년 '세계 청소년 학생 축전'을 계기로 일반 운행을 시작하였다.
 - 기본 요금 6원, 1km 주행에 1원이 가산되어 요금이 매우 비싼 까닭에 일반 주민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 일반 주민들은 화물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
- 시외 버스
 - 평양과 신의주, 원산, 만포, 사리원, 남포 등 주요 도시간에 운행된다.
 - 도로 사정이 나빠 운행 횟수가 많지 않다.



< 평양 시내 전기버스 >



< 평양 지하철 >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sesri.re.kr>)

② 독특한 북한 자전거 문화

북한 당국은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널리 장려해 왔으며 99년부터는 평양시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신설하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을 통해 수시로 자전거 이용의 장점과 운행 요령 등을 보도하고 있다. 북한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못했고 자가용 승용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전거를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자전거가 가장 좋은 선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자전거 이용에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

- 우선 여성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99년부터 우리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을 금지하였는데 실제로 99.5월 북한 중앙TV는 「평양의 미풍을 잘 살려 나가자」 라는 교양프로에서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멋에 겨워 여성들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아주 꼴불견이며 혁명의 수도 평양의 풍치를 상실하게 한다"고 방송한 바 있다.
- 또 하나는 자전거 면허증과 자전거 번호판이다.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민보안성(경찰청)에서 자동차 면허시험처럼 일정한 운전 및 교통안전

시험에 합격한 후 번호판을 부여받아야 한다. 면허증 제도는 97년 평양에만 실시하다가 9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면허증 미소지, 분실, 교통위반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은 지름 9cm 정도의 원형 백색 철판에 적색 글씨로 표기되며 위에는 지역 명칭을 쓰고 아래에는 일련번호(예: 2-34)를 표기한다.

한편 북한 당국은 자전거 운행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9.12 노동신문 보도)

- 도시에서 자전거는 도로표식에 따라 정해진 길(우리의 자전거 전용도로)로만 다녀야 한다. 자전거 길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 오른쪽으로부터 1m 안으로 다녀야 한다.
- 자전거는 한사람만 타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교통지휘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끌고 가야 한다.
- 제동장치와 종(경적)이 없는 자전거는 타지 못하며 가로등이 없는 길로는 조명등이 없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다.
- 차가 다니는 길에 자전거를 세워둘 수 없으며 술을 마신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이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전거 가격이 북한돈으로 1만원 정도 하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 월 100-150원인 상황에서 큰돈이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9.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

가. 학습안내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의 존재에 관해 그저 이웃 나라의 어린이쯤으로 생각하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단원은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어린이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북한의 어린이들도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 설정 이유가 있다.

북한 인민학교의 학제와 학사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학교 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인민학교 학생들의 하루 동안의 학교 생활을 소개함으로써 멀게만 느끼던 북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남과 북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한 뿌리'임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학습목표

- 1)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다.
- 2) 남한과 북한의 어린이들은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료

교사 : 인민학교학생들의 생활모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학습지

학생 : 도화지, 싸인펜, 크레파스, 펀치, 끈, 가위, 풀, 사진 등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학습 단계	지도내용	교수 - 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p>동기유발</p> <p>학습문제 확인</p>	<p>◎북한 인민학교의 모습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비디오테잎 • 붉은 전사로 자라나는 아이들 (남북문제 연구소) • 통일의 길 '5.북한의 학교 생활'(외교국방 연구소) • 내가 체험했던 인민학교 이야기 (새싹 통일 문제 연구소) • 관련인터넷 사이트 www.uniedu.go.kr (통일꿈나무 클릭) www.sesri.re.kr(통일교육) <p>◎느낀 점 말하기</p> <p>◎북한어린이들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찾아 보기로 한다 <p>◎북한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알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질문 내용은 칠판에 적어두거나 종이에 적도록 하여 모아둔다. • www.sesri.re.kr의 시청각 자료에 북한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모습이 담겨있음
진 개	<p>북한어린이들의 학교생활 알기</p> <p>남한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소개하는 자료 제작</p>	<p>◎'얼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쪽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1)완성하기 •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비슷한 점 찾아보기 •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과 차이점 이야기하기 • 북한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학교 생활 이야기하기 <p>◎남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분야를 한 가지씩 선택 • 분야는 모둠 수에 맞게 설정 (놀이, 하루동안의 학교생활안내, 여름과 겨울 방학, 운동회, 공부시간) • 각 분야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기 • 모아서 묶고, 표지 만들고 제목 붙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지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교과서를 보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게 한다. • 생활모습을 찍은 사진, 그림으로 나타내기, 시로 나타내기 등
정 리	<p>활동정리</p>	<p>◎반에서 만든 '남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책을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낼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보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고 발표하기 <p>◎도입단계에서 했던 질문에 답 찾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 • 교사가 알고 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을 찾지 못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하고, 이때 관련사이트도 알려준다.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남한과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비교해 보요!!

	남한	북한
학교명칭		
다니는 기간		
방학		
새학기시작		
시험		
운동회		
느낀 점		

마. 참고자료

① 북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

북한은 교육에 대한 이념과 목표를 「사회주의 헌법」과 「어린이 교육보양법」 등에 각각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고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 교육이념을 ‘인민을 김부자에 충직한 혁명투사로서 혁명화·노동계급화·인테리화·공산주의자로 키우는 것’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76년에 채택한 「어린이 교육보양법」에서는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명시하여 교육목표가 어린이들을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육성하는데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이념과 목표에 따른 구체적 지침으로는 김일성이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한 연설, 교사와 명령을 일정한 체계에 맞추어 '77.9.5 공포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들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사상, 문화교양의 거점’으로 정의한 것이며, 교원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로 명시한 것이다.

북한의 교육은 이러한 이념과 목표에 따라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하여 노동계급 의식을 교양시키며, 자본가 계급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계급투쟁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그리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칠 것을 교양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헌신과 봉사정신을 주입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의 이름하에 노동 및 생산실습과 연관되는 학습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키우고 혁명성을 단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② 인민학교 교육 내용 및 과정

인민학교에서는 어린이를 체제에 충성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한다는 교육 목적에 따라 김부자 교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정치사상 교육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수업과정은 당과 수령의 교육지침에 의해 만들어진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주입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매년 교육성이 내려 보내는 당과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에 기초하여 작성된 「교육강령」에 따라 교원들은 ‘교수 안’(수업지도안)을 작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교수 안’이란 교과서마다 보다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정답과 해설식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교육강령」은 ‘과정안’과 ‘교수요강’으로 구분되어 있다. ‘과정안’은 학과목과 목적, 학년별 배열, 시간배정, 교수형태, 학업진행계획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수요강’은 학과목의 교수방법, 학과목의 장, 항목의 체계와 내용구성, 중심적 개념, 법칙, 원리, 원칙, 교수 제목별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교육강령」은 우리의 교육과정에 해당되며, ‘과정안’은 교육과정 총론에 해당되고, ‘교수요강’은 각론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겸비한 것과 비슷하다.

교과지도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제시된 사회주의 교육학 원리에 기초한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설명, 토론과 논쟁, 문답을 이용한 방법과 추상적 사고능력이 부족한 인민학교 학생들에게는 사진, 그림, 도표, 지도, 모형 등의 ‘직관. 실물교육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행한 「백과전서」라는 사전에는 ‘깨우쳐 주는 교수방법’에 대하여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업현장에서는 학습자료 등의 부족으로 교과지도를 하는데 있어 김일성에 관한 문헌을 원문 그대로 읽고 암기하는 ‘원문통달식’ 방법과 교원이 불러주고 학생

이 받아쓰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학습활동과 실생활의 연관, 교육과 노동의 결합 등의 명분으로 학생들을 채집활동에 동원하고 있다.

③ 인민학교 교과서 종류 및 내용

인민학교 교과서는 총 10개의 교과목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 시절, 공산주의 도덕, 국어, 수학, 력사,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미술) 등이다.

교과서는 옥수수 껍질 오사리를 원료로 만든 종이에 낙후된 인쇄기술로 만들어서 조잡하며, 글자도 잘 보이지 않는 형편이다.

교과서 내용은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먼저 나온후 학습내용이 제시되는 등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어 : 각 학년 제1과에는 김일성 찬양시와 '김일성과 어린이'에 얽힌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전체 단원 중 40%이상이 김부자 찬양에 관한 내용
- 수학 : "위대한 김일성원수님이 태어나시어 혁명의 큰 뜻을 세우신 만경대로 학생 336명이 견학을 가는데 한 대에 48명이 탈수 있는 버스 몇 대가 필요한가"라는 유형의 문제 등 김부자 찬양 내용 수록
- 음악 : 각 학년 제1과에는 김일성 찬양 노래, 제2과에는 김정일 찬양 노래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노래가사의 50% 이상이 김부자 가계 우상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북한 교과서는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실려있고 또 김일성·김정일의 지침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권당 10~50전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그나마 물려받는 교과서까지 포함하여도 공급량이 부족하여 전체 물량의 85%만이 배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과서 인쇄는 교육기자재총국에서 총판하여 각 도·시·군에 공급하여 왔으나 '95년부터는 도·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인쇄하라는 지시에 의해 지방별로 인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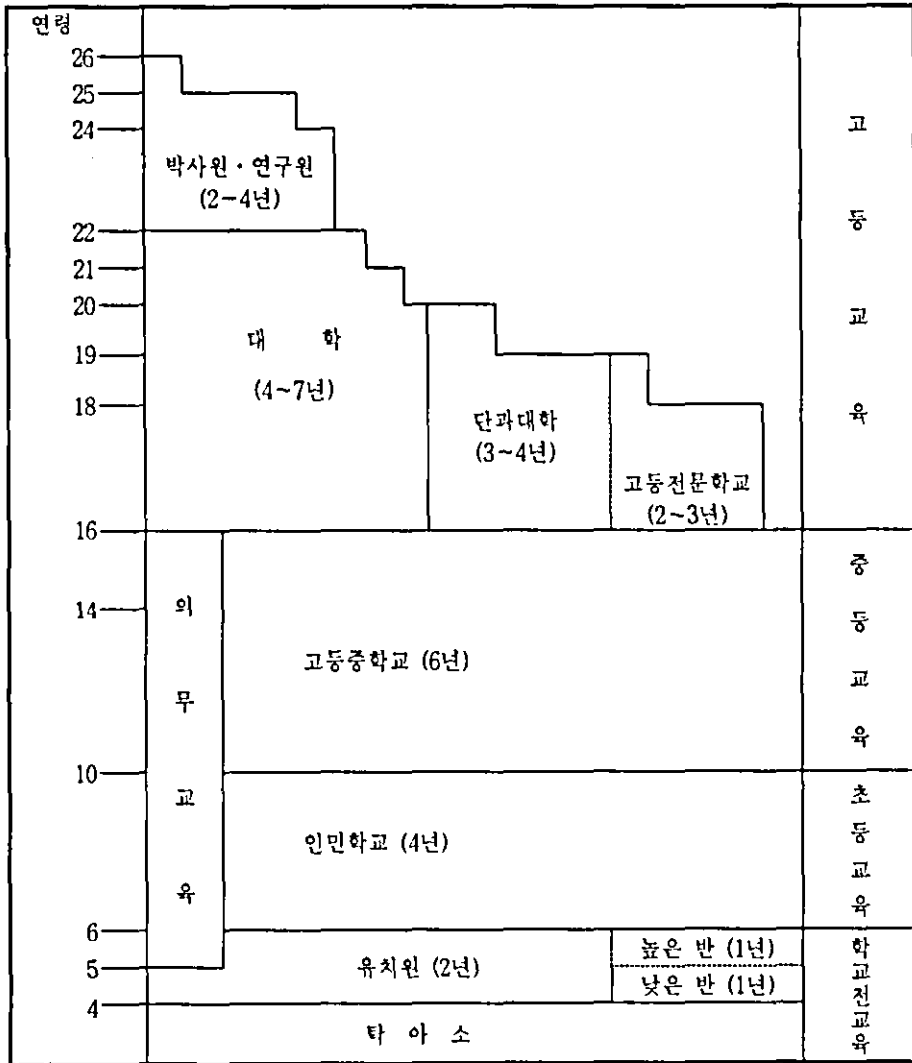
(*출처: 통일부, 「북한어린이들의 교육과 생활」)

④ 통일관련 아동 서적

- 논리로 떠나는 한반도 통일 여행 (고승우)
- 백두산 우체국 한라산 우체부 (강봉학)
- 꽃별이와 함께 보는 북한 이야기 (김우일)
- 이룬이와 함께 보는 북한 이야기 (김우일)
- 북동이와 함께 보는 북한 이야기 (최성수)
- 풍습으로 본 북한 주민 생활 (공보처)
- 똥판지 북한 탐방 (박영규)

⑤ 북한의 교육체계

교육 체 계



(*출처: 통일부, 「2000, 북한개요」)

* 북한은 2002년도 새 학기란 맞아 신문·방송 등의 보도매체를 통해 기존의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학제변경 여부에 대해 보도된 내용은 없으며, '중학교'의 경우 중진의 고등중학교와 같이 6년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⑥ 북한학생들의 그 밖의 학교생활에 대한 이모저모

1) 북한에서는 초등학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인민학교

2) 남한의 새 학기는 3월 1일입니다. 북한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4월 1일

3) 북한 어린이들은 교복을 입을까요?

북한의 어린이들은 학교에 등교할 때 반드시 교복을 입어야 합니다.

학교 규찰대가 있어서 교복을 입지 않았거나 옷이 꾸깃하다거나 지저분하면 혼이 납니다. 또한 규찰대는 시내 곳곳에서 학생들 교복을 비롯해 김일성 배지, 소년단 넥타이를 잘 착용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보고한답니다. 교복의 모양은 학교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북한 전역의 학교가 똑같다고 합니다. 남학생은 흰 셔츠에 진한 감색 바지를 입고, 여자 아이들은 하얀 블라우스와 멜빵 달린 감색 치마를 입으며 머리에 빨간 리본을 매기도 합니다.

4)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북한에서 인민학교 1,2학년 때에는 퀴즈 이외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특별히 없고, 3학년 때부터 학기말 시험과 학년말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시험을 따로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 인민학교에는 낙제라는 것이 있어 시험을 잘 봐야 하는데, 낙제를 받아 상급학년으로 진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학 때 재시험을 통해 진급한다고 합니다.

5) 북한 어린이의 학예회는?

학예회(예능발표회)는 김정일 총비서가 “전국 교육일군 열성자 대회”에 보낸 서한

인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킨데 대하여」 발표 기념일(7. 22)에 실시한다고 하며, 합창·무용 악기 연주 등 전국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학교에서는 운동회나 예능발표회를 위해 1~2달 전부터 선생님과 학생들이 함께 열심히 연습한다고 합니다.

6) 배우는 과목은 무엇인가요?

북한의 모든 교과과정은 정치 사상 교육과 기술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민학교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경애하는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시절”, “공산주의 도덕”, “국어”, “수학”, “자연”, “음악”, “체육” 등 모두 12개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7) 등·하교하기

북한에서는 집단적인 단체 활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침 7시에 집 주변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진 대열을 만든 뒤 노래를 부르며 학교에 갑니다. 오후 6시면 하교하는데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집단을 이루어 움직이고 있다

※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www.unikorea.go.kr/ 자료실/ 통일부발간물. 26) 북한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10.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활동

가. 학습안내

북한은 과외활동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사용하는 과외활동이란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나 북한은 혁명인재의 양성과 노력 동원을 위한 조직활동이 주가 된다.

이에 본 단원에서는 북한 학생들이 어떤 내용으로 과외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러한 과외활동을 통해서 북한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데 설정이유가 있다.

나. 학습목표

- 1)북한 어린이들의 과외활동을 알 수 있다.
- 2)북한에서 과외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알 수 있다.
- 3)우리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료

교사 : 학습지

학생 : 특기 발표할 때 필요한 준비물
(각자 준비)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퀴즈를 풀면 북한이 보인다!

학습 단계	지도내용	교수 - 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X퀴즈풀기 • 퀴즈문제는 참고자료 참고 • 학생전체가 교실 앞에 나와 퀴즈대회를 실시하여 틀리는 학생은 제자리에 앉도록 한다 ◎북한어린이들의 과외활동을 알아보자 •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특별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수예부, 공작부, 모형항공기만들기부, 피구부, 배드민턴부, 삼화부 등) • 북한에도 우리와 비슷한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p>퀴즈풀기를 통해 수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한다.</p>
전 개	북한어린이들의 과외활동 알기 북한의 과외활동 경험하기 과외 활동의 목적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쪽 읽어보기 • 학습지 하기(참고자료 참조) • 우리의 특별활동과의 차이점 말하기 특별활동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과외활동은 선택할 수 없다. 과외활동은 매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특별활동은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과외활동은 다양하지 않다. ◎북한 어린이가 되어서 일기 쓰기 • 사진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일기 쓰기 일기는 참고자료 ③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한다. • 발표하기 • 일기를 쓰면서 느낀 점 말하기 ◎북한의 어린이들이 과외활동으로 토끼 기르기, 파리 잡기, 사상학습, 과외체육 등을 하는 이유 생각해 보기. • 좋은 일하기 운동을 하는 이유 생각하기 • 소년단활동을 하는 이유 생각하기 • 주생활총화할 하는 이유 생각하기 ◎북한에서 과외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기 • 우리 나라 특별활동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말하기 • 북한의 과외활동의 목적과 관련지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 말하기 	<p>북한 어린이들의 과외활동을 '일기 쓰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p>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친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자신의 특기를 이야기하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 1) 북한에서는 외래문화가 범람하는 남한에 비해 유교적 전통을 잘 지키려 한다. 그래서 북한에는 족보가 잘 보존되어 있다?
- 2) 북한에서는 연애결혼은 없고 당이 맺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 3) 북한에서는 극장에서 암표를 파는 사람이 없다?
- 4) 북한의 학생들도 과외를 받는다?
- 5) 북한에도 노래방이 있다?
- 6) 북한에도 복권이 있다?
- 7) 북한사람들이 가장 즐겨먹는 김치는 통배추 김치이다?
- 8) 북한의 직장인들도 보너스를 받는다?
- 9) 북한 TV에서도 코미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 10) 북한에도 땡땡이가 있다?
- 11) 북한에서는 빵개플 수업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다?
- 12) 북한의 국보 제1호는 김일성 동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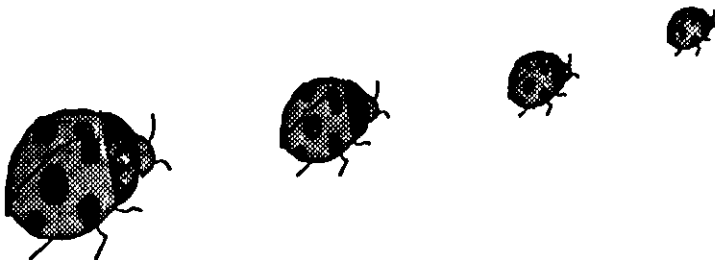
<학습지 2>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넣으세요.

★ 보기 ★

혁명인재, 인민학교, 소년단, 유녀대, 생활총화, 특별활동, 과외활동, 광
밥, 얼음보숭이, 딱친구, 노력동원, 대청소, 사상학습, 컴퓨터게임, 초등
학교, 과외체육, 피구,

- 북한의 ()은 혁명인재의 양성과 ()을 위한 조직활동이 주목
적입니다..
- ()학교 학생들은 2학년 때 ()에 입단하여 조직생활을 해야
하며, 여기서는 정치사상교양, 생산노동, ()등의 활동을 합니다..
- 과외활동내용은 요일에 따라서 월요일에는 (),
화요일에는 (),
수요일은 소조활동,
목요일에는 소년단의 날,
금요일에는 (),
토요일은 주생활총화를 실시합니다.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청소년 단체

북한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노동당을 비롯한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 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등 각종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제에 철저히 복종토록 교육·통제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청소년단체는 유일하게 「조선소년단」(이하 소년단)이라는 단체가 있다. 소년단은 '46.6.6에 발족, 청년조직단체인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에 소속되어 있다. 소년단의 발족 목적은 어린이들을 어릴때부터 사상교육과 조직생활을 통해 철저히 세뇌교육을 시켜 어른이 됐을 때 체제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반항 의식도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이른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 육성하는데 있다.

소년단원은 만 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인민학교 2학년이면 자동적으로 소년단에 입단하며, 만 15세인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년단에서 출단 되어 청년동맹에 가입된다. 따라서 입단대상은 만8세에서 15세로 한정되어 있다.

입단 방법은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 조직생활과 공부를 잘하는 이른바 「모범」적인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입단케 하는 1차 입단을 시작으로 매년 3차례에 걸쳐 입단식을 하고 있다. 모범학생 순서로 입단하는 1차 입단식(김정일 생일, 2.16)과 2차 입단식(김일성생일, 4. 15)에는 각 시·군 간부들이 참석하는 행사로 성대하게 진행한다. 반면에 1, 2차에서 탈락한 나머지 학생들이 입단하는 3차 입단식(소년단 창립일, 6.6)에는 각 학교단위 행사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단계적 입단형식 등을 통해 학생들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는데 입단한 학생들에게 소년단원임을 상징하는 삼각형의 붉은 넥타이를 매게 하여 늦게 입단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외감과 수치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모범소년단원들에게는 ‘중앙모범소년단원’ 표창을, 사상학습과 조직생활을 잘 하는 분단에게는 ‘영예의 모범분단’ 칭호를 수여하고 이들을 만경대(평양), 송도원(강원도 원산), 묘향산(평안북도 향산), 장자산(자강도 강계) 등지에 설립된 ‘소년단 야영소’에서 야영생활을 하도록 혜택을 주어 학생들 사이에 경쟁심을 자극시켜 충성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54년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평안북도와 함경남도 일부를 자강도로 변경하였다. 한편 각 학교의 소년단 조직관리는 각 시·군 청년동맹에서 1-2명의 ‘소년단 지도원’을 보내 맡고 있으며, 지도원은 각도의 사범학교에 있는 지도원 양성학과를 졸업한 사람 중에 선발된다. 수업은 전혀 맡지 않으며 순수 학생들의 조직생활만 지도하고 있다.

*출처: 북한어린이의 교육과 생활, 통일부

② 북한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

북한에서 방과 후 특별활동(특활)은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정치사상교양을 중시하는 교육노선에 따라 노동, 교과학습과 함께 정치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즉 학생들은 방과 후에 정치학습을 위한 총화 등을 하는 한편 교과목별로 ‘소조’라는 그룹을 만들어 학급반실에서 집단적으로 과목학습을 하고, 교육과 생산노동을 결합한다는 명분아래 수매사업에 참여하는 「꼬마계획」 활동이나 소년립가꾸기 등 생산노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학교에서는 매월 학생들에게 「꼬마계획」에 제시된 파지 및 고철 등의 수집을 요구하면서 별도로 학교지원명목의 시멘트, 페인트, 벽돌, 모래, 나무 등도 징수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을 제때에 바치지 못하면 충성심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어 물품을 구하기 위해 거리, 공장 등을 돌아다니고 있으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래서 부모들이 대신 할당량을 채우거나 돈으로 수매증을 사서 바치는 사례가 많아 원성을 사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해 어린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반복학습하며 응용력을 기르도록 하는 한편 사상을 단련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게 하고, 노동에 대한 숙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③ 총화와 북한의 체육

총화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판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지적 당한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전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규율준수 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강화, 사회주의 건설을 수행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교육은 "혁명과 건설,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55조에는 "국가는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인민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며, 우리나라실정과 현대 체육기술 발전 추세에 맞게 체육기술을 발전시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④ 생각해 보기 관련 자료(북한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

북한 어린이들이 희망하는 직업은 교양원(유치원 선생님), 당간부 등이다. 남자어린이가 가장 선망하는 직업은 인민군이나 안전원이며, 여자 어린이가 희망하는 것은 교양원이나 교원 또는 예술인이다.

⑤ 우리 나라 특별활동의 성격과 목표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교과와 특별활동의 두 영역으로 편

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교과는 지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의 인지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인간의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인간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이러한 교과학습만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학습자의 필요로부터 출발한 '교과 외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특별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이외의 활동으로 규정되었다. 특별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있으나,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특별활동은 바람직한 집단 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코자 한다. 특별활동은 다양한 자기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게 하여 자아실현을 돕고 여가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특별활동의 교육과정은 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⑥ <학습지 1>

답 : × × × ○ ○ ○ ○ ○ ○ ○ × × (북한의 국보 제 1호는 대동문)

11.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생활

가. 학습안내

북한에도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이 있다. 극장·체육관·도서관·소조 활동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생소년 궁전이나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놀이공원인 만경대 유희장, 능라도 유원지, 모란봉 공원 등이 있으나 이런 시설들은 간부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

이 단원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에도 만화영화가 있는지?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처럼 전자오락과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지? 일요일에는 교회나 절에 나가는지? 등 어린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내용을 다룬다.

우리 어린이들은 북한의 만화영화감상하기, 북한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경험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서로간의 생활과 관심사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나. 학습목표

- 1)북한어린이들의 여가생활을 알 수 있다.
- 2)북한어린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다.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료

교 사 : 북한놀이설명자료, 학습지, 북한만화영화사이트

학 생 :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의 캐릭터사진이나 그림, 싸인펜, 도화지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학습 단계	지도내용	교수 - 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p>동기유발</p> <p>학습문제 확인</p>	<p>◎뚝발 OX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에도 만화영화가 있을까요?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말해봅시다. • 북한의 어린이들도 만화영화를 좋아한답니다. <p>◎이번 시간에는 북한어린이들의 여가 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p>	
전개	<p>기본내용 학습</p> <p>북한의 만화영화 감상하기</p> <p>북한어린이들의 놀이 경험</p>	<p>◎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쪽 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어린이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일 말하기 • 북한어린이들이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 이야기하기 <p>◎활동1) 북한의 만화영화 감상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이야기하기 • 감상 진 태도 확인 • 우리 나라에 소개된 북한 만화감상하기 (www.uniedu.go.kr로 접속 후 통일꿈나무 중 북한에 애니메이션 클릭) • 감상 후 느낌 이야기하기 • 남북 만화 주인공의 캐릭터 그리기 <p>◎활동2) 북한어린이들의 놀이경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어린이들의 놀이 설명하기 (놀이 방법은 참고자료 참조) • 모둠별로 한 가지 놀이를 선택한다. (북한 어린이들의 놀이는 참고자료 참조) • 놀이 방법을 익히기 • 운동장에 나가서 놀이를 한다. • 남북한 어린이 놀이의 공통점 말하기 • 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 말하기 	<p>※만화영화감상과 북한어린이들의 놀이체협의 두 가지 활동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활동1)과 활동2) 중 한가지만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한다.</p>
정리		<p>◎활동1) 정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만화영화 제목찾기 <p>◎활동2) 정리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이 되어 북한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를 한다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기 • 서로 좋아하는 놀이를 가르쳐 주면서 사이 좋게 노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p>※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각한 놀이나, 상상한 장면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p>

라. 학습자료

<학습지 1>

만화영화 제목을 짝아라

학년 반 이름 ()

∞아래의 글자판에서 5개의 북한 만화 영화 제목을 찾아 표시해보세요.

소	년	나	구	리	개	미	사	은	진
년	가	호	랑	이	와	세	친	구	사
장	기	만	결	별	고	포	와	정	은
하	리	구	영	오	양	계	리	오	리
이	은	오	리	구	이	향	리	향	고
진	기	기	향	이	구	향	은	기	구
진	야	은	구	구	향	은	단	향	마
장	이	포	구	와	구	단	와	정	장
진	보	구	리	오	오	관	은	오	보
이	오	리	구	향	단	구	향	향	바
향	진	향	향	향	향	향	향	향	의
향	향	향	향	미	구	향	라	오	향

⇒ 정답) 소년장수, 영리한 너구리, 향기골에 온 감자, 호랑이와 세 친구, 빨간 개미가 날라온 꿀

마. 참고자료

① 북한의 만화 영화

• 북한 사람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이유

북한 대부분의 영화들은 김일성을 미화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주류이나 만화영화는 주로 우리 역사나 동물들을 주제로 재미있게 만들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만화영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만화영화가 방영되는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두 일을 멈추고 만화영화를 본다고 한다. 특히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에도 우리처럼 어린이 시간이 있어서 매일 10-20분 정도의 만화영화, 인형극, 문답풀이인 ‘최척박사’, ‘학교탐방’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은 외국 만화영화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평양사람들만 시청할 수 있는 만수대 텔레비전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외국영화와 함께 외국 만화영화를 방영하는데 이 중에서 북한 사람들은 영리한 생쥐와 멍청한 고양이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톰과 제리)를 아주 좋아한다고 한다.

• 북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만화영화

소년장수) 93년까지 총 35부까지 방영됐으며 현재 50부까지 나온 것으로 추정됨.

내용은 오랑캐가 침입해 온 시기를 배경으로 15세의 소년이 무술과 재주를 익혀서 임금이 인정하는 장수가 되어 오랑캐와 싸워 물리친 후 자신의 어머니와 애인,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영리한 너구리) 배가 볼록 나오고, 다리가 짧은 너구리가 생김새는 웃기지만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 동물로 등장하여 신체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머리를 써야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해줌.

토끼와 달리기 경주 중 높은 막대기의 높이를 재어 오는 경기에서 토끼는 줄자를 가지고 높은 막대기에 기어올랐지만, 너구리는 삼각자, 컴퍼스, 직선 자를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먼저 높이를 재어 돌아와서 경기에서 승리한다는 내용.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 우리 나라에 소개된 북한의 만화 영화

향기꽃에 온 감자

호랑이의 세 친구

령리한 너구리

빨간 개미가 날라 온 꿀

• 북한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텔레비전

TV방송은 전지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조선중앙TV」와 평양에서만 시청할 수 있는 「교육문화TV」 등이 있다. 어린이시간은 매일 10-20분 내외로서 만화영화, 인형극과 문답풀이인 ‘척척박사’, 학교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중 어린이들이 특히 선호하는 프로인 만화영화는 아동교육 영화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하고 있다. 내용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대남 적개심, 전쟁의욕 고취 등을 묘사하고 있다.

• 최근 방영된 만화영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애 국 심 : 소년장수, 무지개성에 깃든 전설

- 충 성 심 : 범을 타고온 소년

- 효 성 심 : 산삼꽃

- 적 개 심 : 까치와 여우, 다람쥐와 고슴도치

- 집단주의 : 제일 큰 힘, 개미와 꿀차

- 전쟁의욕 : 소년과 어영대장, 용감한 벌꿀 등.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은 저녁때까지 이어지는 학교생활 등으로 여가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TV를 보고 싶어도 칼라TV는 고사하고 흑백TV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 적기 때문에 만화영화 등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북한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책

북한은 서적을 ‘당과 인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주민들을 교양시켜 조직.

동원하는 ‘힙있는 무기’로 규정함에 따라 서적출판은 문예정책의 지침에 의거 대부분이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체제 찬양 등의 제한된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밖의 서적도 체제유지와 사상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하여 각종 심의과정을 통해 철저히 단속·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도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체제 찬양 등을 주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우리 어린이들이 읽는 세계명작동화 등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양의 독서를 의무화하고 있다.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은 교원이 학생들에게 읽을 범위를 지정한 후 ‘읽은 책 발표모임’, ‘감상문 작성’ 등을 통해 검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읽게 하는 이유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자본주의에 대한 증오심 배양 등 사상교양을 위한 세뇌수단으로서의 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 도서전문출판기관으로는 금성출판사가 있는데 김일성·김정일 우상도서인 ‘항일의 전설적 영웅’, ‘희세의 영장 김정일 장군’,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선생님’ 등을 출판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큰백과사전’, ‘수학올림피아드 참고서’ 등의 과학기술도서와 ‘학생과 예절’, ‘호랑이를 이긴 고슴 도치’, ‘토끼와 사자’, ‘신기한 수정구슬’ 등의 동화·우화·소설책들도 발행하고 있다.

이밖에 북한에는 20여개의 출판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조선로동당출판사, 외국문종합출판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고등교육도서출판사 등이다. 이들 출판사는 그 규모와 비중, 업무분야에 따라 당 선진선동부 직속 또는 해당 성·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들어 총체적 경제난으로 종이가 부족하여 출판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책이 부족하여 도서관에서 빌려서 돌려가며 읽는 실정이다.

③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북한의 어린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놀이는 제기차기와 공차기, 말타기, 기마싸움

이라고 합니다. 공차기는 매우 활기 있고 재미있는 운동으로 여럿이 모여 공차기를 하는 복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 토끼 찾기 놀이

1)참가 인원 : 10-15명

2)놀이 방법

→편을 가르지 않고 범과 토끼를 뽑는데 빙 둘러서서 돌, 가, 보를 할 때 미리 약속하고 돌, 가, 보 중에 어느 하나를 없앤 채 돌, 가, 보(가위, 바위, 보)를 하다가 없애기로 한 것을 내는 아이가 범이 된다. 이때 여럿이 실수를 했으면 실수를 한 아이들끼리 끝까지 돌, 가, 보를 해서 마지막 한 아이가 범이 된다.

→범은 한가운데 나와 앉아 눈을 가린다.

→범이 모르게 한 아이를 토끼로 정해 토끼는 범의 등을 쿡 찌르고 슬쩍 동무들 틈에 끼어 앉는다.

→“됐다!” 신호하면 범이 눈을 풀고 숨은 토끼가 누구인지 찾아낸다.

→토끼가 발각되면 가운데 나와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른다. 못 찾았을 경우에는 범이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어야 한다.

• 고양이와 쥐

1)참가인원 : 20-50명

2)놀이방법

→돌, 가, 보를 하여 맨 꼴지 아이는 고양이가 되고 1등을 한 아이는 쥐가 된다.

→나머지 아이는 두 명씩 짝을 지어 마주 보고 원둘레에 선다.

→고양이와 쥐는 원 안에서 시작한다.

→고양이는 쥐를 잡으려 하고 쥐는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짝을 지은 친구들 사이를 빠져 달아난다.

→쥐가 고양이한테 잡히려고 하면 쥐는 짝을 짓고 서 있는 아이들 틈으로 들어

가 선다.

→쥐가 마주 선 임의의 두 아이 사이로 들어갔을 때 쥐와 마주서지 않는 아이 (쥐의 등뒤에 있는 아이)가 쥐가 되어 고양이를 피해 달아난다.

→만약 고양이한테 잡히면 쥐는 고양이가 된다.

→두 아이 사이에 쥐가 들어가서면 쥐의 뒤 아이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 역할을 하던 아이가 쥐가 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줄넘기 놀이

1)참가인원 : 10-20명

2)놀이방법

→오래 넘기) 뽀죤(줄넘기 줄)을 준비하여 길게 늘어서서 “하나, 둘, 셋.....”구령에 맞추어 줄넘기를 하다가 줄에 걸린 아이는 그 자리에 서 있고 마지막 한 아이가 남을 때까지 계속 넘는다.

→외발 넘기) 한 발로 누가 줄넘기를 오래 하는지 겨루는 놀이로 왼발과 오른발을 바꾸어 가며 할 수 있다.

→꼬아 넘기) 오른 손과 왼손을 꼬아서 누가 많이 넘는가를 내기한다.

→두 번 뛰기) 누가 한 번에 2번씩 넘기를 많이 하는 지 내기한다.

→뽀죤뛰기) 아이들을 2-3조로 나누어 출발선에 세운 다음 뛰어가면서 줄을 넘으며 20-30m 앞에 있는 깃대를 돌아와 교대하여 어느 조가 빨리 끝나는지를 내기한다.

→셈세기) 아이들을 몇 개조로 나눈 다음 각 조마다 한 명씩 뽑아 다른 조의 심판으로 보낸다. 유희 조작자의 시작 신호에 따라 각 조의 첫 번째 아이부터 줄넘기를 시작한다. 이 때 심판원들은 소리내어 셈세기를 하며 줄이 발에 걸리면 멈추고 다음 아이가 계속 넘는다. 이렇게 하여 어느 조가 더 많이 넘었는가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 꼬리잡기 놀이

1)참가인원 : 20~40명

2)놀이방법

-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하나, 둘'로 번호를 반복하여 편을 가르다.
- 1번 학생들은 원 안에 서서 앞 아이의 허리를 잡고 한 줄로 선다.
- 원 밖의 편은 공을 가지고 시작 신호에 맞추어 원안의 꼬리 아이를 맞히려
고 한다.
- 원 안의 편은 꼬리에 있는 아이가 공에 맞지 않도록 이리저리 피하거나 가
로 막아선다.
- 원 밖의 아이들은 공을 서로 연락하면서 꼬리 아이를 맞춘다.
- 원 안의 아이들은 자기 주변에 공이 오면 손이나 발로 쳐낸다.
- 꼬리 아이가 공에 맞으면 죽은 것으로 되어 밖으로 나와야 한다.
- 허리가 끊어지면 끊어진 뒤 아이들은 다 죽은 것이 된다.
- 원 안의 아이가 다 죽을 때까지 계속하거나 혹은 시간을 정해서 안에 남아
있는 아이들 수가 많은 편이 이긴 것으로 한다

제 Ⅲ 장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1. 학습안내

2. 학습목표

3. 교수·학습 지도안

4. 학습자료

5. 참고자료

III.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1. 학습안내

통일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로 남아있다. 통일을 통해 남북한 사람들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50년 동안의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살아 온 이산가족들은 상봉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신장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통일의 주체가 될 아이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리라고 본다.

본 단원에서는 전쟁의 폐해를 통해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고, 남과 북이 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고자 한다.

2. 학습목표

- 1) 분단된 남북의 현실을 안다.
- 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3)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의지를 다진다.

3. 교수·학습 지도안

※학습자료

교사 : 말판, 이산가족상봉 모습 담은 비디오 테잎, 소포지

학생 : 말, 매직

학습 단계	지도내용	교수 - 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수수께끼 풀기 ◎여행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한 곳 중 기억에 남는 곳 이야기하기 • 방학이 되면 가고 싶은 곳 이야기하기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주겠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과 북한의 주요 문화제는 www.sesri.re.kr에서 볼 수 있음
전개	분단의 현실 알기 통일의 개념 및 필요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각거리1) 여행을 떠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로 관광지도 보고 주사위놀이하기 • 놀이방법) 관광지도가 말판이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말이 도착한 곳의 유명한 문화재를 확인 제주도 한라산에서 출발하여 백두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게임에서 이깁니다. • 관광지도에서 실제로 가 본 곳 이야기하기 • 가보지 못한 곳 이야기하기 • 그 곳에 가보지 못한 이유 생각하기 ◎생각거리2) 왜 이제야 만났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가족 상봉 모습 보여주기 • 무슨 장면인지 이야기하기 • 상봉 장면을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 • 한 가족인데도 50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이유 생각해보기 ◎생각거리 1), 2)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방법, 헤어진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 다양한 방법을 Brain-Writing하기 • 모둠별로 Brain-Writing한 소포지를 교실 앞으로 가지고 나와 붙이기 • 재미있는 생각, 가장 많이 나온 생각 찾아보기 • 삼팔선을 허물고 함께 사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 통일이 되었을 때의 좋은 점 이야기하기 ◎통일의 방법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해당쪽 읽고 올바른 통일의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각거리1)과 생각거리2)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 이산가족상봉 모습은 www.sesri.re.kr/통일교육/시청각자료에서도 볼 수 있음
정리	표어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가 생각하는 통일의 방법을 간단한 표어로 표현해 봅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며 수업을 마칩니다. 	

4. 학습자료

<학습지 1>

북한의 우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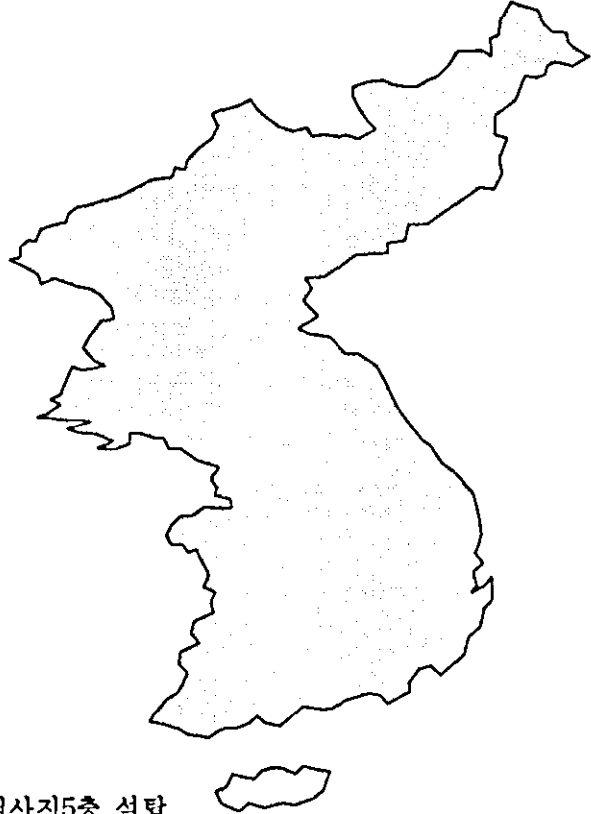
▶질문

1. 하루 세 끼 들면 날면 해도 밥 한 번 못 얻어먹는 것은?
2. 한평생 눈뜨장을 놓고 서 있기만 하는 것은?
3. 물레걸음(뒤걸음질)을 해야 이기는 것은?
4. 말 없어도 고상고상(구석구석)가르쳐 주고, 손 없어도 걸음걸음 이끌어 주는 것은?
5. 강떼(생떼)를 써야 얻어먹는 것은?
6. 손도 발도 없이 나들문(출입문)을 여는 것은?
7. 뽕은 뒤 도레미화부름(계명장)을 하는 것은?
8. 강보리밥(짚보리밥)에 뽕은 붉은 뽕은?
9. 남새(채소)중에 가장 수줍어하는 것은?
10. 피곤할 때 제일 그리운 것, 국밥(도시락)보다 더 맛있는 것은?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학습지 2> 말 판

*각 지역을 표시해주시고 아동들이 말을 옮기는 순서를
알 수 있도록 위치 차례대로 선으로 이어주세요



한라산에서 출발

부산 - 경포대

경주 - 불국사, 석굴암

공주 - 낙화암, 미륵사지 석탑, 정림사지5층 석탑

설악산

서울 - 경복궁, 덕수궁, 광화문, 남대문

평양 - 대동문, 보통문, 을밀대

묘향산 지구 - 단군사, 보현사

개성 - 선죽교, 만원대터, 박연폭포, 태조왕건릉

금강산

남포지구 - 삼묘리고분, 고구려벽화무덤

백두산에 도착

<학습지 3>

서 명 록

여러분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한다면, 서명을 받으세요

번호	관계	통일에 대해 나도 한 마디	이름 및 서명

5. 참고자료

① 남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이 조사는 1999년 통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78개를 선정하여 3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1)통일에 대한 의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연령이 낮아질수록 인식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에서 중학생 46.0%, 고등학생 56.1%, 대학생 73%, 사회교육관계자 80.0%로 나타난 것이다. 통일 예상 시기와 관련해서는 10년 이내가 41.6%로 가장 높았지만, 국토통일원이 90년초에 조사한 결과에 비해 줄어든 것이며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율은 늘어났다. 통일에 대한 의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통일 이후의 삶이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가 33.9%로 부정적인 태도 49.4%보다 적게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27.4%, 57.1%로 두 배이상 낮아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2)북한에 대한 의식

북한의 지도층, 경제상황, 식량서정, 인권 및 장래 문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평가를 했다. 북한의 지도층과 달리 일반 주민에게는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저 그렇다가 54.7%였다. 북한의 지도층을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주민은 동포의식을 갖고 대하는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②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통일비용이 엄청난 것이라는 지레짐작에 통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현재 우리가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으로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분단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쓴다고 생각해 보자. 게다가 통일 이후 예상되는 각종의 편익을 고려하면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주저한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체제통합 비용을 의미한다. 통일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은 경제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정치사회적·문화적 통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을 포함한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이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통일과정에서의 위기관리 비용·경제재건 비용·제도통합 비용·사회보장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통일비용은 단순 소모성 비용이라기 보다는 미래지향적·투자적 성격의 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 건설을 위한 투자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남북한에 모두 미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분단비용은 분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정서적 차원에서의 유형·무형의 모든 비용으로 소모적·대립적·갈등적 비용이다. 즉 분단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남북한이 부담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정치사회적 비용은 남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투여하는 엄청난 군비지출과 안보비용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전시체제형인 병영국가의 과중한 군사비 부담으로 경제구조의 파행과 주민생활의 피폐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분단은 남에서나 북에서나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고, 남북이 국제무대에 진출하여 나름의 역할을 하는 데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그 자체가 국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분단은 민족성의 정체성을 파괴하였다.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가슴 아픈 전쟁의 상흔은 남과 북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증오를 뿌리깊게 심어놓았다.

그밖에 전쟁위협,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심리적 억압,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분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루고 있는 비용이다.

통일의 편익은 통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함께 통일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그 자체가 미래재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는 통일의 편익을 검토함으로써 통일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적·민족적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조망하면서 통일을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은 엄청난 유형·무형의 가치를 낳는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의 '분단체제 유지비용', 즉 분단의 유형적·무형적 비용이 명백한 이익으로 전환된다. 여기에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미래재의 가치가 덧붙여진다. 특히 미래재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력과 민족적 역량에 따라 무한하게 실현될 수 있는 영역이다.

통일은 또한 경제통합에 의한 시장의 확대, 남북한간 생산요소의 보완성 및 산업구조의 합리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의 무형적 가치도 크다. 우선 통일국가의 북한 주민의 생조권과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 민주공동체의 수립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외적으로 민족적 자존과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된다.

통일한국에서 우리 민족이 골고루 분산되어 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한 나라가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대륙을 향해 무한한 상상력의 나라를 펼치고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이처럼 유형·무형의 통일편익은 통일한국의 건설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지와 창의력에 따라 엄청나게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③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의 역사적 측면에서의 필요성

첫째, 우리 민족은 통일 신라 이후 1945년 분단되기 전까지 단일 민족 국가로서 살아왔으므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책임

둘째, 이질성이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정신적, 문화적 동질성의 요소들이 다른 어느 민족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통일을 해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발전해야 함.

셋째, 한 핏줄로서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하며 살아야 함.

넷째,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

다섯째, 통일은 민족 역량을 집중하면서 발전을 앞당겨 번영된 민족 복지 국가를 빨리 실현

• 이산가족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

첫째, 분단으로 인해 많은 이산가족들이 생겼고 통일은 민족적 소원이 됨.

둘째,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이 고통과 슬픔은 매우 큼

셋째, 그들은 부모의 생사조차 모름

넷째, 고향에 가볼 수 없고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음.

다섯째, 이산가족의 소원은 생전에 고향에 가보거나 부모 형제를 만나 보는 일

여섯째, 이러한 이산가족의 소원을 풀기 위해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함.

• 민족의 생존과 번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

첫째, 통일은 민족 전체의 발전과 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기본 조건

둘째, 남북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민족의 발전과 번영에 투입한다면 훨씬 더 잘 사는 민족이 될 것임

셋째, 통일은 동북아의 안전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함

넷째,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인적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옴

다섯째, 한반도전쟁의 재발 위협성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부문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임

여섯째, 통일을 하여 전쟁의 위협성에서 벗어나면 평화로운 안정 상태에서 민족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음

• 남북한이 분단으로 인하여 낭비하는 자원측면에서 필요성

첫째, 남북한은 많은 군사력을 유지하여 산업인력의 손실을 보고 있음

둘째, 다른 나라의 경우 군사비는 국민 총생산량의 2%미만에 불과한 수준임

셋째, 남한은 약 3.1%, 북한은 41.3%의 군사비를 지출('99년 기준)

넷째, 불필요한 국방 비용만 없다면 생활 수준을 훨씬 높일 수 있어 세계 10위권 이내의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됨

다섯째, 정치·외교적으로 북한과의 대립 관계에서 비용 발생 많음

여섯째, 경제 발전의 지역성 보완성 살려 자원과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일곱째, 통일은 과도한 남북 경쟁에서 생기는 불필요한 민족 역량의 소모를 방지.

④ 북한 수수께끼

▶ 담 은가락, 인포동, 꿀다리기, 책, 꿀밤, 바람, 강냉이, 고무장, 콩당우, 단잠

제 IV 장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1. 학습안내

2. 학습목표

3. 교수·학습 지도안

4. 학습자료

5. 참고자료

IV.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1. 학습안내

지난 50년 동안의 남북 분단은 민족의 단절과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는 물론 국민 개개인간이 사고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의 이질화를 심화시켰습니다. 학생들은 통일사회를 살아갈 통일세대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전의식에서 벗어나 평화를 사랑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협력할 수 있는 관용과 평화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오늘날 행해지고 있는 통일 교육은 통일된 사회를 준비하는 통일 대비 교육의 의미가 크다. 통일된 사회를 살아가야 할 성원들에게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것 역시 통일 대비 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본 단원은 주인정신, 강한 정신력,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 더 넓은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 등 통일을 준비하는 어린이들로서 지녀야 할 태도 및 가치관을 소개하고 통일을 위해 학생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학습목표

- 1) 통일을 위해 지녀야 할 태도를 알 수 있다.
- 2) 통일을 위해 지녀야 할 태도를 실천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지도안

※ 학습자료

교사 : 참고자료 확대, OHP

아동 :

수업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도 입	동기유발 학습문제 확인	◎'서로서로 도와가며' 노래부르기 •'서로서로 도와가며' 노래 가사 일부분만 바꿔 부르기 아랫집 윗집 사이에 올타리는 있지만 → 남한과 북한 땅 사이에 3·8선은 있지만 굶은 일 슬픈 일 모두 내 일처럼 여기며 서로서로 도와가며 형제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통일을 위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노래가사 완전히 바꿔 부르는 정리 단계에 있으므로 도입단계에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도록 한다
전 개	통일을 준비하며 지녀야 할 태도 알기 실천방법 알기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알기 •노래가사에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지내야 한다고 했나요? •만화(학습지1)보고 지녀야 할 태도 맞추기 •그 밖에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생각하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쓰기 •상황1)주인정신 일상생활에서 주인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상황2)강한 정신력 일상생활에서 강한 정신력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찾아 쓰기 •상황3)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상황4)더 넓은 세계를 내다보는 안목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찾기 •자신이 찾은 실천내용 발표하기	•실천할 내용은 학습지2의 실천내용란에 기록하도록 한다.
정 리		◎과제 제시 •일주일동안 생활점검표 하기 ◎정리활동 •활동1) '서로서로 도와가며' 노래가사 완전히 바꿔 부르기(노래가사 전문은 참고자료 참조) •활동2) 'ㄱㄴㅇ...'게임으로 수업내용 정리하기 •활동3) 38선놀이하기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운동장에 나가서 해도 좋음)	•정리활동1,2,3)은 시간적인 여유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4. 학습자료

<학습지 1>

 우리는 통일 어린이

<p><그림 그리기></p> <p>자기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어린이 모습</p> <p>(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청소하는 어린이 모습)</p>		<p><그림 그리기></p> <p>끈기롭게 가지고 일을 끝까지 하려는 모습의 어린이</p> <p>(장애우 어린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승점에 들어오는 모습)</p>	
♥ 지녀야 할 태도		♥ 지녀야 할 태도	
<p><그림 그리기></p> <p>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p> <p>(학급 내 왕따인 친구를 감싸주는 어린이 모습)</p>		<p><그림 그리기></p> <p>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p> <p>(기아로 굶주리며 죽어 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소식을 듣고 걱정하는 모습)</p>	
♥ 지녀야 할 태도		♥ 지녀야 할 태도	

통일 어린이로서 지녀야 할 태도를 알아보시다.

엮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학습지 2>

하루 하루 실천해 봅시다.
 통일이 다가와요 !



실천할 일	/	/	/	/	/
◎ : 잘 실천함(3점)					
○ : 보통임(2점)					
△ : 잘 실천하지 못함(1점)					
통계 점수					
담임선생님 확인					
부모님 확인					

5. 참고자료

① ㄱㄴㄷ놀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학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 “ㄱㄴㄷ놀이”도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주로 강의가 끝나고 난 후 사용한다. 앞서 진행된 강의의 정보전달의 결과로 어떤 그림이 학생들 속에 그려졌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법이다.

교사는 “통일”이라는 주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통일에 대한 노래를 들려주거나, 그림 또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신문기사나 예화를 설명함으로써 학생들과 기본적인 통일에 대한 상을 나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이전단계에서 얻은 정보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ㄱ”에서 “ㅎ”까지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한 개의 단어로 나타내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제시한 단어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벽면에 소포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ㄱ”에서 “ㅎ”까지의 자음을 써놓은 후 함께 써내려 가거나 학생들 스스로 기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필름을 OHP에 올려놓은 채 학생들의 발표를 즉석에서 기록해가며 다양한 재미있는 그림들을 단어 옆에 그려주는 것도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ㄱㄴㄷ놀이”의 예

- ㄱ 간다고
- ㄴ 나는 간다고
- ㄷ 다함께 가자고
- ㄹ 라면먹고 가자고
- ㅁ 몸도 가고 마음도 가서
- ㅂ 바람을 일으키세. 통일바람을
- ㅅ 사랑해요. 한민족!!

② 노래 불러보기 - '서로 서로 도와 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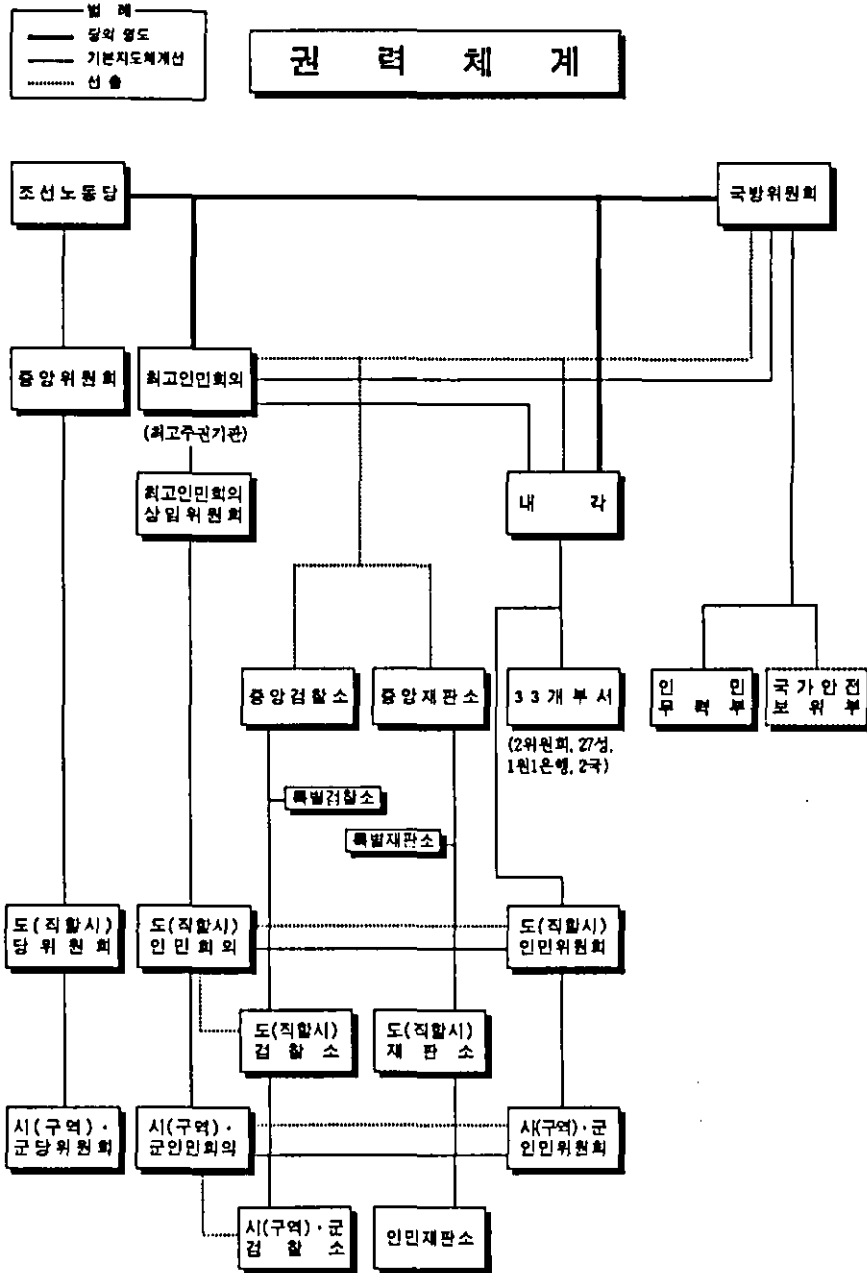
1절 :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기쁜일 슬픈일 모두 내일처럼 여기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한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2절 : 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
잘못이 있어도 모두 용서하고 타일러
서로서로 도와가며 한집처럼 지내자
우리는 한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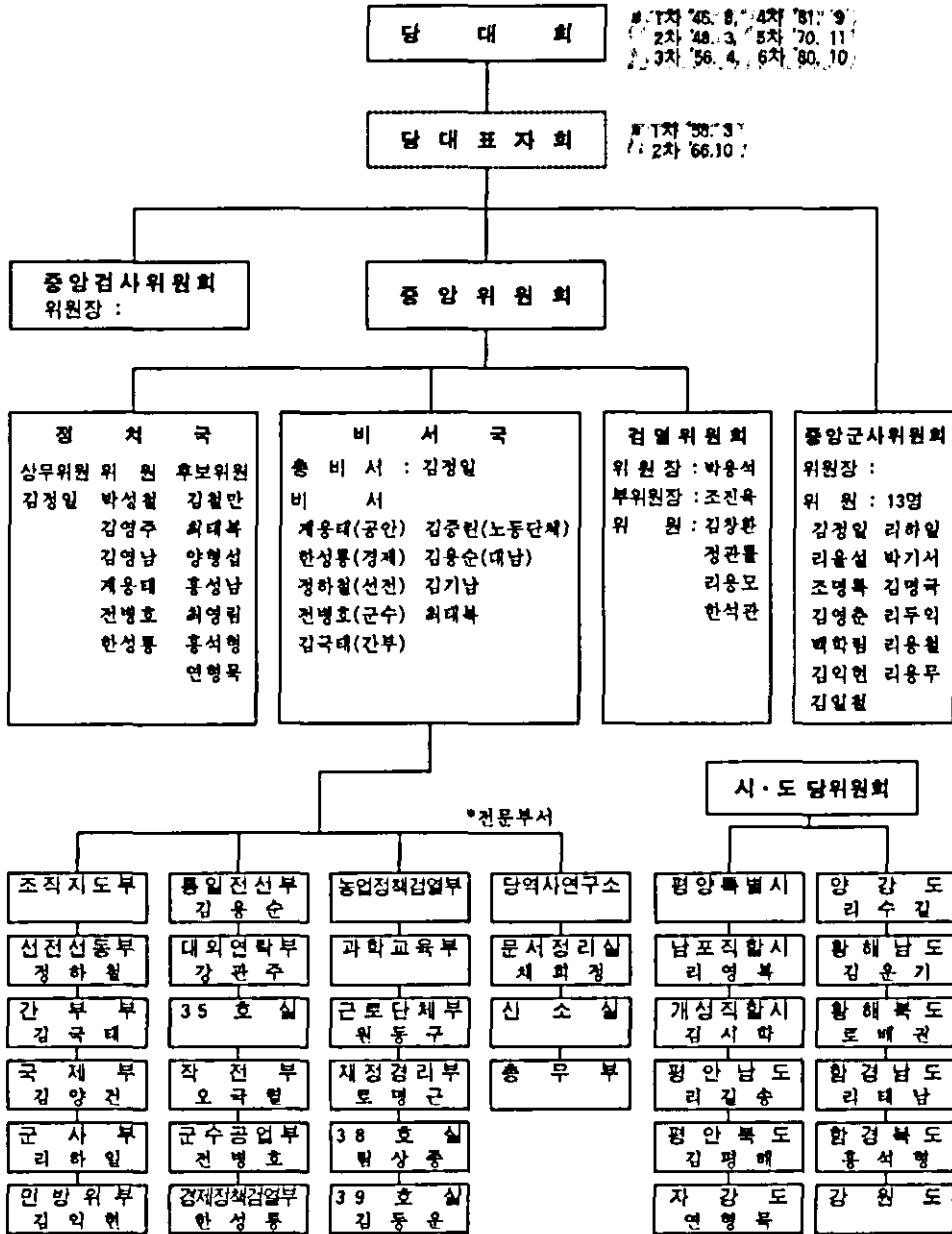
부 록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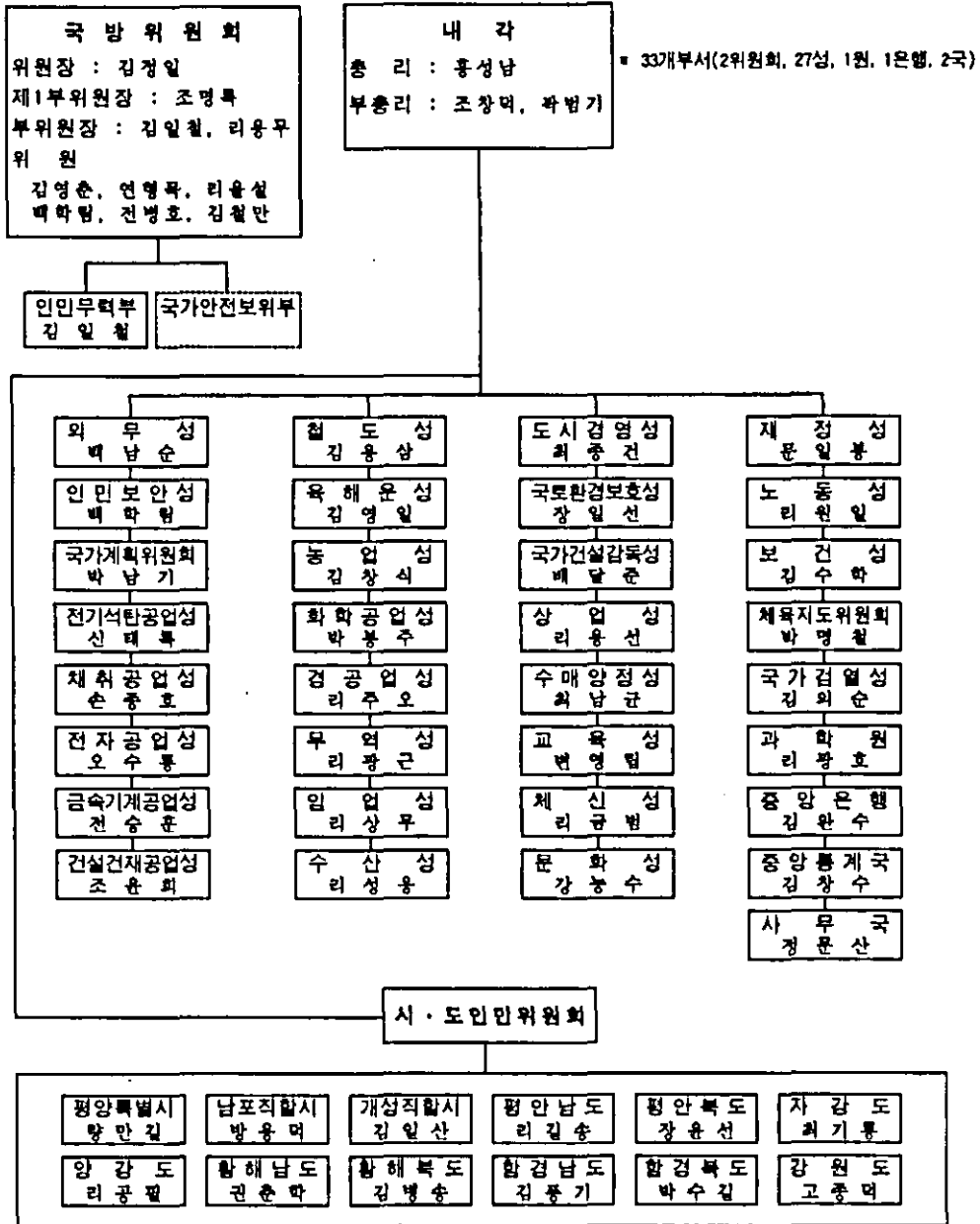
1. 북한권력기구도(2001. 12.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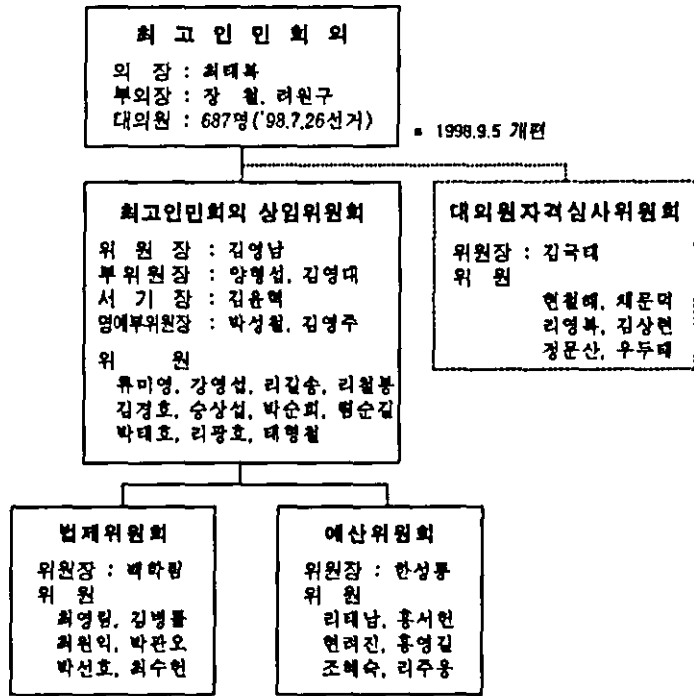
조 선 노 동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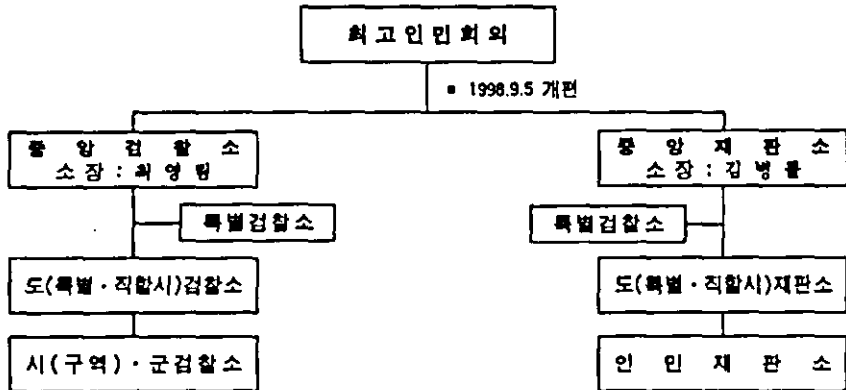
행정 기관



입 법 기 관



사 법 기 관



정 당 · 단 체

정당·대남	조선천도교협우당 위원장 류미영	조선사회민주당 위원장 김영대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 위원장 박성철 동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위원장	한국민족민주전선 (한민전)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북측본부 의 장 안경호	조국통일범민족청년 학생연합북측본부 의 장 김인호	민족화해협의회 회 장 김영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회 장 류미영	남조선의 비전향 기수 구원대책 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남조선의 국가보안 법출태를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평화옹호전국 민족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재북평화통일촉진 협의회 서기국장 강태우		
대외단체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조선대외문화연락 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 문제철	조선외교협회 회장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위원장 김국훈
	일제의 조선강점 피해조사위원회 위원장 리봉호	종교위안부 및 태 평양전쟁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선옥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반핵평화를 위한 조선피폭자협회 회 장 주성우	아시아여성들과 연대 하는 조선여성협회 회 장 리청희
	조선유네스코민족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네스칼 및 농 업기구민족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조선유엔개발계획 민족조정위원회 서기장 리태균	유엔기금조선조정 위원회 위원장 최수현	인종차별저도반대 조선위원회 위원장
사회단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청년동맹) 1 비서 김경호	조선직업총동맹 (직총) 위원장 린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농근맹) 위원장 송상섭	조선민주여성동맹 (여맹) 위원장 박순희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성국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일선	조선민주변방가협회 위원장 함학선	조선중앙변호사협회 위원장 리동석	조선학생위원회 위원장 최광권
경제단체	대외경제협력추진 위원회 위원장 김용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회 장 정운업	조선아시아무역촉진 위원회 위원장 리성복	조선국제합영속진 위원회 위원장	조선국제무역촉진 위원회 위원장 김봉문
종교단체	조선키릴릭교회협회 위원장 장재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 강영섭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류미영	조선종교인협의회 회 장 장재언
학술체육단체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양형섭	조선문학예술총동맹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 장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리광호	조선건축기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용상	국제문제연구소 소 장 김광우
	조선역사협회 회 장 전영률	조선김정일학회연맹 위원장 장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황봉영	동아시아경기대회 협의회 회 장 박명철

2. 북한의 주요 대남제의

- '48. 3.25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소집 제외(북조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 4.30 전조선 정치회의 소집 및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제외(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 '49. 6.28 입법기관 구성을 위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 중 8개항의 통일방안 제시(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결성대회)
- '50. 6. 7 남북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회의 소집 제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6.19 전조선 입법기관 구성 제외(최고인민회의)
- '54. 4.27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에 대한 3개항의 통일방안 제외(외무상 남일)
- 6.15 남북조선군속 및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협정 체결 제외(외무상 남일)
- 10.30 남북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최고인민회의와 국회 합동회의 소집 제외(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8차 회의)
- '55. 8.14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국동회의 소집 제외('8. 15'경축대회 김일성)
- '56. 4.28 남북조선의 정권당간 무력불행사 선포 제외(조선노동당 제3차대회)
- 7. 3 통일문제 협의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제외(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결성대회)
- 11. 7 남북당간 군비축소 회담 제외(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12차 회의)
- '57. 1.31 남북적십자단체 대표들간의 정기 서신교환 제외(조선적십자회 위원장 홍명희)
- 6.10 국제체육대회 단일한 조선민족팀 구성 제외(조선올림픽위원회)
- 9.20 남북조선대표참가 유관국 회의소집 제외(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 회의 김일성)
- 12.18 제17차 국제올림픽대회에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 제외(조선올림픽위 위원장 홍명희)
- '59.10.26 평화통일문제 토의를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제외(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 회의 부수상 남일)
- 10.27 '남북경제발전 및 교류상설위원회' 설치 제외(최고인민회의)
- '60. 4.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소집 제외(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 연석회의)
- 8.14 남북 '연방제' 제외(김일성)
- 11.22 남북 경제·문화교류 제외(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 '62. 6.21 남북조선 정권 당국자 무력불행사 협정 체결 제외(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1차 회의)
- 7.28 제18차 동경올림픽대회 남북조선 유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제외(조선올림픽위원회)
- 11.28 남북조선올림픽위 대표회담 로잔에서 개최 제외(조선올림픽위 위원장 홍명희)
- '63. 3.29 남북조선올림픽위대표회의제외(조선올림픽위 위원장 홍명희)
- 9. 8 남북불가침조약 체결 제외(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용건)
- '64. 3.27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소집 또는 남북조선 각계대표의 접촉 제외(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3차 회의)
- '67. 1. 4 남조선당국자와 통일문제 조건부 협상 제외(김일성)
- 8.21 조선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유관국 회의 소집 제외(정부)
- '71. 4.12 평화통일 8개 방안 제외(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 외무상 허담)
- '72.12. 4 남북간 다방면적 합과 제외(남북조절위 공동위원장대리 박성철)
- '73. 4. 5 남북평화협정체결 제외(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총리 김일)
- 6.23 조국통일 5대강령 제시(김일성)
- '74. 3.20 조·미 평화협정 체결위한 회담 제외(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
- '77. 1.25 남북정치협상회의 준비를 위한 예비실무회의 소집 제외(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2. 8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외(인민군 부총참모장 김익현)
- '79. 1.23 전민족대회 소집을 위한 남북회담 제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1.31 남북상호비방·중상 중지조치 제외(조선중앙통신사)
- 2. 5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남북연락대표 접촉 제외(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 12.20 제22차 올림픽대회 남북 민족유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인대표회담 제외(조선체육지도위 위원장 김유순)
- '80.10.10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외(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
- '81. 1.11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접촉 제외(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 '82. 2.10 남과 북, 해외의 정치인 100인 연합회의 소집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 '83. 1.18 남북의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9. 9 연방국가의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에 남북공동의장 및 공동위원장 선출, 윤번제 운영 제의(김일성)
- '84. 1.10 남·북 및 미국 3자 회담 제의(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연합회의)
- 3.30 제23차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유일팀 공동출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 9. 8 남조선수재민구조호봉사계공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 '85. 1. 9 남북 부총리 접촉 제의(정무원 부총리 김환)
- 4. 9 남북국회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 회의)
- 5.28 남북적십자예술단 상호방문 제의(제8차 남북적십자회담)
- '86. 1.11 남북 상호 군사연습 중지 제의(외교부)
- 6. 9 남·북·미국 3군사당국자 회담 제의(인민무력부장 오진우)
- 6.23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 협상 제의(정부)
- 12.30 남북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의(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 김일성)
- '87. 7.23 조선반도에서 단계별 다국적 무력축감협상 제의(정부)
- 11.11 민족단합방안 5개항 제시(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연합회의)
- '88. 1. 1 남북연석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7.20 남북국회연석회의 소집 제의(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 11. 7 조선반도 평화보장 4원칙 제시(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 12.21 제11차 아시아경기대회(북경) 유일팀 출전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제의(조선올림픽위원회 김유순)
- '89. 1. 1 남북정치협상회의 제의(김일성)
- 5.31 남북 제2차 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 제의(조선적십자회 위원장 손성필)
- 7. 9 남·북·해외동포대표들이 참가하는 「전민족대회」 소집(90. 8. 15)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허담)
- 9.28 민족통일협상회의 소집 제의(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남)
- 11.30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3개항 실천조치 제의(외교부)
- '90. 1. 1 남북자유왕래 및 전면개방 실현 위한 남북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1.17 IP(총회(제84차) 남북단일대표단 구성 참가 제의(외회 그루브위 위원장 양형섭)
- 5.24 조국통일 5개방침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 김일성)
- 5.31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균속제한 10개항 제시(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
- 6. 4 민족통일준비위원회 구성 제의(제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
- 8.15 조국통일범민족연합결성 제의(범민족대회)
- 9.14 UN가입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 제의(총리 연행록)
- '91. 1. 1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소집 제의(김일성)
- 7.30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외교부)
- '93. 4. 7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시(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
- 5.25 남북최고위급의 특사교환 제의(정무원총리 강성산)
- '94. 4.11 전민족대단결 방도 모색을 위한 「민족대회」 소집 제의(당·정·사회단체 연합회의)
- 6.17 남북정상회담 개최용의 표명(김일성, 「카터」 전 미대통령에게 의사전달)
- '95. 3.29 「8.15 민족통일대축전」 관련 민간급접촉 제의(민족통일대축전 북측 준비위원회)
- 5.26 남한의 쌀제공 검토용의 표명(국제무여축전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 '98. 4.18 김정일의 「민족대단결 5대방침」 발표(김정일 「서한」형식)
- '99. 2. 3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
- '01. 1.10 「올해를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정한 것」 등 제의(우리민족끼리 통일외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

3. 2002년도 북한 주요행사 예정표

월	일	주요행사	비고	
1월	1	○ 십(신년) ○ 「전반적 무상치료제」 시행일(49주년) ○ 「협동농민사피보장제」 시행일(17주년)	'46. 2. 24 제정 '53. 1. 1 시행 '85. 10. 4 채택	
	8	○ 견제공급절	'83. 12. 9 제정	
	12	○ 김형권(김일성 삼촌) 사망일(66주기)	'05. 11. 4~ '36. 1. 12	
	14	○ 「노동적위대」 창설일(43주년)	'59. 1. 14 창설	
	15	○ 훈민정음 창제일(558주년)	1444. 1. 15 창제	
	17	○ 「김일성사피주의청년동맹」 결성일(56주년)	'46. 1. 17 결성 ('96. 1. 19개정)	
	25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결성일(11주년)	'91. 1. 25 결성	
	28	○ 무역절	'97. 1. 23 제정	
	30	○ 「백안전협정」 서명일	'92. 1. 30 서명	
	31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결성일(56주년)	'46. 1. 31 농민동맹 결성 ('65. 3. 25 개정)	
	* 1~2월 : 동계체육 휴간('80. 1 설정)			
	2월	1	○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결성일(56주년)	'46. 2. 1 결성
		6	○ 「일당백」 구호 제시일(39주년)	'63. 2. 6 김일성 제시
		8	○ 「조선천도교청우당」 창당일(56주년)	'46. 2. 8 창당
10		○ 「3대혁명소조운동」 발기일(29주년)	'73. 2. 10 발기	
12		○ 용덕 선(민속명절)	'80년 부터	
16		○ 김정인 생일(40회)	'42. 2. 16 출생	
19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발표일(10주년)	'92. 2. 19 발표 ('91. 12. 13 채택)	
20		○ 기계절	'72. 1. 13 제정	
3월	1	○ 「사피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태제」 발표일(38주년)	'64. 2. 25 발표	
	28	○ 「세계공산당선언」 발표일(154주년)	1848. 2. 28 선언	
	1	○ 「만일 3·1 인민봉기」 기념일(83주년)	'19. 3. 1 발생	

월	일	주요행사	비고
3월	2	○ 식수절	4월 6일 ('71. 3. 25) 이었으나 '99년부터 3월 2일로 변경
	5	○ 「토지개혁법령」 공포일(56주년) ○ 농업근로자절	'46. 3. 5 공포 '71. 3. 5 제정
	8	○ 국제부녀절	'61. 3. 8 채택 ('09. 3. 8 시카고 여성시위 기념)
	11	○ 「왕재산회의」 기념일(69주년)	'33. 3. 11 개최
	19	○ 이인오 송환일	'93. 3. 19 송환
	22	○ 어부절	'62. 5. 23 제정
	23	○ 「조선국민회」 결성일(85주년)	'17. 3. 23 김형직 결성
	24	○ 「조선명화용호천국민족위원회」 결성일(53주년)	'49. 3. 24 결성
	25	○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결성일(56주년)	'46. 3. 25 결성
	4월	1	○ 새금제도 폐지의 날(28주년)
3		○ 「4·3 제주도 인민봉기」 기념일(54주년)	'48. 4. 3 발생
5		○ 한식(민속명절) ○ 보린절 ○ 천도교 창도일(142주년)	'89년 부터 '80. 4. 5 제정 1860. 4. 5 창도
7		○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제의일	'93. 4. 7 제의
8		○ 제신절	'72. 1. 13 제정
9		○ 「환경보호법」 채택일(16주년)	'86. 4. 9 채택
15		○ 태양절(김일성출생일)	'12. 4. 15 ~ '94. 7. 8 '97. 7. 9 제정
19		○ 「남조선인민봉기」 기념일(4·19 의거)(42주년)	'60. 4. 19 발생
20		○ 김정일 「원수」 추대일	'92. 4. 20 추대
21		○ 강반석(김일성 모) 출생일	1892. 4. 21 ~ '32. 7. 31
4월	24	○ 탄부절(12주년)	'90. 10. 31 제정
	25	○ 「조선인민군」 창건일(70주년)	'32. 4. 25 「조선인민혁명군」 조직 '96. 4. 23 국가령 명절로 제정
	28	○ 「어린이 보호교양법」 채택일(26주년)	'76. 4. 28 채택

월	일	주요행사	비고
4월	29	○「농업협동조합법 제정법령」 공포일(36주년) ○「로자법 제정일(25주년)」	'66. 4. 29 공포 '77. 4. 29 제정
	* 4월중 :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82. 4 최초 개최) * 4월중 : 제15기 전국과학기술축전(85. 4 최초 개최) * 4월 : 문화유적예호 월간		
	1	○ 국제노동자절(5·1절, 112주년) ○「사회주의 노동법」 시행일	1886. 5. 1 미국 「시카고」노동자 파업기념 '78. 4. 18 제정
5월	5	○「조국광복회」 결성일(66주년)	'36. 5. 5 김일성 조직
	11	○ 철도절	'63. 3. 18 제정
	13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결성일(41주년)	'61. 5. 13 결성
	15	○ 지질탐사절	'70. 2. 3 제정
	18	○「평주민민봉기」 기념일(22주년)	'80. 5. 18 -5. 27 발생
	20	○「조선학생위원회」 결성일(42주년)	'60. 5. 20 결성
	21	○ 전철자절	'71. 4. 30 제정
	23	○「부산지구전투승리」 기념일(63주년)	'39. 5. 23 전투
	24	○「조국통일 5대방침」 발표일	'90. 5. 24 발표
	25	○「제일조선인총연합회」 결성일(47주년)	'55. 5. 25 결성
6월	30	○「조선종교인협의회」 결성일	'89. 5. 30 결성
	1	○ 국제아동절(6·1절)	'49. 11 국제민주 여성동맹 결정. '50. 4 제정
	3	○「남조선청년학생 봉기」 기념일(63사태)(38주년)	'64. 6. 3 발생
	4	○「보천보전투 승리」 기념일(65주년) ○「민주조선」 창간일(56주년)	'37. 6. 4 전투 '46. 6. 4 창간
	5	○ 김형직(김일성 부) 사망일(76주기) ○「세계환경의 날」 기념일 ○ 해군절	1894. 7. 10 ~1926. 6. 5 '72. 12. 15 UN 제27차총회 제정 '72. 6. 3 제정
	6	○「조선소년단」 창단일(56주년)	'46. 6. 6 창단
	7	○ 지방공업절	'70. 4. 6 제정

월	일	주요행사	비고	
6월	10	○「반일 6·10 만세시위투쟁」 기념일(76주년) ○「6월민중항쟁」 기념일(15주년)	'26. 6. 10 발생 '87. 6. 10 발생	
	15	○ 단오(민속명절) ○「남북공동선언」 발표일	'89년 부터 '00. 6. 13~15 남북정상회담	
	19	○ 김정일 당사업 개시일	'64. 6. 19 개시	
7월	20	○ 포병절	'82. 10. 28 제정	
	23	○「조국통일 5대강령」 발표일 ○ 선박공업절	'73. 6. 23 발표 '88. 4. 21 제정 ('48. 6. 23 소급 설정)	
	25	○「조국해방전투」 발발일(미제반대투쟁의 날)(52주년)	'50. 6. 25 발발	
	28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 채택일	'94. 6. 28 채택	
	30	○ 조선카톨릭교협회 결성일	'88. 6. 30 결성	
	* 6월 25일~7월 27일 : 「반미공동투쟁」 월간(70. 7 국제민주법률가협회 결정)			
	1	○ 광부절	'57. 7. 5 제정	
	2	○「재북평화통일추진협의회」 결성일(46주년)	'56. 7. 2 결성	
	4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일(30주년)	'72. 7. 4 발표	
	7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남·북 청년학생공동 선언문」 채택일(13주년)	'89. 7. 7 채택	
8	○ 김일성 사망일(8주기)	'12. 4. 15 ~'94. 7. 8		
9	○「80년대 속도창조운동」 발기일(20주년)	'82. 7. 9 발기		
10	○「김형직(김일성 부)」 출생일	1894. 7. 10 ~1926. 6. 5		
11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일	'61. 7. 11 체결		
12	○ 해양의 날			
22	○「조국통일민주주의의 전선」 결성일(56주년)	'46. 7. 22 결성		
24	○ 육·해운절	'72. 2. 26 제정		

엎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7월	27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 (49주년) ○「농촌기술혁명」기념일 (29주년)	'53. 7. 27 휴전협정 체결 '96. 7. 26 국가적 명절로 제정 '73. 7. 27 제정	
	30	○「남녀평등권법령」공포일 (56주년)	'46. 7. 30 공포	
	31	○강반석(김일성 모) 사망일 (70주기)	1892. 4. 21 ~1932. 7. 31	
* 7~8월 : 새기록장조 월간('81년 설정) * 7~8월 : 해양체육 월간('64년 설정)				
8월	1	○ 200메리 경제수역 발표일	'77. 8. 1 발표 ('77. 6. 21 채택)	
	10	○「주요산업 국유화법령」공포일(56주년) ○입업노동자절	'46. 8. 9 제정 '63. 8. 10 제정	
	14	○「남북 연방제」제외일	'60. 8. 14 제외	
	15	○해방기념일(57주년) ○「제11차 범민족대회」 ○「제10차 청년학생통일대축전」 ○「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 연합」결성일(10주년)	'45. 8. 15 해방 '90. 8. 15. 1차대회 '91. 8. 15. 1차대회 '92. 8. 15 결성	
	20	○공군절	'72. 5. 20 제정	
	25	○「한국민족민주전선」결성일 (33주년)	'69. 8. 25 「통일당」창당 ('85. 7. 27 개칭)	
	28	○청년절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일(75주년)	'91. 2. 1 제정 '27. 8. 28 결성	
	* 8~9월 : 인민체력검정 기간('48년 설정) * 8월15일~9월15일 : 남북해외동포청년학생공동평화월간('91년 설정)			
	9월	1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시행일(27주년) ○「볼티볼가담의 날」(비동맹의 날) ○「평화의 날」	'75. 9. 1 시행 '81. 2 인도 비동맹외상회의 결정 '82. 6 쿠바 제10차 세계적평대회 결정
		5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태제」발표일(25주년)	'77. 9. 5 발표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9월	5	○교육절 ○도시경영절 ○김정일「국방위원장」재추대일 (4주년)	'77. 9. 19 제정 '82. 8. 2 제정 '98. 9. 5 ('93. 4. 9최초추대)	
	8	○「합영법」채택일	'84. 9. 8 채택	
	9	○정권 창건일(9·9절)(54주년) ○「주체」연호 시행일(5주년)	'48. 9. 9 수립 '97. 7. 8 제정	
10월	12	○「붉은 청년근위대」창건일 (32주년)	'70. 9. 12 창건	
	15	○상업절	'71. 11. 6 제정	
	17	○UN 가입일(11주년)	'91. 9. 17 가입 (UN제46차총회)	
	20	○피복공업절(4주년)	'98. 2. 4 제정	
	21	○추석(민속명절)	'88년 부터	
	22	○김정숙(김정일 생모) 사망일 (53주기)	'17. 12. 24 ~'49. 9. 22	
	24	○전기절 ○「단군민족통일협의회」발족일	'71. 9. 15 제정 '97. 9. 24 발족	
	28	○「조·일 국교정상화추진 공동선언」발표일	'90. 9. 28 발표 (노동당, 일본 자민당·사회당)	
	* 9월8일~14일 : 주한미군철거투쟁 주간('45. 9. 8 미군의 남한군정실시 선포)('78년 설정)			
	1	○「김일성종합대학」설립일 (56주년)	'46. 10. 1 설립	
3	○민족의 날	'98. 10. 3 선포		
4	○「대자연개조사업」제시일 (21주년)	'81. 10. 4 제시		
8	○김정일 「당 총비서」추대일 (5주년)	'97. 10. 8 추대		
9	○「국적법」공포일(30주년) ○금속노동자절	'63. 10. 9 공포 '70. 4. 17 제정		
10	○「조선노동당」창당일(57주년)	'45. 10. 10 창당		
11	○「단군봉」개건기념일(8주년)	'94. 10. 11 준공		
12	○「만경대혁명파원」설립일 (55주년)	'47. 10. 12 설립		
13	○체육절(10월 두번째 일요일)	'49. 8. 2 제정		
14	○방송절	'70. 10. 14 제정		
15	○방직공업절	'73. 10. 15 제정		
17	○「타도제국주의동맹」(트·드) 결성일(76주년)	'26. 10. 17 김일성 결성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10월	18	○「조선적십자회」 창립일 (56주년)	'46. 10. 18 창립
	19	○「10월민주항쟁」 기념일 (부·마사태)(23주년)	'79. 10. 16 ~10. 23 발생
	20	○ 민족면역의 날	'97. 9. 26 제정
	23	○ 국토환경보호절	'96. 11. 27 제정
	25	○「중국인민지원군참전」 기념일 (52주년) ○「근로자」지 창간일 (56주년)	'50. 10. 25 참전 '46. 10. 25 창간
	28	○ 과학기술연구사업 결산 및 대핵수립의 날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창립일	'92. 1. 결정 '52. 10. 28 창립
	29	○「조선중앙은행」 설립일 (56주년)	'46. 10. 29 설립
	30	○「지방예산제」 실시일 (29주년)	'73. 10. 30 실시
	31	○「조선올림픽위원회」 결성일 (32주년)	'70. 10. 31 결성
	* 10월중 :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지지 월간 ('89. 11. 25 설정, 파리) * 10~11월중 : 「공화국선수권체육대회」 개최		
11월	1	○「노동신문」 창간일(57주년)	黨기관지「정로」(5. 11. 1 창간)와 신민당기관지「전진」을 합쳐 '46. 9. 1 발간 '70. 12. 20 제정
	3	○「평주학생사건」 기념일 (73주년) ○「조선사회민주당」 창당일 (57주년)	'29. 11. 3 발생 '45. 11. 3 창당
	11	○「조선기자동맹」 결성일(56주년)	'46. 11. 11 결성
	18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결성일(57주년)	'45. 11. 18 결성
	19	○「사법·검찰기관」 창립일 (57주년) ○「사회안전기관」 창립일 (57주년)	'45. 11. 19 창립 '45. 11. 19 창립
	* 11월중 : 「조선적십자회」 창립일(56주년) * 11월중 : 「조선기자동맹」 결성일(56주년) * 11월중 : 「조선민주여성동맹」 결성일(57주년) * 11월중 : 「사법·검찰기관」 창립일(57주년) * 11월중 : 「사회안전기관」 창립일(57주년)		

월	일	주요 행사	비고	
11월	20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일(12주년)	'90. 11. 20 결성	
	28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결성일 (56주년)	'46. 11. 28 결성 ('99. 2. 개칭)	
	30	○「조선민주법률가협회」 결성일(48주년) ○「조선직업총동맹」 결성일 (57주년)	'54. 11. 30 결성 '45. 11. 30 결성	
	* 11월18일~23일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선구자대회」('86. 11. 최초 개최) * 11월중 : 문화유적예포 월간			
	1	○「과학원」 창립일(50주년)	'52. 12. 1 창립	
	5	○「조선중앙통신사」 창립일 (56주년)	'46. 12. 5 창립	
	6	○ 화학공업절 ○ 조선비해평화위원회의 결성일 (16주년)	'76. 10. 16 제정 '86. 12. 6 결성	
	10	○「대군사노선」 채택일 (40주년)	'62. 12. 10 채택	
	13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일	'91. 12. 13 채택 ('92. 2. 19 발효)	
	15	○「새날소년동맹」 결성일 (76주년) ○「대안의 사업체계」 수립일 (41주년) ○「KEDO·북한간 경수로협정」 체결일	'26. 12. 15 결성 '61. 12. 15 수립 '95. 12. 15 체결	
12월	24	○ 김정숙(김정일 생모) 출생일 ○ 김정일 인민군최고사령관 추대일(11주년)	'17. 12. 24 ~'49. 9. 22 '91. 12. 24 추대	
	26	○「조선불교도연맹」 결성일 (57주년) ○「反日本녀회」 결성일(76주년)	'45. 12. 26 결성 '26. 12. 26 결성	
	27	○ 헌법절 (사회주의헌법 채택일)	'73. 12. 24 제정 '72. 12. 27 채택	
	28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설립일	'91. 12. 28 설정 정무원결정70호	
	* 12월중 : 제12회 전국청년과학기술 및 창의 고안 선구자대회('89년부터 매년 개최)			
	* 매월 두번째 일요일 체육의 날 ('92. 3. 8 김정일 지시)			
	年			
	中			

4.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사이트 현황

I. 정부 및 공공기관

-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 남북회담사무국 <http://dialogue.unikorea.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인터넷 평화학교)
- 서울시교육과학연구원 <http://www.sesri.re.kr>
- 6.25 전쟁 기념 사업단 <http://www.mnd.go.kr:8778/>
-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airang>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acdpu.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nk>
- 이북 5도 위원회 <http://www.ibuk5do.go.kr>
- 이산가족 정보 통합센터 <http://reunion.unikorea.go.kr>

II. 교육기관·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ifes-kor>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http://ifes.kyungnam.ac.kr/gsnks-kor>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http://welove.korea.ac.kr/~nokor/>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ttp://asiacenter.or.kr>
-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http://www.kwandong.ac.kr/~unikorea/main.html>
- 마산창원 통일자료실 <http://www.atongil.com>
-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http://www.unikorea.net/myongji>
- 문화통합 <http://www.multicorea.org>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 서울대학교 지식 및 정보넷 연구실 <http://kins.snu.ac.kr/unikorea>
- 북한연구소 <http://nkorea.or.kr>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nk-infobank.com>
-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http://riku.sookmyung.ac.kr>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http://suny.yonsei.ac.kr/~ikus>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http://home.ewha.ac.kr/~nk21>
-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 통일정보센터 <http://www.neopeace.net>
- 통일학연구소 <http://www.onekorea.org>
- 평화문제연구소 <http://www.ipa.re.kr>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한국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http://www.kris.or.kr>
- 한반도통일연구소 <http://www.hankorea21.com>
- 통일시대연구소 <http://www.rink.or.kr>

III. 언론기관

- 한국방송공사 <http://news.kbs.co.kr/hana>
- 미주통일신문사 <http://www.unitypress.com>
- 민족 21 <http://minjog21.com>
- 민족통신 <http://www.minjok.com>
- 대한매일 뉴스넷 http://www.kdaily.com/features/koreanet/north_korea.html
- 세계일보 http://210.91.16.5/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 국민일보 <http://www.kukminilbo.co.kr/html/kmlist/13121800.html>

- 중앙일보 - 북한네트 <http://nk.joins.com>
- YTN-북한리포트 http://ytn.co.kr/new_httpd/special/nkreport/nkreport_index.asp
- 연합뉴스-북한리포트 <http://www.yonhapnews.co.kr/services/2200000000.html>
- 오도신문 <http://www.ibukodo.co.kr>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special/n_korea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politics/nk.html>
- 문화일보 - 통일시대 http://www.munhwa.co.kr/tongil/tongil_main.html
- 통일정보신문 <http://www.unityinfo.c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0/home01.html>
-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politics/northkorea.htm>
- 야후! 북한동정 http://kr.fullcoverage.yahoo.com/Full_Coverage/World/North_Korea
-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IV. 민간단체 · 종교단체

- 경실련 통일협회 <http://tongil.ccej.or.kr>
- 국제 옥수수 재단 <http://www.icf.or.kr>
- 기독교 북한 선교회 CMNK <http://www.cmnk.org>
- 남북농발협 <http://www.potato.or.kr>
- 남북자가족협의회 <http://www.rehome.or.kr>
- 남북자 가족모임 <http://www.comebackhome.or.kr>
- 남북어린이어깨동무 <http://www.okedongmu.or.kr>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http://www.kcrc.or.kr>
- 북한민주화네트워크 http://www.nknet.org/index_ko.html
- 북한인권시민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 북한선교 두리하나 <http://www.durihana.com>
- 북한선교연구소 <http://www.inm4n.org/Main.htm>

- 사이버 통일 운동 Unipia <http://www.unipia.org>
- 남북 나눔 운동본부 <http://haja.sharing.or.kr>
-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 <http://www.ksm.or.kr>
-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http://www.bubtanet.or.kr>
- 통일대축전 서울대 사범대 준비위원회 <http://my.dreamwiz.com/tongil77>
- 통일연대 <http://www.615tongilyoundai.org>
-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http://www.tihanguk.net>
- 평안북도 중앙청년회 <http://www.pyongbuk.co.kr>
- 평안북도중앙청년회 신문 <http://inews.org/pyongbuk>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http://www.spark946.org>
- 평화의 숲 <http://www.peaceforest.or.kr>
-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 운동 <http://sharing.or.kr>
- 운영주체 평화 예술인 국제연대 <http://www.artdmz.org>
- 한겨레 통일문화 재단 <http://www.durihani.or.kr>
- 한국자유총연맹 <http://www.kfl.or.kr>
- 한국평화정책 연구소 <http://www.leechangho.org>
- 한민족 복지재단 <http://www.kwfw.or.kr>
- 한민족선교네트워크-한민족선교정책연구소 <http://hanminjok.peacenet.or.kr>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http://www.peacekorea.org>
- 황해도 중앙 도민회 <http://www.hwanghaedo.or.kr>
- Ton-a-Month Club(한글 페이지) <http://ton-a-month.tripod.com>
- 아태평화재단 <http://www.kdjpf.or.kr>

V. 민간기업

- 10대 가 보는 북한의 모습 <http://www.cybertongil.net/>
- 21C 철마가 달린다 <http://zzna.com.ne.kr/>

- 전안이의 통일이야기 방 <http://totter.hihome.com/>
- 거래화합연구학회 <http://club.dreamwiz.com/unikorea>
- 경남대 북한대학 동우회 <http://www.knsns.com/>
- 고국, 조선족, 그리고.. <http://user.chollian.net/~rbtnby/>
- 안해연·이주연 선생님의 통일 배움터 <http://www.tongilnara.org>
- 국화의 방 <http://www.fancy12.pe.ly/>
- 김동진의 통일과 영어교육 <http://myhome.bbi.co.kr/kdddjj20>
- 김성윤교수 홈페이지 <http://www.anseo.dankook.ac.kr/~ksy11>
- 김용의 북한과 요리 이야기 <http://www.kirmyong.co.kr/>
- 김정일 안티 <http://www.kimjungilanti.com/>
- 남누리 북누리 <http://tongilnuri.wo.to/>
- 남북이야기 <http://www.okready.com/>
- 남북한통일교육정보 <http://www.ipcp.edunet4u.net/~teacher16>
- 남북통일문제연구소 <http://www.user.chollian.net/~yeoinsub>
- 노래로 배우는 통일교실 <http://210.119.114.5/union>
- 북한이야기 <http://my.dreamwiz.com/jisun8402>
- 권오윤교수 홈페이지 <http://www.kongguk.ac.kr/~oyoon>
- 동푸른 자유의 온누리 세상 <http://www.iwantolk.wo.to/>
- 내가보는 북한 <http://www.unikorea.net/>
- 민족통일정치연구회 <http://myhome.shinbiro.com/~uk4299>
- 백두산 가는 길 <http://www.baikdusan.net/>
- 백두 한라회 <http://www.baikhan.com/>
- 변재성의 사진과 비디오 보고서 <http://nhctv.net/>
- 북한 건축 <http://www.mwus.mokwon.ac.kr/~leewk>
- 북한 교육정보 <http://www.bk21.pe.kr/>
- 북한구호정보 <http://myhome.shinbiro.com/~residue>

- 북한문화자료실 <http://myhome.hanmail.net/~chltjtdn>
- 북한 통일 <http://www.bifa.pe.kr>
- 북한문학 연구 <http://nkmunhak.jinju.or.kr/>
- 뿌리넷 <http://www.poori.net>
- 사이버 금강산 관광 <http://web.edunet4.net/~75802580>
- 서울사람, 평양사람 <http://210.96.72.193/seoul>
- 안티김정일 <http://www.kimjungilanti.com/>
- 오영실의 홈 <http://www.oysil.ce.ro/>
- 우수강국시대 준비 <http://www.21kl.org/>
- 윤여상의 I LOVE minority <http://www.kiloveminority.com/>
- 이기영교수 홈페이지 <http://home.pusan.ac.kr/~klee388/>
- 조의성의 한국어연구실 <http://www.nicol.ac.jp/~choes/>
- 조휘제의 통일교육 <http://www.edu.co.kr/chOhj>
- 천치와 천재 <http://www.twinpapa.com/>
- 통일과 북한문제의 새로운 접근 <http://club.dreamwiz.com/nkunify/>
- 통일 세상 <http://www.onekorea21.net/>
- 통일 엔진 <http://www.home.ntime.net/tongil>
- 통일요리 길라잡이 <http://www.northfood.co.kr/>
- 통일 이루기 <http://210.95.92.1/hg/shjj>
- 투어엔 코리아 <http://www.tourkorea.co.kr/>
- 통일 LIS <http://www.user.userchollian.net/~tongil100/>
- 평화통일의 길 www.users.unitel.co.kr/~syrumkuk
- 하나된 한국 <http://user.chollian.net/~prokhr/korea>
- 하늘다솜 <http://poschool.or.kr/sky>
- 한국전쟁에서 통일까지 <http://user.chollian.net/~prokhr/war>
- 한반도 둘러보기 <http://mydreamwiz.com/ksks77>

- 카페, 남북정상회담 이야기 <http://cafe.daum.net/613>
- Daum 카페, 북한사람 <http://cafe.daum.net/a1223n>
- Freechal동호회, 남북한 관계론 <http://www.freechal.com/nsktown>
- pemuto O의 홈페이지 <http://my.netian.com/~pemuto>
- Wonny's Homepage <http://myhome.dreamx.net.hiwonny>

VI. 해외기관

- U N(United Nations) www.un.org
- 미국 백악관(White House) www.whitehouse.gov
-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
- 미국 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
- 미국 국방성(Defence LINK) www.defenselink.mil
- 미국 국무성(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 노틸러스(NAPSNet) www.nautilus.org/napsnet
- CSIS(국제전략연구소) www.csis.org
- CCFR www.ccf.org
- HOOVER연구소(Hoover Institution) www-hoover.stanford.edu
- RAND연구소(RAND) www.rand.org
- HERITAGE재단(Heritage Foundation) www.heritage.org
- SIPRI(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www.sipri.se
-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 www.fas.harvard.edu/~korea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2002년 9월 인쇄

2002년 9월 발행

발행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142-715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 02) 901-7020

Fax : 02) 901-7024

인쇄처 양동문화사

Tel : 02) 2266-5277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

<비매품>

